



# 사직단 자료집

2\_신문기사 편

2013.11.26

재단법인 예울

# 사직단 자료집

## 2\_신문기사 편

황성신문	1898 - 1910
대한매일신보	1904 - 1910
매일신보	1910 - 1941
동아일보	1921 - 1999
신한민보	1925 - 1928
시대일보	1924 - 1926
중외일보	1926 - 1931
경향신문	1946 - 1988
조선일보	1968

2013.11.26

재단법인 예올



대한매일 신보	1905-09-05	2	5	社園折木	再昨夜風雨에 社稷壇後園古木이 十餘株가부러져서 直所廢舍를 破壞호는고로 守直호는 습이뒤우 慌慌이지니었다더라
황성신문	1906-05-14	3	1	社牆修築	●社牆修築 昨年風雨에 社稷壇牆垣이 毀頽호야 所重之地에 鷄犬이 攔入호야 行路興嗟호더니 近日掌禮院에서 修理次로 籌摘호는되 牆垣毀頽가 八十餘把라더라
황성신문	1906-08-13	2	3	五次雩祭	●五次雩祭 社稷壇에서 第四次雩祭를 設行호얏스나 卅需가 尙靳故로 第五次雩祭는 今日 宗廟에서 設行호얏다더라
황성신문	1907-06-01	1	1	宮廷錄事	官報 ○宮廷錄事 本月二十八日度 度支部大臣 高永喜와 法部大臣 趙重應과 農商工部大臣 宋秉峻에게 親任式을 行호는事 宮內府大臣勳一等臣李載克謹奏即接開城郡守劉漢容報告書則以爲本郡分奉常司主事張時淳憑托社稷壇址越禁多發官隸凌轢閭里農時人民無難捉去捉來附近人民苦被挾迫空家渙散甚至於討索民財呼訴遷至似此官人不可仍寘茲以報告云矣該員本非治民之官而不守職分法外行悖以致民訴揆以事體難免違格似此昧例之人不可寘諸官列開城郡分奉常司主事張時淳姑先免本官何如謹上奏 光武十一年五月二十八日奉旨依奏 弘文館大學士金鶴鎮辭職疏 批旨省疏具悉詞垣之任非可遽解卿勿辭行公 五月二十九日
대한매일 신보	1907-07-12	2	4	백발백중	일전에 兩각동 황학정에서 사원 오십여명이 모여 좌우편 같나 활쏘기를 하였는데 우궁편에 강영희씨가 세순에 열다섯대를 런중하여 좌궁편을 이기니 강씨의 활 잘쏘는 법을 대단 칭송하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7-07-12	2	2	姜氏善射	日前樓閣동黃鶴亭에서射員五拾餘名이會集호호야左右弓을分別호호야左弓便에는三色旗을懸호고右弓便에는白色旗을懸호지라左弓便手姜正會氏가三巡에집五中을連貫호호야右弓便을勝호미姜氏의善射手段은傍觀者가莫不稱嘆호호야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3-28	2	1	황학정수축	태황제폐하께서 새문안 대궐안 황학정에 립어하오서 활을 런습하실터인고로 그 사정앞에 기지를 지금 수축하는 중이라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3-28	2	1	궁시제조	태황제폐하께서 황학정에서 활을 런습하신다 함은 별항과 같거니와 활과 살을 제조하였고 새문안 구름다리로 통한 어로를 수리하며 덩감들이 활 쏘실 때에 창하기를 사슴한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4-17	2	1	기생연습	태황제폐하께서 황학정에 립어하사 활을 쏘실 때에 확장할 기생 오명이 제작 일부터 런습하였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4-21	2	1	매일숙습	영선군 리준용씨는 황학정에 매일 기악을 다리고가서 해풍 부원군 윤택영씨와 활 쏘기를 익힌다더라.
황성신문	1908-04-22	2	2	御射黃鶴亭	●御射黃鶴亭 太皇帝陛下게옵서 再昨日下午一時에 黃鶴亭에 御臨親射호호잇는되 醫士佐藤進氏가 陪從參觀호호얏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4-22	2	1	일의배중	태황제계옵서 제작일하오일 점중에 황학정에 친립하사 활을 쏘실 때에 의사 좌등진씨가 배중 참관하였다니 폐하께서 한국 료리를 하사하셨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5-07	2	1	황학정풍류	제작일에 영선군 리준용씨와 중추원 고문 리지용씨와 종이품 김승규씨가 기악을 명솔하고 황학정에 가서 활을 쏘고 놀았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5-24	2	1	잘덜논다	근일에는 각부대신이 무슨 사건을 인함인지 사무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황학정에 모여 날마다 활쏘기와 기악으로만 세월을 보낸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08-05-28	2	3	금할만한일	각 대관들이 서궐안 황학정으로 모여 활을 쏘고 놀던 것을 백호정으로 옮긴 까닭은 서궐도 막중 궁궐인데 날마다 기악을 무난히 다리고 들어가는것이 사체에 미안하다하고 경시청에서 금지하는고로 백호정으로 옮겼다더라.
황성신문	1908-07-28	1	3	勅令	○勅令 朕이 享祀齋正에 關호는件을 裁可호야 茲에 頒布케호노라 隆熙二年七月二十三日 勅令第五十號 享祀齋正에 關호는件 第一條 壇 廟 社 殿 宮 陵 園 墓의 祀典을 左와 如히 改正호야 宮內府에서 此를 舉行호 圜丘壇 一年二次 社 稷 一年二次 宗 廟 一年四次及二次告由祭 永寧殿 一年二次 景孝殿 一年四次 懿孝殿 一年四次 文 廟 一年二次 啓聖祠 一年二次 肇慶廟 一年二次 肇慶壇 一年一次 慶基殿 一年二次

					<p>潛源殿 一年二次  咸興本宮 一年二次  永興本宮 一年二次  儲慶宮 一年二次  大嬪宮 一年二次  延祐宮 一年二次  毓祥宮 一年二次  宣禧宮 一年二次  景祐宮 一年二次及忌辰祭  陵 園 墓 一年一次及忌辰祭  但祧遷의 位에는 一年一次만 舉行함  燕山墓光海墓에도 亦同함  蠶神廟 一年一次</p> <p>第二條 永禧殿 穆清殿 華寧殿 內需司 冷泉亭 平樂亭 城一軒에 奉安함 辟容을 潛源殿에 移安함고 舊殿閣은 冷泉亭을 除함 外에 并히 國有에 移屬함 但 辟容 移安의 節次는 宮內府에서 別로히 此를 定함</p> <p>第三條 儲慶宮 大嬪宮 延祐宮 宣禧宮 景祐宮에 奉安함 神位는 毓祥宮內에 各別히 位室을 設함야 合祀함고 廢宮은 延祐宮을 除함 外에 并히 國有에 移屬함 但 神位移安의 節次는 宮內府에서 別로히 此를 定함</p> <p>第四條 宜嬪宮 慶壽宮 永昭廟 文禧廟에 奉安함 神位는 埋安함고 該宮廟는 宜嬪宮을 除함 外에 并히 國有에 移屬함 但 宜嬪宮 慶壽宮의 墓所에는 永昭廟 文禧廟의 園所例에 依함야 一年一次祭를 設行함고 埋安에 節次는 宮內府에서 別로히 此를 定함</p> <p>第五條 先農壇 先蠶壇의 神位는 社稷에 配享함고 該壇基址는 國有에 移屬함</p> <p>第六條 山川壇 山川嶽瀆零祀壇 司寒壇 玉樞壇 七祀 四賢祠 厲壇 城隍壇 馬祖壇 武烈祠 旌忠壇 宣武祠 靖武祠의 祭祀는 自今廢止함고 該壇祠의 基址는 國有에 移屬함</p> <p>第七條 大報壇 萬東廟 崇義廟 東關廟 南關廟 北關廟及地方 (安東 星州 莞島 南原 全州 開城 平壤) 關廟의 祭祀를 廢止함고 大報壇基址는 宮內府에서 保管함고 崇義廟 北關廟는 國有에 移屬함고 萬東廟 東關廟 南關廟及地方關廟는 該地方官廳에 下付함야 人民의 信仰함을 從함야 別로히 管理함 方法을 定함</p> <p>第八條 歷代 廟 殿 陵 祠及地方에 設置함 社稷壇 文廟는 總히 政府의 所管으로 함</p> <p>附 則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함</p>
황성신문	1908-11-01	2	6	赤社總會盛況	<p>●赤社總會盛況 預報와 如히 昨日午後一時西大門內慶熙宮에서 第一回總會를 舉行함았는디 當日出席社員章과 有功章을 佩用함았더라 爆竹으로써 開會式을 行함고 來賓과 社員一同이 式場에 整列함의 社長代理委員總將代理가 式壇에 臨함야 日本兩殿下의 御眞揮帳을 捲함 後奏樂敬禮함고 開會를 宣告함고 總裁殿下의 御旨를 朗讀함 後總長代理가 奉答함고 大韓國歌를 奏함 後一同敬禮함고 我皇后陛下御令旨를 奉讀함고 社長代理와 來賓과 社員總代가 祝辭함고 有功章과 特別社員章을 授함고 赤拾字社萬歲를 三唱함고 閉會함 後式場內黃鶴亭前面에서 赤拾字社軍의 實地救護演習을 開始함고 終畢함 後에 模擬店으로 各進함다 餘興은 韓日兩國軍樂明月館演戲와 日本演戲로 觀覽人의 眼目을 決瀾케함았더라</p>
황성신문	1908-11-24	2	4	文廟享費	<p>●文廟享費 各地方文廟及社稷壇을 明年度부터는 內부에 句管함기로 定함았다가 文廟는 學部에서 句管함기로 今年七月에 勅令으로 頒布됨을 因함야 學部에서 度支部에 照會함되 全國에 文廟가 三百四拾四處인디 一處에 享祀費를 三十圓式支出함기로 定함주 總計가 一萬三百 拾圓이니 此額을 明年度預算에 追加함라함았더라</p>
대한매일신보	1909-09-16	2	5	음력으로 팔월 초에 무토일이 되었다고 사직단에 제사코져 유사관리 모혀드니 고난중에 우리들도 더유사를 따라가서 지성으로 분향하고 구곡간장 싸인회포 신명전에 빌어보세	음력으로 팔월 초에 무토일이 되었다고 사직단에 제사코져 유사관리 모혀드니 고난중에 우리들도 더유사를 따라가서 지성으로 분향하고 구곡간장 싸인회포 신명전에 빌어보세
대한매일신보	1909-09-18	2	1	제사비마련	력대던통의제사비는 사직단에 제사하는 경비와갓치 지출하기로 내부에서 결정 하엿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9-10-09	3	3	가을제사	각지방에 잇는 사직단 휴제에 쓰게함라고 내부외서 각도로 향축을 나려보내엿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09-10-27	2	2	사직단향사비	내부에서 사직단 향사비를 다시마련하는데 십일부에는 일백십원이오 삼백십팔 군에는 삼천륙백구십원으로 작당하엿다더라
황성신문	1909-11-03	2	5	享祀費引繼	<p>●享祀費引繼  歷代各殿陵及社稷壇享祀費를 從來로 學部에서 編製支撥함되니 隆熙四年度부터 該事務를 內부에서 引繼處理함기로 決定함았다더라</p>

황성신문	1909-12-01	1	4	修理費請撥	●修理費請撥 水原 交河 加平 始興 等郡에서 社稷壇을 修理하얏는디 該修理費를 支撥하라고 本道觀察使 金思默氏가 內部로 報告하얏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10-01-08	2	2	향사비결정	각력대 墩릉과 社稷壇 향사비를 작년도에 결정함이 업는고로 지발하기에 곤난이 막심하야 내부에서 탁지부에 교섭하야 본년도에는 사천오십환으로 정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10-01-08	2	3	亨祀費立筭	●亨祀費立筭 各歷代殿陵과 社稷壇의 亨祀費는 本年度에는 內部에서 度支部에 交涉하야 四千五十圓으로 立筭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10-01-20	2	4	國庫金中請撥	●國庫金中請撥 水原始興加平交河等四郡의 社稷壇修理費를 地方慣例를 依하야 支用하라고 內部地方局長이 京畿觀察使에게 照會하얏더니 答照하기를 慣例가 別無하니 國庫金으로 支撥케 하라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10-03-19	2	6	社稷壇頽圮修補	●社稷壇頽圮修補 保寧郡社稷壇이 年久頽圮하얏는디 修繕費를 支撥하라고 該郡守 李奎白氏가 內部로 修報하얏는디 內部에서 申飭하기를 依年例修補하라하얏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10-03-25	2	1	처벌할조목마련	태묘와 社稷壇과 원구단과 各 릉소에 갓가히 제마음대로 드러가는자는 징역 일년으로 도역문안에 드러가는자는 태형 백개에 처하기로 그 조목을 궁내부에서 마련하얏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10-04-08	3	1	사사표보고	한성부에서 소관장내에 있는 各 社稷壇과 사당入집의 표를 수정하야 내부에 보고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10-04-08	2	2	亨祀費請求	●亨祀費請求 平北觀察道에서 社稷壇亨祀費를 支撥하라고 內部로 請求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10-04-20	2	3	大祭狀況修報	●大祭狀況修報 全羅觀察道에서 管下各郡의 社稷壇大祭舉行하얏는 狀況을 內部로 修報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10-05-19	3	1	社稷城隍修報	●社稷城隍修報 十三道觀察使가 部訓令을 依하야 管下各郡에 在호는 社稷壇及 城隍堂의 數及附屬土地의 有無를 一一調査하야 修報하얏다더라
황성신문	1910-06-30	2	5	社稷修理費請撥	●社稷修理費請撥 草溪郡守가 該郡社稷壇修理費를 支撥하라고 內部에 請求하얏다더라
대한매일 신보	1910-08-06	2	3	일도퍽은없는게 로고	의친왕전하의 편 한량과 영선군 리준용씨의 편 한량이 본위러 삼일에 황학정에서 편사를 쏘았는데 의친왕전하의 편에서 열다섯점을 쏘음으로 분함을 인하여 재차 편사를 쏜다더라.

## ② 일제강점기

- 1910년대

신문명	년월일	면	단	제목	본문
매일신보	1910-10-14	2	2	雜報: 社稷壇規則 제정	社稷壇規則制定 內務部(내무부)에서는 各地(각지)에在(재)한 社稷壇管理(사직단관리)規則(규칙)을 制定(제정)하야 昨日(작일)에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로 送交(송교)하였다더라
매일신보	1912-04-29	3	5	黃鶴亭의 便射	▲팔즈도흔사람들이로군▲ 북부직동,취운덩(齋洞,翠雲亭)에서는, 윤경중(尹敬重)씨의주장으로,서대문안,황학덩(黃鶴亭)에서는, 엄준원(嚴俊源)씨의주장으로써,편스(便射)를설히호고,승부를결단호는디, 엄준원씨의편에서,젓다더라
매일신보	1913-06-10	2	7	최근의 開城: 京鄉 연합 便射會	開城郡에서는去月來로三郡射亭에서便射會를開하고暢遊하다가停止하였다니昨日에京城黃鶴亭射員三名이當地에來到하야京鄉이聯合便射하기를通單하야기로應單한後不日間에當地觀纜亭에서京鄉便射會를開催할豫定이라더라
매일신보	1913-06-18	4	2	여편네가 무슨 상관	기성군(開城郡)에서는,거월브터,여러번편사를호더니,본월십오일에는,경성황학덩(京城黃鶴亭)에서,사원이이십여명이리도호야,기성과경성이,편을갈너가지고,당디관덕덩(觀德亭)에서,편사를결히호았는디,그날은별로히공일이되야,일반관람자가,여러천명이달호았는디,그중너즈들은,무슨구경이야,아마너즈가업스면,아모것도안이될갑아그리느지(개성지국)
매일신보	1913-12-16	1	2	平南通信: 舊社稷壇의 處分	從來舊社稷壇所在地에 對하야는 近來에往往히貸代又是讓與를出願하는者多하나然연이나右는特別한事由를除한外에는壇所在地并其景勝上必要한成林塊域을當分間許可치안이하기로決定하고某處에就하야本道內務部長은各府及郡守에게通牒을發하야다더라
매일신보	1914-06-06	4	1	地方通信: 京畿道, 大舉便射(開城)	京城黃鶴亭에서 客拜頃에一般射手를□板□□□□觀德亭反求虎亭똥聯合호야鄉邑에空□호會□호고愉快호情을表호았더니□年□에도黃鶴亭에先□起□前年の替規를徹하야便射□催호는通諭를接호富□射員들은互相協議中이라더니近聞한즉京便射는延期되고爲先當地觀德亭反求亭三處의聯合으로不日關便射會를舉行호다더라
매일신보	1914-07-07	3	3	黃鶴亭 便射, 사람 하나 쏘이고, 개성편이 패군	사람 호아쏘이고 기성편이피군 기성관덕덩한량들은 그동안경비를불쇼히드려 편사쏘기에 골몰호았스나 다만그고을한량들만 서로모혀서 승부를 다토는것은 대단무미호일이라호야 일동한량들은 호상셔울한량과호가지로 편사(便射)를 시작호야 승부를 다토아보기로 종중협의가란만호던결과 맞참니 그고을한량중재산잇다는사람들이 발기호야 거대호금익을모아가지고 즉시경성부서부 황학덩(黃鶴亭)스회에 경단을 보너여호의 쏘아보기로 작덩호후 그적게닷시날하호시브터 서대문안 황학덩으로 처소톨덩호고 아리우딤션슈한량이십여명과 기성한량 스물네명이 모혀 각기 저도를 자랑코져 의견연습을 시작호는디 스방에서모호호는 구경군은 오전에 인산인히를일우어 여러천명에 달호았고 좌우편에는 각기열다섯씩 쏘아 한시부터 편스말 시작호였는디 질탕호 음악가온디 전후아렀다는 기성들의 지화자소리는 모든한량의 호기를 도습고 여러천명구경군의 아호성은 산이문혀지느듯 겹겹쏘기를 다호야 직순을맛칠즈음 하호세시에 일으려 관역근처에 워립호고잇던사람 한아히 건너호는살에 억기틀마져갓마지며 일변구경군은 그곳으로 달너가서 각기씨드러가며 관역은 맞치지안코 사람맞치느편스라고 육설이무쌍호였고 일변취테호던경관이 응급구호로 병원에들다리고갓스나 다히히 상치느안호고 굿디편스노름은 아쇼살풍경이일어나 일장분요가 쓴치지를안이하다가 겨호진정이되야 다시쏘아 여섯시쑤디에 일으려 기성편에서 열여덜점을 진고로 데의회로 어제도쏘호고 대기 오났지맞칠터이라더라
매일신보	1914-07-11	3	5	觀德亭의 挑戰, 경성 개성의 또 편사	임의게지호마 경성한량과 기성한량들이 연합으로 식문안 황학덩에서 편스대회를기최호야 맞참니 기성편에서 젓다는말은 일반이 아는바이니와 추후 쇼식을드른즉 그대그와긋호편스에 한번용쾌히익이지못호고 고만실퍼를달호고 모다느려간후 호히려 분호트몹은 스라지지 아니호야 기성 관덕덩에서 서울한량을 청호야 즈웅승부를 결단호기로 단즈가온다는디 지금서울한량들은 날로활쏘기 련습에 골몰호다더라
매일신보	1914-07-24	4	2	地方通信: 京畿道, 聯合便射(開城)	全郡各射亭良及京城黃鶴亭射員이聯合便射한다함은己爲報道하야거니와本月二十一日에京城黃鶴亭射員二十餘名이到着하야二十二日은當地虎亭에서射藝를舉行하야勝負를決하고習朝에는當地有名泉石扶山洞山亭으로盛大한慰勞宴이有하다더라(以上開城支局發)
매일신보	1916-01-09	4	3	지방통신: 경상남도, 射友會의	(晋州)晋州郡에서는黃鶴,靑龍兩亭射友會에서本月三日에年始의便射를設行하호는데同月은靑龍亭射首徐珍旭氏의還曆祝賀를위하야同氏의兩玉廷鐸,廷鏞二君이水陸을盛備하고官紳高客을多數聽邀하호는데于時에黃鶴亭의便射選手十五員이來

			年頭便射	會하야 妓樂熱鬧場裡에서 兩便이 各三巡의 合射를 賭하야 靑龍亭射手에서 六十矢對黃鶴亭射手 五十六矢로 勝利를 博하고 更히 矢數의 甲班一等 黃鶴亭射手 李相夏 同 二等靑龍亭射手 金奎柄 其次三等以下 乙班의 三各等과 丙班의 三各等을 取하야 高尚한 賞品을 贈與하얏는데 無前의 盛況을 呈하얏다더라
매일신보	1916-07-11	2 4	京城弓術 발기회, 13일 오후 2시 서대문 내 黃鶴亭	弓術이란 者는 吾東洋에 幾千年來로 相傳하던 六藝之一로 老少貴賤을 勿論하고 男兒의 最히 重要한 術業이 됨을 不失하야 武藝科學上에 도此를 利用하얏거니와 此外에 도 古來로 射以 觀德이라 하야 吾人의 精神을 修養하며 禮儀를 整肅히 하며 身軀를 建康케 함에 最大한 利益이 有할 辨안이라? 交上 友道를 敦厚케 하는 所謂 近來의 俱樂部와 如한 ▲一好個 機關을 作코져 함이라 挽近以來 歐洲로 各種의 新式運動法이 多數 輸入되매 捨舊取新하는 現世인 常情으로 弓術의 萎靡이 與日共甚하야 諸般의 美蹟이 亡羊의 嘆을 發함에 至함은 一般이 拙히 哀惜히 志하는 바 이더니 弊社에서 今春 牛耳洞櫻大會를 開하고 所에 櫻木을 植付한 歷史를 徵하야 弓術大會를 並爲 開催하얏더니 多數한 內外 縉紳이 其射法의 巧妙함을 十分欣贊하야 數千의 觀覽客이 異口同音으로 ▲弓術의 振興을 絶대하야 當日은 朝鮮弓術의 捲土重來할 氣運을 呈하얏더니 其後 同志者間에서 當局에 贊成을 得하야 衆望으로 子爵 趙重應 阿部本社長, 嚴柱益氏等을 主動者로 來十三日 午後二時부터 西大門內 黃鶴亭에서 ▲京城弓術發起會를 開하고 朝鮮各 貴族及 內鮮 縉紳, 各銀行會社員을 網羅하야 今後 弓術의 發展을 期코져 함인데 當日은 同會의 組織을 主로 하고 弓射會는 更히 他日을 擇하야 全無한 開하고 江湖의 大讚成을 博코져 함이라
매일신보	1916-07-13	2 6	경성공술발기회 雨則順延	既報한 京城弓術發起會는 今十三日 午後二時부터 興化門內 黃鶴亭에서 開催할 豫定이 나 屋外의 運動인 고로 自然 雨天인 時는 順延된다더라
매일신보	1916-07-15	2 6	경성공술발기회, 會名의 觀德會라 하고 총회를 來22일로	豫期와 如히 京城弓術發起會는 昨十三日 午後二時부터 興化門內 黃鶴亭에서 開하얏는데 開會以前부터 李完用伯 以下 各 貴族及 內鮮 縉紳 百餘名이 臨席하야 盛況으로 主客이 着席한 후 趙重應子는 開會를 告하고 黃鶴亭 射稷長 嚴柱益氏의 同意로 子爵 趙重應氏를 會長으로 하야 滿場의 一致로 趙子는 同會長席에 就하야 同會의 趣旨及 先後方針 等에 對한 一場祝辭가 有한 후 李完用及 柴崎中學校長 安部本社長 등 諸氏도 各各 所感의 答辭를 述하얏으며 同會會則制定委員 五名을 互選하야 嚴柱益, 鄭行烈, 丙宗錫, 劉海鐘 其他 諸氏를 被選하얏고 總會는 來二十二日로 決하얏는데 會名은 李完用伯으로 觀德會라 는 命名을 定한 후 茶菓의 響應이 有하고 餘興은 弓術로 閉會함에 거의 日暮에 近하얏더라
매일신보	1916-08-01	2 6	觀德會送別試射	京城觀德會長 子爵 趙重應氏는 宿病을 靜養차로 金剛山 溫泉里로 啓行함에 對하야 該會員 一同은 柝를 送別하기 爲하야 昨三十日 興化門內 黃鶴亭에 雅宴을 說하야 健康을 祝한 後仍히 試射하얏는데 射頭 嚴柱益氏는 弓術을 勸獎하기 爲하야 自費로 多數한 賞品을 準備하야 一等 鄭行烈 외 數人에게 施賞하얏는데 就中 內地人 木新一郎氏는 入會한지 不過하나 朝鮮의 弓術은 其禮義의 嚴正함을 方始認覺이라 하고 極口 贊賀하며 正心工夫를 孜孜不已하더니 當日은 三貫을 連中함으로 將來 名手의 望이 有하다며 觀衆으로 幕下 喝采하야 同會의 異彩를 添하얏더라
매일신보	1917-06-06	3 3	상황이던 백호정 편사, 황학정에서 졌다	지난스일 오후두시부터 유각골쪽다이 빅호정(白虎亭)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편사대회가 되얏더라 황학정스계(黃鶴亭射契)가 주인되고 청룡정사계(靑龍亭射契)가 손님되야 량편선수 각각 이십명식이 각각 묘기를 다하야 경정하얏더라 경정이라하야도 할 경쟁은 ▲ 군자의 경쟁이라고 옛날 경서에스지 박힌것이라 줌압줍뫼가 되야도 남의 탓은 홀수업는것이오 넘고 쳐져도 남의 원망은 홀 여디가 업다 사원들은 대기스십이상 칠십로인스지의 늙은 선수인디 그중에는 이십가량밖에 안이된 청년도 한사람 끼여잇고 구목(白木)이라하는 일본사람도 한사람이 끼여잇는디 이 사람은 두순에 두번다 삼중의 성적을 얻어 여러사람의 탄상을 받았더라 당초에는 물론 삼순으로 ▲ 승부를 결홀예당이얏스나 일력이 부족하야 두순만 쏘고 승부를 결호얏는디 주인되는 황학정편에서 첫순에 세숫을지고 들지순에는 동뎡이되야 필?삼뎡을 지고 후날을 기약호후 헤어졌더라 당일의 리빈으로는 관덕회당의 도중은즈는 물론이오 리완용빅, 도민회즈, 민영기남 등 귀족 제씨도 잇섯고 순병회씨, 엄주익등 제씨도 참석호얏더라 쏘 여러천명의 관람자는 좁은 산골에 가득호야 열심으로 구경호며 우편아리 편이즈연히 갈너 즈기편의 맞치기를 쏘이는 모양도 장관이더라
매일신보	1918-05-28	3 3	靑龍 黃鶴의 便射, 황학정이 두 점을 이겨, 27일에도 편사	히마다 우디 황학정과 밋으리디청룡정스이에 편스회를열어 무기를 도당호야옴은 일반이 다 으는 비어니와 이번에도 편스를 열기 위호야 먼저 청룡정에서 황학정 편과 의론호고 지나간 이십오일 오전 십시부터 ▲ 동대문밖즈지동 청룡정 활터로 모혀 시작되엇는디 한편 이십이인식 합계스십스인의 한량들이 의기당당호게 팔을 썩니여가며 각기 관중호기에 이를쓰는디 쏘기를 시작호기는 오후네시브터이라 산상산하각처에 모혀든 구경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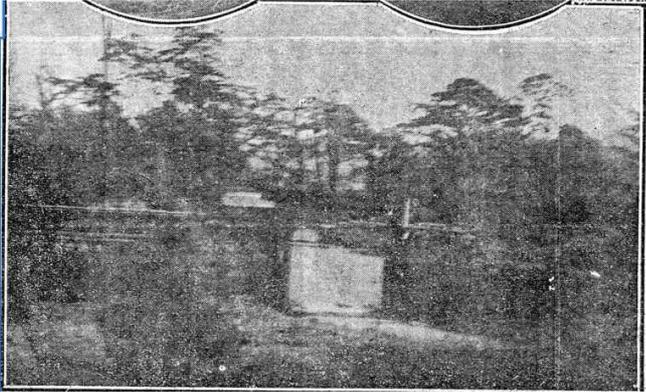
				<p>으리우디편을 합하여 수천여명에 달하여 죽지동 압두산은 사람으로 과묵치여 일대장관을 일우는 동시에 초순은 어언간다 맞추고 지순이 시작되야 한참 쏘을적에 비방울이 조금씩 나리엇스나 모든 구경군은 전혀 불게하고 죽지편에 디하여 열심히 소리쳐</p> <p>▲ 응원을 하느디 지순까지에도 황학당편에서 몇덱씩져서 오다가 삼순에 와서 는 청룡당 스원의 시로쓰는 편순구(片舜九)란 소년한량이 삼중하야 갈치를 밧고 으리디 유명헌 차형순(車亨淳) 한량은 다만 일시를 맞춘 싯담에 필경에는 청룡당에서 두덱을 저서 우디편은 만세를 부르고 도라갓느디 구경군들도 성벽 이 나서 아모리 응원을 하나 원테 시수가 업서서</p> <p>▲ 그모양이 된 고로 이번은 청룡당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야 다시 이십칠일 에도 편스회를 여럿다느디 우디스두의 경형렬(鄭行烈)씨란 로인의 삼중이 중 하는데에는 모든 구경군이 혀를 돌너 경탄불이 하더라</p>
매일신보	1918-05-29	3	4	<p>再次的 便射, 청룡정에서 21점을 이겼더라</p> <p>으리디청룡당에서 편스의 2덱을 지고 한량의 성벽에 지고 말수가 업다하야 지나간 이십칠일 죽지동 청룡당 활터에서 지가되얏느디 이번은 진편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기싱과 삼현륙각을 준비하고 산상산하에</p> <p>▲ 음식덱을 설비헌 외 기타 디덱이 만어서 일단의 경황을 도읍고 구경군도 전날보다 더욱이 만어서 여러 천명에 달하얏슴으로 이를 경계하기위하야 순사 두명이 출당하야 만일을 경계하얏느디 량편스당에서는 오후 세시부터 시작하 야 한번맞치는 썩에 기싱의 지화자 소리와 아올너 풍악소리가 죽지러지는 중 에 무겁에서는 장죽썩이는 사름의 춤을추는 것은 한량의 억기춤이 저절로 나 게 하더라 어언간 초순지순이 다니느디나 청룡당 편에는 시수가 엇더케 만히 나던지</p> <p>▲ 거기와 희청이 쓴일 스이가 업서 관혁맞는 소리가 장작찍이는 소리갓혔다 처음부터 황학당편에서 십여덱을 저가지고 삼순싯지 영히 밧지를 못하고 맞잡 닌 분이 싱기여 이를 써가며 맞추려 하얏스나 쇼용업시된고로 필경에는 황학 당편에서</p> <p>이십일덱을 지고 논기가 막히여 힘업시 도라갓고 청룡당 편은 모든 구경군과 함의 희척이 만면하야 기싱의 지화자 소리중에 만세를 부르고 혀여갓느디 이 번에 이십일덱을 진것은 청룡당 편의 성적이 비상히 도와 삼순 십스중싯지 혼 사름이 잇스싯따이라 그런디 금이십구일 불원간 황학당편에서 청룡당편을 청 하야 우디 황학당에서 일대 승부를 결하는 편스회를 연다더라</p>
매일신보	1918-06-29	3	4	<p>黃鶴亭서 便射, 성황을 이루었다</p> <p>지나간 이십칠일에 황학당사계(황학정사계)에서는 일반사원이 빅호당(백호정) 으로 모히여 시수의 상격한 사원을 좌우편에 난호아 터편 사회를 성대하게 열 었느디 이날에 구경하는 스롭도 비상히 만엇고 데일 즈미잇고 볼만헌 것은 종 로경찰서 신고서당(신고서장)의 권고로 겨는 관혁기량이라 즉 관혁스면으로 흑선을 두르고 이왕에 관혁변죽을 치고 살이 나가면 목성이 낫다고 마진 것으 로 시험하기 썩문에 시비가 자조 싱기든 폐회를 아조 막게 된 것이오 쏘 금번 신사로 사계에 립참헌 경성지물상회주김성환(김성환)씨가 쇼순에 관중하얏 느디 모든 사원과 구경군들이 박수갈치를 하고 기싱의 지화자 소리와 풍악이 자 즈러져서 자못 성황을 이루엇더라</p>

- 1920년대

신문명	년월일	면	단	제목	본문
매일신보	1921-06-14	3	1	京城府의 新計畫 東北을 貫通할 道路, 경성시가의 도로는 참으로 아주 변형될 모양이다	<p>대경성을장차 건설할것도 지금을당하야 점차로 익어가서얼마안잇스면 설학하 게되야 착수부도사과에목촌__웅(木村__雄)씨를방문한즉 목촌씨는 경성부의큰 디도를 손으로 가라쳐가며 도시계획에 대하여 아리와갓치 말하였는데 그말인 즉 『그 계획의 데일보로 목하도사를 진힘하는 것은 경성시가 확장에 관한 구 역이 되여서 아직구테덕으로 설명을할슈는 업스나 한번시험으로볼진대 경성부 의 중심디로부터일대』 콤포쓰바늘들게하라면 동쪽은송인면을 출발덱으로 하고 점차로 남쪽을 향하야 여의도(汝矣島) 근처를외고그다음고양군로고산(高陽郡 老枯山)의서쪽디형이나 진룡강면연희면 일디의성을 병합하야가지고 여기에 한 박회동 글게 일주를 하계하야 동쪽으로 도라오계된 공압을 지나여서 총독부의 위압으로 나와서 다시 중앙시협소 근처를 관통하야 동대문_지 일오게할 계획 인즉 얼마안잇스면 경성시가의 도로는전에 못보던일대도로가 될모양이오 그방 면으로 혈닐집도참적지안을 모양인대 대대는사직단에서 경복궁을직통케 하야 종로큰길과 맞찬기지로 하겟고 경복궁압해서 창덕궁까지 직통케 하야아조환- 한 큰신작로를 만들계획이며 창덕궁에서 총독부의 원압까지 역시환-하계 신 작로를 만드러 아조통활이 되게하고 또총독부의원 압에서 중앙시협소즉공업전 문학교 근처_지 들어가지고 또직통으로 동대문까지바로 꼬여뚫을작명인즉 불 원장력에 경성시가는 전에못보던 이상하고도 띄우도흔 길이되는 동시에 경성 안사람도 엇던곳이엇던곳인지 잘분간을 못하게될 대신작로가 되리라더라</p>

매일신보	1921-06-22	3	4	大正漢城妓習射	<p>서귤안 황학당(黃鶴亭)이라 하면 네로브터 혼량(閑良)들의 편사터로 그 일홈이 높흔곳이라 그런대 수일전브터는 난데업는 곳밭을 일우엿스니 그는 다름아니라 지금 만주(滿洲)에 있는 우리 도선동포가 작년에 큰 흉년을 만나 산설고 물설은 쌍에서 주림을 못 이기어 부르지는 불상흔 형상을 얼마간이라도 동정하야 주기 위하야 대정(大正)과 혼성(漢城) 두권번의 기싱들이 연합흔 품에 양징흔 팔을 부르졌고 썰니는 손을 드러 잡아다리는 화살은 적으면 열간덜면 오십간이닉에 서썰러진다 이제 두권번의 기싱오륙십명은 슈일전브터 그터에서 그것을 공부하기에 믱우 열심중인데 보통갓호면 밤을 낮을 삼는 그네들이다 그러나 그네들은 날마다 아잡아흠시부터 출동하야 활쇼기공부에 믱우 열심흔다 아즉 장소와 기일은 작정치아니하얏스나 공부가 언간히 되면 정식으로 편사대회를 열어서 그들에 드러오는 입장료와 의연금으로 만주에잇는 동포에게 전부 이를기부흔다는대 이스진은 이십일일에 공부하는 광경인데 활을 잡아다리는데 그들의 모양은 참으로 불만헌데 비견갓으면 녀즈의 의용병(義勇兵)이라 하야도 도홍만하더라</p>
					
매일신보	1921-07-25	3	7	聯合便射大會, 한강 말굽다리 근처에서 양일간 편사회	<p>도선고려의궁술(弓術)을 연구하야오는 경성시니 백호당(白虎亭)에서와 황학당(黃鶴亭)에서와 청룡당(靑龍亭)에서와 혼강사정(混江射亭)에 내곳 사당(射亭)에서는 임의 여러가지로 계획하야 오던바 이번엔 연합 편사대회(聯合便射大會)를 기획하야 혼량(閑良) 팔십여명이 금이십오일부터 이십륙일까지 양일간에 『한강말굽다리』 부근에서 굉장히 편사홀터인데 지는편에서는 천원을 넘이기로하고 시니 각 권번 기싱 오십여명이 응원으로 나간다더라</p>
매일신보	1921-08-09	3	3	石虎亭이 又慘敗	<p>한강편이 또 이겨서 석호정에 큰 분통 편스는 우리 도선에 전리하는 궁술장려와 쏘흔 습속에 지나지 않는 데일 쥬흔 활쏘기인데 이번엔 우대 황학당(黃鶴亭)과 아리대 청룡당(靑龍亭)과 남촌 석호당(石虎亭)과 혼강 남덕당(南德亭) 네 터에서 전에 업는 네터 연합의 편사대회를 처음엔 혼강 남덕당사 터에서 거행하야 불행히 남촌 석호당에서 무참히 지고 다시 석호당에서 돈을 넘어 세터를 청하야다가 그씨의 진것을 복슈하려고 식골서잘 쏘은다는 농부 혼량들을 쫓아다가 대대적으로 승부를 닦호기가 되야 지나간 특일부터 칠일가지 장충단 석호당의 본터 되는 활터에서 복추전을 기시하엿던바 원데 한강 남덕정 편이 시수가 만히 나서 모다형세를 관망하던 중 특칠천명의 관중은 흥미잇시 구경하즈 쏘 이번에도 석호당편이 여디업시 쏘수가 업서서 인국부터 다른 사당보다 활신지고 잇슴으로 모던 관중은 도리혀 가이 업시 생각하고 일제히 응원을 하야 석호당 편에서 맞치는 썰는 아호성 소리에 응원성이 장충단 산중을 웅장히 도울?엿다 맞참니 히는 셔산에 기우러지고 박모가 되려홀 오후여섯시반에야 마지막의 결승이 낫는데 쏘 석호당편이 참편을 하고 데일 쏘수 만기로 장원을 혼 곳은 혼강 남덕정 편이 대승하야 이십여 명의 기싱들의 지화즈 소리와 무겁에 잇는 흥기든 거기잡이의 흥청거리는 기들은 모양이며 혼강사름들의 도화하는 호기심에 아쥬 석호당편은 창즈가 터질들이 붓고 그림고도 분하여서 쏘를 맞치기 전에 모다즈쇠를 감치야 바린가이 업슨 광경이엿섯는데 슈천의 관중도 분히 역여어대를 가던지 모다 석호당편에 동정을 하는 말뿐이다 그런대 데삼차의 복슈전을 하랴고 석호당편에서 분발하야 속히 청단을 하기로 결명이 되엿다흔즉 이위논 정말 데삼차의 복슈전인즉 지금 형편이 혼강군이위경에 싸히엿는 모양이오 황학정 청룡은 석호에 믱우 동정하야 곳 응락을 하고 불일간 기시하리라더라</p>
동아일보	1921-11-29	2		橫說豎說	<p>▲自然增收(자연증수)도 若干計算(약간계산)하야 經費支出(경비지출)도 요리조리 削減(삭감)을 하야 總督府(총독부)의 明年度豫算(명년도예산)은 艱辛(간신)</p>

				<p>히 作成(작성)한 模樣(모양)이다 本來(본래)가 理想(이상)업는 豫算(예산)이라 編成(편성)을 조금 고치다하야도 그것이 그것이지마는 當局者(당국자)가 苦心(고심)한 것은 조금 認定(인정)하야줄가 ▲問題(문제)의 平元鐵道建設費(평원 철도건설비)는 塞責(색책)으로 計上(계상)되야 잇스나 竣工豫定(준공예정)이 一年(일년)을 遲延(지연)하게 되얏스즉 結局(결국) 起工(기공)을 延期(연기)하 나 다름이 업스며 威鏡線一部(함경선일부)의 竣工(준공)이 豫定(예정)대로 進行(진행)된다함은 鐵道改良費(철도개량비)를 削減(삭감)한 結果(결과)이라나 ▲ 京城府(경성부)에서 總督府(총독부)로부터 舊社稷基地(구사직기지)를 借入(차입)하야 公園(공원)을 作(작)하리라함은 本報(본보)에 이미 紹介(소개)한바이니 와 此(차)에 對(대)하야 總督府(총독부)는 古蹟保管(고적보관)의 意味(의미)로 社稷壇(사직단)을 그대로 存置(존치)코저함에 反(반)하야 京城府(경성부)에서는 此(차)를 破壞(파괴)하야 運動場(운동장)을 만들라는 希望(희망)이 잇다하나 ▲ 運動場(운동장)도 緊要(긴요)치아니함은 아니나 何必(하필) 社稷壇(사직단)의 舊址(구지)를 破壞(파괴)하야서 만들라는 意思(의사)는 알수업다 舊蹟(구적)은 舊蹟(구적)대로 保管(보관)하고 運動場(운동장)은 別(별)로히 選擇(선택)함이 當然(당연)할듯하다</p>
동아일보	1921-11-29	3	社稷壇 公園問題	<p>당국은 사직단을 헐자는 희망이나 민간에서 반대 경성부(京城府)에서 금년봄에는 장충단(獎忠壇)공원을 확장하야 시내의풍치를 매우 도움게하얏스나 명년도에는 시내사직동(社稷洞)에 잇는 사직단(社稷壇)을 확장하야공원을 새로설치할예정으로 실디의적량과 대개의설계는 거의맞치고 총독부의내의(內意)도 거의 량해를 엇게되야 경성부에서 정식으로신청서만데 출하면 곧허가가 될터이나 지금한편으로는 사직단을헐지아니하고 그부근의 디면만개척하야 공원을만들게한다는 공론이잇스며 또부당국의 의견은 사직단을 그대로두어서는 공원이협착한가답에 헐기를 희망하야 량편의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야 방금문제가 되야잇다더라</p>
동아일보	1921-12-26	3	新設할三處의公園	<p>新設할三處의公園 경성부명년도예산으로 사직단후련원효창원에 경성부(京城府)에서는명년도의예산은 금년과 대략가틀모양임으로별로히 대규모의 새사업을할수업는가답에 이에따라서 토목계(土木係)의 사업으로도 새로운사업을 시작은 못할지라도 계속사업으로 시작한 부텅에서 관할하는 도로라든지 구룡산(舊龍山)의 치수공사는 예당대로 進行을 할것은 물론이어나와 사업으로는 사직동(社稷洞)에 잇는 사직단을 새로 공원으로 만들터이며 (중략) 사직단은 디면의 총평수가 일만칠천평가량인데 원래부터 그곳은 사직단이잇서 유명한곳임으로 다수한고목도 잇기때문에 그대로두고 공원을 설치할터인데 중앙에 사직단이잇는대 공원의터로 말하면 사직단을 허러야 넓게되겠지만 그곳은 사직단으로 경성에 한 명소인즉 아뭏조록 사직단은 그대로 보존하야두고 공원을 만들터이며 효창원공원은 원래부터 수목이잇는곳인즉 다시수목을심을 필요는업스나 공원의테제를만들면 상당한공사를하야야 하겠는바 래년도의경비가과연 엇더할는지 그러나 전기 세공원은 여하간 공사에 착수하야 일을 시작할터이라하며 새도로의개통도 역시 예당대로 실행한다고 말하더라</p>
매일신보	1921-12-30	4	12 來年度에 社稷壇에서 園新設, 용산효창원에도 공원을 신설코자 계획, 또 될 수 있으면 간이도서관도 배플 작정	<p>경성부텅에 길송(吉松)부윤을방문하야 대정십년도의 감상을무른즉동씨는 말하되 『본년도에부텅에서경영하는중 제일중요한 사업을들어볼것갓호면위선룡산(龍山)의비슈(排水)공사에경비가약이십일만원이요청계천(淸溪川)준철(浚濬)에경비가 십오만원이요또한도로산수(散水)설며위성과 소독반(消毒班)에 경비가이천오백원가량이요 순화원(順化院)증축에경비가이만삼천원이이라하며 그외에 후련원에건설한주택(住宅)에대한경비가구만일천원이 들었고 고등학교 조합사업으로는 고등녀학교(高等女學校)신축에든 경비가 이십오만원이요 룡산소학교(龍山小學校)를 다시건축하는데 일만칠천원과일출종로(日出鍾路)각소학교운동장을회장하는데이만오천원이요 그외에 학교비의사업으로는 교동보통학교(敎洞普通學校)락성(落成)과또는수송동(壽松洞)명동(貞洞)청엽(靑葉)등에잇는세보통학교는 벌써전부준공되얏스나금년의이상과갓흔사업을 표준하야 가지고더욱게속하야서또다시래년도에착수하고자 생각하는시속은룡산계천의 공사를계속경영하고또도시(都市)를기량하기위하야사직단(社稷壇)과 효창원(孝昌園)에다가공원(公園)을건축하고저하며 사회덕사업으로 노인사상당소(人事相談所)를 설립하야 세민도사를 확실히할일과 또한될수잇는대로는간이한도서관(圖書館)지라도 두고심혼성각이며수도(水道)도래년도부터는 아췌부영으로 될것임으로 『메-도루』를철부하야더욱일층확장하고자하고자경영중이며 학교조합으로는데이고등녀학교(第二高等女學校)를신설하야지금고등녀학교에다가는교학교를신설하고삼판(三坂)소학교를증축하고보통학교도 둘이나 셋식은더건축하려고 여러가지로 연구중이라하는데 이일년에 하야온 사업을 총괄적으로 회고할것갓호면경성이라는도시는참으로현적히크게 발달되엇다하겟지만현재는과도의 시기인고로</p>

					일노부터는 더욱노력하여 대경성의 실현을 하로박비하여가기를기약하는터이라』고말하더라
매일신보	1922-01-01	2	8	경성부 新事業	京城府의 來年度 豫算을通하야見한事業豫定은第一로公園을改修할事 第二는龍山과淸溪川의排水工事를續하고第三은人事相談所를設置하야府設職業紹介所도此一部로經營할지며同時に細民의生活調査를實行할事 第四는久히懸案이던現道廳에서管理한京城水道를府에移管하야更히擴張하고第五는簡易圖書館을設立하야府民에開放하며第六은 會事業의充實을圖기爲하야特志團體의經營을極力誘導獎勵할지며第七은高等女學校를建築中인貞洞新校舍에移하고其蹟의建物에는南山小學校를新設開始하기로決한事가重되는事業이고其他는前年の繼續事業이라더라
동아일보	1922-01-04	3		금년부터경영할 경성부의새공원에딩디	◇금년부터경영할경성부의새공원에딩디(상)남문의효창원(중앙우편)광희문안훈련원(중앙좌편)가회동취운당(하)사직동사직 
동아일보	1922-05-05	3		社稷公園의新設備	社稷公園의新設備 금년에신설할경성의새공원 사직공원에운동장을설시 경성부(京城府)에서는 금년도에 사직단(社稷壇)과 재동취운당(齋洞翠雲亭) 룡산효창원(龍山孝昌園)등세곳에 새로공원을설비한다함은 임의보도한바어니와 전기새공원중에는 사직단공원에 가장힘을 만히써서 설비할터인데 금년도에산 일만이 천원으로 위선 회유도로(廻遊道路)를 개척한후 배수설비(排水設備)와 당교의를 설치하고 그곳은 원래부터수목이 무성하야 터연의경치가훌륭한가답에 별로수목은 심을필요는없고 엇터한처소에서는 도리여울밀한수목의 간벌(間伐)을 할곳도잇슴으로 경치를 도읍에는경비가 별로 들지아니하나 특별히운동장을 설비할터인데 사직단은 그곳에그대로 보존하야 두는것이 조타하야 그업으로는운동장을 설치하게된가답에 대규모의 운동에는 조금협착할듯하나 보통야구(野球)와 경구(庭球)가튼것은 넉넉하도록설비할터이며 기타취운정과 효창원의두곳은 금년도에 위선회유도로와 당교위던등등의 간단한설비만하얏다가 래년에완성계할터이며가타훈련원(訓練院) 장충단(獎忠壇)공원에도 다소간설비 를터할터이며방금황금정(黃金町)륙덕목에서 장충단으로 통하는큰길의 치도공사를하는중인데 느저도 금년여름안으로는 완성할터이오 그길이완성하면 경성 단기회사에서는 즉시 장충단압까지 선로를깔고 던차를운던할터이라더라
동아일보	1922-10-21	3		社稷壇은 原刑保存	공원의설계는다소변경 금년에는길부터내인다 시내 사직동(社稷洞)에잇는 사직단(社稷壇)부근을 개방하야공원으로만든다함은 임의 보도한바어니와 경성부(京城府)에서는 금년도에경비까지 마련하야가지고 곳공사에착수코자 그설계도안(圖案)을 첨부하야 총독부(總督府)에 인가를 신청 중이엇든마 당초경성부의 설계로말하면사직단은중앙에 조금그형태만 남겨두게 하고 그사방으로는 운동장을만들고 그옆에는또넓은 경기장(競技場)을 설비하야 경주라든지 또는학교가튼단체에서 그것을이용하야 동회가튼것을 여는때에 편리하도록 설계를 하얏든것인데 이번에총독부의주장은 원래 사직단은 경성에 고대건물로 유명한력사를 가진 고적인즉 지금사람들의운동을위하야 운동장을 만드는것도 필요하거니와 유명한 고적의부근을 개척하는것은 조치못하다는 의견이잇서 경성부에서 당초설계하얏든것을 변경하게되야 사직단은 전부그대로 보관하야두고 운동장은사직압남편에 설치하고 경기장은 따로설치할장소가 부족하기때문에 운동장의 넓피을 크게하야 경기장과 운동장으로겸하야사용하도록 설비할터이라하며금년안에는 위선삼림을 정리하며 그안에길을 각처로새로 내이고 동편에 경구운동장(庭球運動場)을설시한후에 명춘부터는모든예정한 설계를 완성할터이라는데 연못과 화단(花壇)분수(噴水)등도 설치할터이라더라
매일신보	1923-02-06	3	7	경성 5公園의	부민의생활과 가장교섭이 김흔경성부공원은 목하장충단공원훈련원공원 사직단

			완성은 몇 해 후에나 될는지 몰라, 12년도 예산에 계상	공원 취운당공원 효창원공원의 다섯곳으로 이외에 완성한 것은 탑골공원 등이 있는데 어탑골공원은 따로히하고선기다섯곳의 소위 경성부에서 직접 관계있는 각공원은 아직완성치않은것이 만히서 과연 몇해후에 완성할는지 헤아리기 어려운 상태이라그런데 대정십일년도의계획을본즉 장충단훈련원의 두공원은 대략 리상과갓치진행하는모양인데 사직단 공원에서는 도리단이며 놀게된도로 개설과배수설비기타(테니스코트)운동장과 땅의 풀정리와 의자와 공동변소 던등 설비 등이 계획되고 또 슈운당 공원에서는의자설비와 도라단이며 노는도로기타 덩자풀던등설비등이 계획되고 계속하여 효창원 공원도 도라단이며 노는도로와 덩자의자 풀정리 등이 계획되었는데 대정십일년에는 거위이계획을실현치 안은모양이었다 사직단과 취운당 갓훈공원의 후보디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는것도 알수업다는 자도 있다는바 이런계획을 수행하려면 물론설계감독비기타 잡비등상당한 비용이 들어서예산의 관계상드디어 이갓치 천연해야 왔는데 공원은 시면과는 밀접의관계가 있을뿐외라 특히경성 갓치오락기관이업는 곳으로 는 그필요를 부르지스게 되어 명년도는 경성부에서도 될수있는대로는 이공사에 착수할 모양임으로 명년도가 되면전기오대공원도다쇼면목이새로워지겠다고 관측되더라
동아일보	1923-02-11	3	社稷壇公園擴大	부근의림야까지어더너허서 금년안으로홍통히시설계획 장래에 건설될 대경성(大京城)의설비로 도회에업지못할 공원(公園)의개량과 신설에대하여경성부 당국에서는 늘계획하든바먼저 경성의북부에 완전한공원을 만들작정으로 현재이만여평의 사직단(社稷壇)일원을기초로하고 그부근의산들을 모다합하여 칠만이천복백여평의 대공원을 건설하려고 필운동 일변디(弼雲洞)의 림야(林野)와 루상동일변디(樓上洞) 림야의일부와 사직동일변디(社稷洞) 림야의일부를합하여 모다 오만이천여평의 대부원(貸付願)을 지난사일부로 총독부당국에 제출하얏든바 재작일에 금년부터대정이십칠년까지 열다섯해 동안 을 무료로 대부한다는 허가가나왔으며 특히"일년안으로사업에착수하지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조건이잇슴으로 경성부에서는 아모리하더라도 금년사월 경부터는 시설에 착수할듯한데이전그처음시설에 관하여 듯건대 돌아다니며노는회유도로(廻遊道路)를 만들것과 운동장(運動場)과"테니스코트"를만들것과 교의와 공동변소(共同便所)던등잔디밭등을 시설할계획이러는데 이에한대 총경비는 일만이 천여원이라더라
매일신보	1923-02-13	3 6	市중에 街燈도 증설, 경성부의 본년도 새계획, 가등을 달면 매우 밝을 터	경성부의 시설사업은 해가갈수록 일이만어 간다 그러나 체계의 상황을 도라다 볼진대 요즈음증세(增稅)한다는것도안될말이오 신세목(新稅目)을배뎡다는것도 생각할수 업는일이다 그래서 명년도의 재정은 될수 있는대로는 긴축방침을 쓰기로 되었지만은 원데이엇다고 팔장을끼고잇을수도업는 일이라 각계에서는 각각 희망도잇고 포부도 잇서서 얼마던지긴축을 하드래도 불가불이것만...하야달 나는 사업이 잇다 토목과에 대한명년도의 중요한 사업을 들건대 경상비(經常費)쪽으로는 도로와또는간척수선이 위주되야모래끼는것과사가의등다는것과 좌우에심을나무유지수선기타정계천옥천의계속공사이며다리수선하는것은 송교(松橋)경교(京橋)한강통소췌천교(小早川橋)등이라그래서림시무에 속한것은황금당 룻당목으로부터 장충단공원으로 통하는직통도로의개착과약췌당으로부터영정당 으로통하는도로의국부(局部)개수연장으로또하러면 영정당에석화원당으로연장 할터인일이라고그리고기타토디의기부행위에의지하야공사뿐만 경성부에서 배푸는 것은 옥당이당목과췌당목이당목의 일부이다 청엽당(靑葉町)으로부터효창원(孝昌園)에통한도로는실디로답사하여본후에 로선(路線)을변경할터이러는데 그의 도로간척수리할것은 일등도로에 열넷_이등도로에 다섯군대가잇고두외도로에 약오십개췌 췌 되는모양으로다리곳칠것은배다리(舟橋)의한곳인데 이것은수선하 여안될것은 업지마는 때때로경비가들겟슴으로 영구덕으로 털근공크리트로 개 축하자는 동로의로이외이개소는 수선을할것이며 등외도로의 교량 오개소의 개 축을 실시할예당이라하며 공원은 사직단(社稷壇)외두곳을 십일년도부터십이년 도까지로넘기어서 공사를할 예당이머시기등등(街燈)도증설할예당이머또하슈(下水)개수의중요한것으로는 옥천(旭川)과 청계천(淸溪川)에 통한간천 들인데 경성부민은 간천에 쓰레기를버리는악습이 잇슴으로 이를제지키워하야 천연던 지를 돌지며미리경고를한후에 만일또그런것을 하는자에게는 상당한 처벌을하 겠다고하더라
매일신보	1923-03-02	2 6	경성 장래 시설, 吉松 전 부운 談	今回京城府를去함에際하야將來當府의施設에關하야一言코져하노라 京城府에關한事項 一, 都市計劃事業의完成件 二, 府廳舍新築件 三, 除穢事業에關한件 四, 京城府輪廓調査에關한件 五, 京城俱樂部維持에關한件

				<p>六,水道電話에關한件  七,京城府營電力供給에關한件  八,龍山兵器廠及陸軍倉庫의土地를府民에게讓渡할件  九,市內公園에關한件  (甲)獎忠壇公園(乙)訓練院公園(丙)孝昌園公園(丁)社稷壇公園  十,土木事業에關한件  (甲)淸溪川下水改修及旭川下水改修高(乙)龍山高地排水工事(丙)新龍山土木工事  十一,道路計劃에關한件  (甲)獎忠壇道路(乙)靑葉町으로브터孝昌園에至하는道路  十二,城壁毀撤에關한件  十三,龍山驛前市街改良의件  十四,中央市場에關한件  十五,公設市場充實의件  十六,家畜市場充實의件  十七,衛生試驗所擴充의件  十八,屠獸場移轉의件  十九,火葬場及墓地移轉의件  二十,社會事業에關한件  (甲)副業獎勵 (乙)簡易食堂 (丙)授産及無料宿泊所 (丁)無料診療所의設置(戊)社會館의 設置,報德囑의設置  學校組織에關한事項  一,商業學校에關한件  二,學校教員住宅에關한件  三,庚子紀念幼稚園에關한件  四,學校衛生에關한件  學校費에關한事項  本年內에一校들特設코져함</p>
동아일보	1923-03-03	2	府施設의新事業 豫算案에計上된것	<p>府施設의新事業  豫算案에計上된것  大正十二年度新豫算案에既히計上한府施設事項은左와如하더라  一,京城府輪廓調查의件  二,獎忠壇訓練院孝昌園社稷壇 四公園에關한件  三,淸溪川下水改修及旭川下水改修 (후략)</p>
매일신보	1923-03-15	3	5	<p>4處 공원 신  예산,  3만2천3백원의  예산으로  설비를 하여 갈  작성</p> <p>경성부대정십이년도의 공원비예산안(公園費)은세번이나심의를것쳐 요사히아쵸사등(査定)이되였는데경상비(經常費)구천오백원임시비(臨時費)이만삼천팔백원함계삼만이천삼백원으로 경상비는위주하야 종래의 시설유지유선에 쓰고 임시비로 시설할것은 대략아래와갓치결정하엿더라  ◇訓練院公園 공원은 남북쌍방에 합계이백간에 양회를다저만드레딩이엿스나 공비(工費)간간에 사백사십원 함계팔만팔천원이 들기때문에 십이년도는 드디여 고만두고 다만 『고트』 의명만 고르게 할 역사와 동대문소학교측 긴천개량공사만 한다하며  ◇獎忠壇公園 쇼아사용의운동구(運動具)설비와 밋슈도공용전일호의 설비가당만하엿고 또는식물온실을 설비할예당은경비의관계상무기연기가되였다  ◇社稷壇公園 과밋효창원공원(孝昌園公園)두곳은 놀너단일길의 개설과 공용의자의설치와 던등의장치등의 적은설비만한다더라</p>
동아일보	1923-03-15	3	新年度의公園施設	<p>新年度의公園施設  삼만이천여원예산으로  대강의공사만할터라고  경성부 십이년도의공원비(公園費)예산은 여러번심의한뒤에겨우사등 되얏다는데 이래그내용을간단히들으면  ▲經常費九千五百圓▲臨時費二 萬三千八百圓合計三萬二千三百圓이라는데 경상비에는 주로종래에시설한 설비의 유지수선에 충당하고 임시비로써 시설할것은 대략 아래와갓다더라 (중략)  ▲社稷壇公園及孝昌園公園은 회유도로와 장교의의 설치등 그 맞게 던등의 장치등을 시설할 터이라더라</p>
매일신보	1923-04-16	3	3	<p>경성에 미술학교,  위치는  社稷壇이 적당,  멀지 않은  장래에 그것이  실현될 줄로</p> <p>도선미술학교(朝鮮美術學校)음악학교(音樂學校)의건설에관하여상경중인화던(和田)재무국장은말하되 『도선미술단람회의 개최할기일도 차차갓가워 오는바 이 단람회가 미술계에 엿더한 효과를갓칠것은 별문데로 할지라도 확실히 건조무미한 도선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윤택하고 따뜻한 맛을 줄것은 스스로 밋어의 심치 아니하는바이라 그러함으로 나는단람회 개최에 대하여 여러해동안 그럴요함을 주장하얏던 바슈야(水野)총감에 이르러 겨우 실현되게 되야 작년에는 예산도업시실행을하얏엇스나 금년부터는주무국(主務局)에관할을옵기여 예산에</p>

				<p>도 계상하얏슴으로 겨우 기초가 확실하게되었도다 나는 이에대하여 다시한층 더나아가서 경성에미술학교와 음악학교의 설립을희망하는바이니 이것도 나의 오래동안생각하얏던바이요 요사히는주무국에서도 그의론이잇는바 재정의형편으로 지금즉시실현될슈는업스나 불원간실현되기를바라는바이라 나는 도선에여러전문학교와 대학도물론필요하나 그것이 필요한동시에 미술음악의전문학교난 그 이상필요함을 통절히생각하노라 그리하여 도선의 고래의음악과 미술보존하는 방법으로하는동시에 그의성률(性能)을발휘하는기회를가지지못한 도선민족을위하여 그음악미술의재물에 발휘할 양육과 기회를 주는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비상히 필요하다 생각하며 경비와 건설할상소도 스시로 생각한바잇스나 우선 미술학교를 먼저 건설하여 서양화(西洋畵)일본화(日本畵)조각(彫刻)응용미술(應用美術)등의대가를조빙하여야교수하면조출출로생각하며장소는 사직단(社稷壇)근처이면대단편리하겠다하노라』 하더라</p>
매일신보	1923-05-03	3	1	<p>有吉總監의 胸裡에 作定된 景福宮 慶會樓의 운명, 역사적 배경과 미술적 가치를 갖춰가지고 또 경치가 비상한 이곳은 총독부 신축 준공후에 어찌 되려나, 漢陽 三十萬 市民에게 遊樂地로 公開, 하런추풍의 명승지, 공원으로 개방할 것은 아직 총독에게 승낙은 얻지 못하였다, 有吉政務總監 談, 京都 以上이 될 京城市, 장래 도시계획</p> <p>백악산을등에지고 리도오백년의왕궁으로 고려의도명을 이곳에 옮기여 봄바람 가을비수백년동안 반도삼천리정령을 통할하여 흥망성쇠의 력사덕기념으로 중간에는일차병화에타트스나지금부터오십여년전에 근대의 호흥으로 일흥이동방을 진감하든 흥선대원왕의손에서 다시증창되야 한성의데일되는 건축물로 웅장 미려함이 당년대왕의존업과 부귀를 이악이하는 경복궁경회루도 시대의 변천됨을 따라 그 운명에큰변화가생기게되얏다 래후년에 이르면 북악산아래에 운쇼를 뚜를듯한도선총독부의 청사가 립성되며 다라경회루의 사활이 결정될 것이 다 드르라 정무총감의 말을.....</p> <p>하런추풍의 명승지, 공원으로 개방할 것은 아직 총독에게 승낙은 얻지 못하였다, 有吉政務總監 談  현금경복궁안에 신축하는 도선총독부청사는대정십사년에 준공이될예정인데 경복궁은 자래로 력사덕배경을 만히가진곳이오 그속에 잇는건물들은 모다 미술덕으로 가치잇는것이오 그중에도 경회루(慶會樓)와 갖흔것은 건축도광대하거니와 여름의 연꽃과 가을의 단풍으로 텃연한 절경을 갖초야 경성에서 유수한 경지가 잇는곳인바 장래총독부가 그곳으로 옮겨가게된후에 경회루는 여하한방법으로 그운명이 결정될것인가이에대하여는 누구이나알고져하는것이오더욱이 시민일반이 오락과 쇼창할곳이적은것을 유감이라하야 공원설비를 속히할것을 절규하는경성시민에 취하여야 큰문제의하나이나 총독부당국의 의향을 아지못하야곳곳히 여기더니 이번에 동경으로부터 오래간만에 임디에 도라온유길정무총감(有吉政務總監)은그자의 질문에대답하되 『당초의 총독부편에서 계획하기는 신텐사가 락성이 되면 경회루 부근에는 총독과정무총감의 관사를지으랏하얏습니다 그러나이것은 력사와 미술의 두방면으로 가치가 만흐며 또일반이 오락과 완상할 공원의 설비가 부족한것을 한탄하는 경성시민에게 경회루와갖흔곳을 개방치아니하고 관리의더퇴을 짓는다하는것은 불가한출노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즉총독의 승락을 맞지아니한다 한사람의 의견에 지나지 못하는것이니와 관리의관사는 지금신문문(神武門)근방에라도무방할것인즉 경회루는 어대까지던지 인민에게 공개하도록 설비하며 보관하는것이췌호할것이외다 아즉공식으로 발표될기회에는 이르지아니하얏스나 유길의의견으로는 장래에 경회루를 공원으로 만들것을 주장하며 실행하려합니다』 하더라  京都 以上이 될 京城市 장래 도시계획  정무총감은 다시말을 계속하야 같오되 『경회루를 공원으로만드려 시민에게 공개할의견은 우에 말한것과 갖거니와 다만경회루에긋칠것이 아니라 신텐사가준공되야 지금왜성대에잇는총독부를옮겨가면 현지의 총독브터와밧총독관터부근 일대를 또한공원으로 개방하야 남산공원을 확대하야가지고 장춘단 훈련원사직단 등을 모다 공원으로 일신하게 만들면 장래 경성시민에게는 유락할장소로부족할것이업슬것이오한편으로 지금 경성시가란것은 너무 규모가 협소하야 크게 발던될 여디가 업슨즉 장래에는 룡산과 청량리(淸涼里)방면까지 시가의 구역을 연장하야 남산은 시가의 중앙이 되도록 도시계획을하라는 바침이외다 그리고보면 달은 날경성은 지금경도(京都)보다도도회로우수한곳이될것이외다』 하야시민의편익을 문져하며 경성도시발던에 대한 큰 포부의 한곳을보히더라 우리시민들도총감의 이말이 속히 실현이 될것을밧고기대하라한다</p>
매일신보	1923-05-09	3	9	<p>煙草職工 慰安會</p> <p>경성전매지국(京城專賣支局)에서는직공위안회를작팔일 오전아홉시부터사직단(社稷壇)공원에서 개최하얏는대인의동(仁義洞)태평통(太平通)의류등(義主?通)각 공장은 총계 이천륙백사십여명이모히여그날하로를유쾌히보냈다더라</p>
동아일보	1923-05-09	3		<p>三千의煙草職工 사직공원에운동회</p> <p>三千의煙草職工사직공원에운동회전매국경성지국(專賣局京城支局)과 밧시내각출장소직공이천륙백사십오인의위안운동회는작팔일오전구시부터동삼시까지시내사직동사직단공원(社稷壇公園)에서 성대히개최되얏다더라</p>
동아일보	1923-07-18	3		<p>社稷公園에 大納涼臺</p> <p>社稷公園에 大納涼臺 일간공사를시작  금년부터 약간의공원다운 시설을하기로한사직단공원(社稷壇公園)에는요사이늘</p>

				일간공사를시작	너오는사람이날마다 늘어가는 모양인대이에대하여 경성부에서는 일반의편리를 돕기위하여 다른시설은엇지하얏든지 위선 휴게할만한장소라도 만들작정으로 얼마전부터 계획하여 데일사람이만히모히는곳에대납량대(大納涼臺)를건축하라고 임의설계도맞치어곳공사에착수할터이라더라
매일신보	1924-05-08	3	4	각 공원을 수리, 2만원의 예산으로 각 공원에 정자와 화단을 설치, 효창원과 사직단 도로를 개척	곡경성부윤(谷京城府尹)은륙일오후에자동차를타고효창원(孝昌園)과 사직단공원(社稷壇公園)의시설에대하여 여러가지로실디도사를행하얏는데금년도에경성부의공원시설에 대한경상부(經常部)에속한것은각공원을수선할일, 장충단공원(獎忠壇公園)의온돌을수리(溫突修理)할일, 남산공원음악당(南山公園音樂堂)을개조할일, 각공원내에울타리를하고다리를노출일, 의자를증설할일, 그외에정자(亭子)를시설할일, 화단(花壇)을장치할일, 제초(除草)등이중요한것인대이에대하여는작년도에비교하면약이천원을증가하얏으며그리고립시부(臨時部)에는장충단공원의 슈도전(水道栓)을증설할일, 잔디밭에그네를멜일, 기계체조구(機械體操具)를 설치할일, 원형(圓形)운동장의 흙을정리할일, 사직공원(社稷公園)의 계획공사중 그일부분으로 위선공원주위의도로를폭(幅)을네간으로하고기리를칠백이십간으로연장하야 개척할일, 남산공원의경성신사(京成神社)로부터 텃만궁(天滿宮)으로통하는길가에있는공원직이(園丁)사퇴을적당한다른곳으로이전할일, 효창원공원(孝昌園公園)의계획공사중에 위선일부분으로 공원주위의길넓히(幅)를 네간으로하고 주위를칠백사십간으로 연장하야개척할일등이라는대립시부는작년도에비교하면 약육천원은감한것인데본년도의공원비(公園費)는경상비가일만이천구백십구원이며립시부가일만칠천사백사십원으로합계삼만삼백오십구원이라더라
동아일보	1924-10-02	3		公園施設工事	公園施設工事 目下腐心中이라고 京城府土木課에서는本年度諸工事の完成に努力中第一期土木事業인下水工事は十月中旬까지에完了할터이나社稷壇公園과孝昌園의改造工事が남어잇서서이것은本年度經費中으로社稷壇은三千圓孝昌園은一萬圓으로結水期前까지맞치지못하면明年度工事に障碍가되겠다하며訓練院그라운드基地買收가如意치못하야本年度工사로되기는絶望이라고
동아일보	1924-11-16	3		即時着手할 社稷公園	예산이천오백원으로 년말부터공사에착수 총독부가 북쪽으로 옮겨옴에따라북부에도 공원을맨드느니 길을긋치느니 전에업든 새시설을한다는통에사직단(社稷壇)에공원을맨들기로 되엿다함은 그당시에 기묘한바어니와 경성부에서는 경비문대에 핑계하야공사에착수를 아니하여 오든바 이번에도드디어 실행하기로되야 이천오백원의 예산으로 위선공원구역안에 길과뻘취등을 맨들기로되야 내달부터는 공사에착수하기로될터이라는대경성부도목과에서는 즉시설계에 착수하리라더라
매일신보	1924-12-24	2	9	鄭行烈氏 永眠	황학당사두(黃鶴亭射頭) 덩형렬(鄭行烈)씨는 숙환으로 인하여 지는 이십일일에 스직동 자택에서 별세하얏는데 명이십오일 오전 열시에 출판하야 리퇴원(梨泰院) 공동묘지에 안장한다더라
신한민보	1925-01-08	2	5	협성학교에 분규 계속	협성 학교에 휴쟁 사건은 아직 분류를 거듭하고 잇난 등인데 학생측에서는 一. 선생이 사임을 하겠다고 한후에 재입하난 리유 二. 오난 몇출 안으로 등교치 안난 학생에게난 퇴학 처분을 하겠다난 리유 三. 퇴학 처분과 무기 덩학을 당한 학생을 복교식할 일 등 세가지 조건을 제출하고 회답을 듯고져 약 一백 五十명의 학생이 사직단에 모히여 결의를 하고 학교로 가서 질문한 결과 학교측에서난 아직 각방면으로 의론을 하난등임으로 이젯가지의 취한 방침을 변경할수 업다 함으로 학생 측에서난 퇴학과 무기 덩학을 당한 학생들을 복교식허줄 때스가지 등교치 안겠다고 강경히 항의를 하고 도라 갔다난데 희생된 학생은 테조 교사 개인의 부탁으로 그리된 것이라고 그 학교 학생들은 말한다더라
매일신보	1925-03-20	1	1	장엄한 孫氏移靈式, 靈柩도 親近故舊가 擔運하야 大總統대우로 집행	故係文氏의 遺骸는 豫定과 如히什九日午前十一時 『룻크회라』病院에서中央公園丙社稷壇으로移하고巡__의沿道__戒는勿論一切를모다民黨中故人の親近者가執行케되야特히第一組汪兆銘,林震, 石青障, 第二組于右任, 陳裕時, 李大釗等第三組李烈鈞, 姚雨平等各八名式交代하야靈柩를 擔하기로하얏고 陸軍部는前大總統에對한禮로同十一時부터五分만큼城壁上에서三十三發弔砲를放할지며又市內에는一般이弔旗를掲하고官民이一致하야頗히盛大한移靈式을舉行하기로되얏더라(本社北京特電)
매일신보	1926-02-01	2	5	森林情緒가 넘치는 大公園建設計劃 十五年度에 一部實現 효창원의 넓은 터를 리용하야	경성부의공원(公園)계획은기땡한방침을따라착착진행중인데대원개의장충단과고다공원의두곳외에사직단(社稷壇)과 효창원(孝昌園)의두곳을합하야완성케할예정인바효창원은목하총독부에대하야립야대하(林野貸下)의청원을제출하얏는데이효창원은전년에대하를바든토디약삼만평과이번에대하신청중인칠만평을합하야약십만평이나되는넓은터에대공원을설시할계획이라는바경성부근에이와갓자수립이만은곳은드문터이라이곳에공원이완성하는날에는삼림정서(森林情緒)가넘쳐흐르는경성대표적공원이될것이요운동장기타설비약육만여원의예산을계상하고위선십오년

			삼립이 창울한 대공원 건설	도에그공원의일부를실현케할작정이러더라
동아일보	1926-02-13	5	社稷公園에植櫻庭球場도二個所設置 사직단공원의금년도사업	社稷公園에植櫻庭球場도二個所設置 사직단공원의금년도사업 칠만륙천오십원의 예산으로 수개년계획사업인사직단(社稷壇)공원의 십오년도 사업은 작년도예산이천팔백사십원보다일천팔백사십원이 만흔 사천륙백칠십원의 예산으로 개울곳치는 것파나무심으는것과 도로의 일부분을개수하는것과 다리몇군대 짓는것과 테니스코트 만드는것과던등가설 공동변소건축등이 주요한 자로 개울은 지금현상대로두되 량안의흙만 더흘러내리지아니하도록 호안공사를하여 자연의운치를 도돌터이며 식수는"사꾸라"백주를심이봄철의미관을도들터이고"테니스코트"는평지를리용하여 두군대를 만들어무료로 일반에게공개를 할터이러는데 십륙년도에는 약백이십평의못을파고 명자도 두군대를짓고 단풍도심어사철의 경계를도두리러더라
시대일보	1926-05-04	2 9	취체 필요?, 폐지될 듯하다	「과고다」 공원에 대한 총독부 당국의 의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업스나 일반의 추측으로는 그 공원이 북부의 중앙에 있어서 북부 주민에게 살아지지 못할 김흔 인상을 준일이 한두번이 아닌것만큼 압으로도 취체상 필요로 장차 폐지코자 함이나 아닌기고 「本府固執不通」 까답을 모릅니다 이에 대하여 경성부 고교세무과장(京城府高橋稅務課長)은 말하되 「경성시내의 남산(南山) 장충단(獎忠壇) 사직단(社稷壇) 등 여러 공원은 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잇스나 『과고다』 공원은만 총독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잇슴으로 부에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업스니다마는 부에 관리를 맞기기만 하면 서쪽으로 인사동(仁寺洞), 동쪽으로 락원동(樂園洞)을 경계로 그 주위를 일층확장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시설을 좀 공원답게 하야불라고 합니다. 그 전도 여러번 부에서 관리코자 하얏스나 총독부에서도 보지못지안습니다 그까답은 나역시 몰르 겠습니다」
동아일보	1926-05-15	2	丹粧할府內公園	丹粧할府內公園 경성부(京城府)에서는매년공원비(公園費)로일만원식을지출 하여오든바 금년에는수선비로 삼천원을 증가하야장충단(獎忠壇)공원은경기장(競技場)화원도로(花園道路)온상온실(溫床溫室)못(池)등을 수선하야 면목을 일신케 하리라하며 남산(南山)공원도 길과다리를고치고 사직단(社稷壇)공원과 효창원(孝昌園)도 다소간 수선을하리라더라
동아일보	1926-08-05	3	중앙소년회 소식일속	중앙소년회 소식일속 시내사직동(社稷洞)중앙소년회(中央少年會)에서는 지방소년소녀단체와 연락하기위하야각디로 특과원을다음과가치파송함답니다 仁川方面   李元在金敎高兩 君八月五日出發 江原方面   朴來源君七月三十日歸着 元山方面   李大雨君七月二十三日出發 역시 그회에서는 림간강습회를 사직공원안황학당(黃鶴亭)에서 팔월일일요일엔시에열었는바 구십여명의출석이잇섯스며 교원은다음과갓담니다 ▲監督金壽進▲敎員敎員李鍾烈崔海德金敎高李商甲李元雙李元在
동아일보	1926-08-18	2	今日納涼音樂 十八日 社稷壇公園	今日納涼音樂十八日 社稷壇公園
동아일보	1926-08-30	2	今日納涼音樂	社稷公園 / 今日納涼音樂
동아일보	1927-06-24	4	驪州弓術盛況	驪州弓術盛況 驪州朝鮮日報支局主催와當地射契後援으로全朝鮮弓術大會를去二十日午後一時부터市外黃鶴亭에서開催한바各地에서出征한射手が五十二名이나되어定刻前부터雲集한觀衆은射亭附近에서사람의城을이루운大盛況을모하였스며同八時半頃에決勝이終了되여一等은定三巡에十二中으로利川俞瑾植氏에게도라가매賞品授與式을舉行하고閉會한바 (후략)
매일신보	1927-07-21	2 7	北西部繁榮會 納涼映畫會 이십일일 이일 량일 밤에 사직공원과 경무대에서 每夜八時, 觀覽無料	청운(淸雲) 신교(新橋) 궁정(宮井) 효자(孝子) 옥인(玉仁) 창성(昌成) 루상(樓上) 루하(樓下) 통동(通洞) 테부(體府) 필운(弼雲) 사직(社稷) 내자(內資) 슈창(需昌) 적선(積善) 도념(都染) 당주(唐珠)의 십팔동의 총대와 유지가 모도혀 이번에 경성부 북서부번영회(北西部繁榮會)를 조직하야 동대의 행복을 위하야일 단결하게되얏다는대우선그첫사업으로옥외무료남향활동사진회를 경성부형원으로 금이십일일과 명이십이일이틀동안을 개최하게되얏다는대 시간은밤여덟시부터요쳐소는이십일일은 사직공원안이요 이십이일은 경무대이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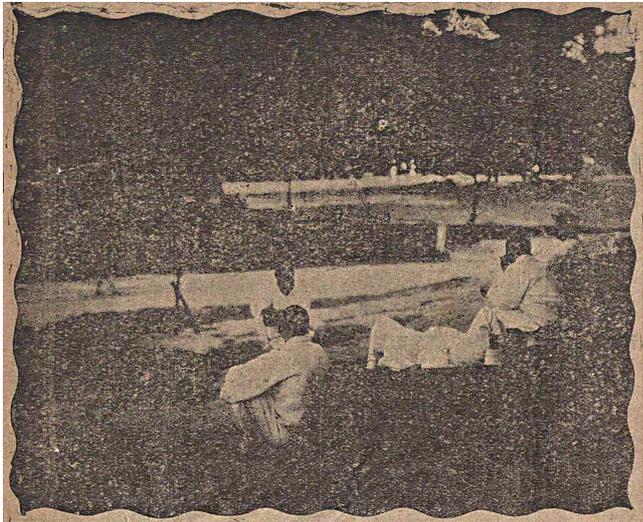
동아일보	1927-11-09	2	廢止說傳하는 塔洞公園!	廢止說傳하는塔洞公園!공원으로가진박대를밧다가필경은폐지해버리기로내뒀◇ 三淸洞에新公園복부조선인 시가에는 복편에사직공원(社稷公園)중앙에탑골공원 (塔洞公園)이잇스나사직공원은넘어나 한구석에잇고…
동아일보	1928-07-04	2	場所는黃鶴亭으로 各處射亭戰意猛烈	場所는黃鶴亭으로 各處射亭戰意猛烈 ◇-----장려할조선고유의무술 臨迫해오는弓術大會 綱領과審判規定 사두회의에서결정하여고래조선의유일한무술(武術)인"활쏘기"를다시 부활 시키 며추장시키는 이외에중년 이상의장년들에게아모 운동경기가 업는조건에서 이 것으로 심신의단련을주기위하여 중앙 기독교청년회주최 본사후원으로 데일회 전조선궁술대회(第一回全朝鮮弓術大會)를오는십삼 사랑일간경성에서 열게된바 장소는처음에경북궁위경무대(景武臺)로내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 공원뒤 황학당(黃鶴亭)으로변경하였사며 그동안 주최측에서는 각지방에산재한 사당(射亭)에 본사각지방분국을 통하여참가권유문을 발송하는 외에만반주니를 거의마치게 되었는데정심(正心)을하여"관혁"에활살을쏘아 마치는 과연무사덕 이오또 남성다운 쾌기를불날도점점갓가워오며 이를 말하경성은물론이오 각지 방에서 출전을목전에두고 맹렬한 연습을하는중이라하니 근래회유의 이번대회 가얼마나장관을닐올가는의심업시알수잇게한다 (후략)
동아일보	1928-07-12	5	明日로臨迫한… ……全朝鮮弓 術大會	明日로臨迫한----- 全朝鮮弓術大會 참가신청은십일일까지에끝을막어 壯觀이豫期되는黃鶴亭 여러해만에 전조선덕으로 열리는궁술대회(弓術大會)는참가신청도 십일일밤까 지에 마치고드디어명십삼일부터이틀동안시내사직동(社稷洞) 사직공원뒤황학당 (黃鶴亭)에서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주최 본사후원으로 열리게되었다(후략)
동아일보	1928-07-13	5	南北廿餘射亭에서 百八十餘勇士出戰	南北廿餘射亭에서 百八十餘勇士出戰 남북이십여사당에서백팔십용사출전조선고유무술로장관일울황학당일대 今日에開催될弓術大會 만도의인스기와만흔홍취를한곳에끄고잇는 중앙기독교청년회(中央基督教青年 會)주최본사후원의 데일회 전조선궁술대회(第一回全朝鮮弓術大會)는드디어 금 십삼일부터 데일일의막을되었다 북으로함흥(咸興)남으로 전주(全州)등각사당을 비롯하여 신청기한인 십일일밤에전주 열지방,이십륙조,출전할인원수가 일백팔 십여명에 달하는바 지방의참가원서는 우편관계로 십일일까지 기다려바들터임 으로 훨씬늘을것이라고본다 (후략)
동아일보	1928-07-14	5	綠樹繁陰黃鶴亭에 古代武術의偉觀	綠樹繁陰黃鶴亭에 古代武術의偉觀 이십칠조사당중에레천이참가못해 開幕된全朝鮮弓術大會 십삼일은 일은아침부터 시내사직공원 뒤황학당(黃鶴亭)술술속에는난데업는 인 산인해를닐우었스니 이는조선 중앙기독교청년회 주최본사후원의 데일회전조선 궁술대회(第一回全朝鮮弓術大會)의 첫날이열린때문이다 (후략)
신한민보	1928-08-09	2 2	녹음 방초 황학정에 고대 무술의 위대한 경쟁	기월 십삼일부터 경성 시내 사직 공원의 황학당 속 술술속에는 난데 업는 인산 인해를 일우었스니 이는 조선 중앙 기독교 청년회 주최와 동아일보사의 후원 에 데일회 전조선 궁술 대회의 첫날이 열린 썩은이다 당일 오전 아홉시부터 전조선 각디로부터 운집한 사당이 십륙조의 일백 팔십여명의 제각기 사당의 최후 영예를 빚내이고져 필승을 기약하고 한살 두살씩 관혁을 향하여 쏘는 남 성덕 장쾌한 무대는 연출되었다 정각이 되자 고양군의 무학당 갑조로부터 초 순이 비롯되니 백이간거리를 격한 관혁에 화살이 적중될때마다 거기의 룩색 깃발이 높히 하늘에 휘날리매 확장 「아무개 번 또 번!」 이어 가지 순서를 따라 휘장을 전하고 이어서 「령산회상」 곡의 풍류를 잡히여녀니 인왕신 기습 에 가득찬 사람의 물결을 스쳐서 말니 사라지니 이에 기운을 도꾸어 더욱 첫 살 돌재살 세재살 이와 갖치 살 회수를 거듭할수록 덕중의 포수가 자져 간다 그리하여 고대 조선의 유일한 쾌활의 기상이 술밭에 넘쳐 흐르난 의의 깊은 대회의 막은 서서히 진행되었다 하였더라
매일신보	1928-09-05	2 7	故趙子爵悼追會 각 단테가 런합하여 주최 十日公會堂에서	今月十日은 故子爵 趙重應氏의 十週年祭日에 該當함으로 左記各團體의 發起로 써 同日 午後 四時半부터 京城公會堂에서 追悼會를 開催한다더라 大正規陸會 國民協會 甲子俱樂部 親信社 南廟維持社 京城老人樓 京城幼稚園 中央繁榮會 黃鶴亭
신한민보	1928-09-06	2 3	역사가 깊은 공원이라고	우리의 낯익고 정이 깊은 자연의 공원은 유락장이든 취운당이 일개인의게 팔 너가게된 바 이취운당은 엇더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더불어 보면 아

			하여	래와 같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에 북부 주민들이 자연이 만들어 노흔 공원갖 호나 별별 력사가 그 동산에 숨겨 있다 지금에 취운당은 원래 삼청 동편에 백록동 이였고 창덕궁 편이 취운당으로 갈녀 잇섯는데 넷 한국 지사 구당 고 유길준씨가 일본에 건너가다가 그길로 미국에 망명하여 잇다가 귀국하자 당시 한국 정부가 위협하게 보아 가지고 지금 광화문 우편국 자리인 포청에 가두어 둔 것을 당시 장위 대장 한규설씨가 황상과 알외여 지금 취운당 일부인 백록동 당자에 거주케함을 덩하고 쇼대장을 식혀 감금하였는데 이러한 등에서 조선에 처음으로 「서유견문」이란 책을 유길준 씨가 지금 당한 이동산 가운데에서 저술하였다 그리고 갑신 사변때에도 김옥균씨의 우정국 ?회와 성질이 갖 혼 열혈 심상훈씨가 이 취운당에 시절하러다가 여의치 못하여 못열게 되었스나 잊지하였든 이와갓치 당시 우국 지사들의 회의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종로에서 창덕궁을 건너 경무대 건너편 태황궁을 행행하실때나 또 자리 거동을 하실 때이면 이곳을 지나섯다 하였다 이러한 취운당을 경성에서는 북부 일대의 사직 공원과 동서로 대치되는 공원을 만들고저 계획스까지 여러번 세워가지고 밭기인을 뽀브니 하여 한동안 말이 만터니 국유로 불혀 귀족회에 넘기어 이래 귀족회의 소유물로 잇던바 동회가 재정이 곤란함인지 이러한 과거의 력사와 현재의 엄연한 공원인 이곳을 십만원에 팔아 먹는다더라	
동아일보	1928-11-29	2	現存公園에도 新施設은全無	現存公園에도 新施設은全無 새공원계획만평장히떠들면서 잇는공원의새시설도등한이해 【慾心만만흔京城府廳】 경성부에서는 그동안"과고다"공원을잇고저 총독부에 교섭을거듭하다가 아즉도 성공을하지못하고잇스며 한편으로다시 삼청동(三淸洞)후쪽에 일대삼림공원을 건설코저 방금계획중임으로 이것이실현되는날에는 공원만은 인구와비교하여야보아 동양에빠지지아니할만한 면적을가지리라는데 명년도의 공원에대한 경성부의 예산내용을들으면 한심하게도 잇서온공원인 사직단(社稷壇)장충단(獎忠壇)등에도 한가지의 새로운시설을하지도아니하리라하며 겨우수삼백원을들이어 사직단공원안의남어지토병(土塹)만친다더라	
매일신보	1929-01-01	2	8	京雷自動車에 少年이 轢死 사직공원 압해서 치어 運轉手는 引致取調	二十九日午後 일곱時頃에 市内社稷公園압해서 社稷洞二四〇自動車運轉手韓昌元이가 京城電氣會社 自動車京第二八호를 몰고가다가 길가에서 놓고잇던 內洞 七九林明玉의 長男學奉을 치어 人事不省에 이른것을곧뛰미어다가 附近病院에서 應急治療를한後에生命에는別로 關係가없다하여집으로도라가서 治療中이였는데그잇흔날인三十日午後아홉時頃에 히死亡하여머릿슴으로所管鍾路署에서 이를檢屍한後屍體는田申丸病院으로보내여解剖하기로하였는데前記運轉手는 鍾路署에서嚴重取調中이라더라
동아일보	1929-03-13	2	宗親宗約所反對로 宗廟貫通線또問題	宗親宗約所反對로 宗廟貫通線또問題 ◇경성부에승락까지한것◇ 注目되는李王職態度복부간선 도로공사는사직단(社稷壇)압해서 총독부압홀 지나창덕궁돈화문(敦化門)압까지는개통되었스며 대학의원 업호로동송동(東崇洞)고등공업학교압까지도 개통되었스나 돈화문압호로부터 대학의원까지는 종묘후원관동문대로 지금까지 해결을짓지못하고 끄러만 오든것을 작년에야 겨우 리왕직과 부청사이에 해결이 되어 경성부의 요구대로 측량까지 완료하고 금춘부터 착공하게되어(후략)	
중의일보	1929-04-21	3	2	관앵음악제, 20일 밤부터	경성부에서는 레년에 의하여 좌괴장소와 시일에 경성 악대를 청하여 관앵음악회(觀櫻音樂會)를 개최하리라더라 廿一日 午後二時 獎忠壇公園 廿二日 午後七時半 ??洞公? 廿三日 午後七時半 社稷壇公園 廿五日 午後七時半 ?洞公? 廿六日 午後七時半 孝昌公園 廿七日 午後三時 獎忠壇公園
동아일보	1929-06-28	1	宗廟地帶를開放 함이如何	宗廟地帶를開放함이如何   安息所업시해매는北部民을보고   一 京城北部에 北部民을爲하야公園을設置하라는것은 一般民衆의 熱求의叫呼이다 그러나이러한叫呼가 들린지이미오래이로되 這間에何等의施設은보지못하고돌이어在來로잇든中央唯一의塔洞公園까지도 頽落의運命은 免치못하야 廢墟로變해가는中이다 (중략) 社稷地帶가社稷公園이되고 獎忠壇이獎忠壇公園이된今日에 바늘핍기도어려운人口稠密한北部에 廣闊한地域을占한宗廟地帶는 京城府民의保健과 都市美를爲하야 한걸음더나아가서 民衆의尊崇心을다시喚起키爲하야公園으로公開된것은 今後의朝鮮情勢가如何히變할지라도 必然히닥쳐올運命이라고 아니불수업다(후략)	
중의일보	1929-10-26	3	11	주택지 공매	총독부 산림부(山林部)에서는 경성부근 관유지 삼만평을 금월 이십팔일에 경

				매할터인데 경매할 장소는 사직단공원에서 행촌동(杏村洞)으로 넘어가는 송림과 남산장(南山莊)뒤 송림과 성북동(城北洞) 산림등으로 전부 주택디에 덕당한 곳이라더라
동아일보	1929-10-28	2	近郊國有林野 廿八日에入札	近郊國有林野의 공매를하야 淸호한성적을어든 산림부(山林部)에서는 이 십팔일오전열한시에 다시 총독부데이회의실에서 입찰을하얏다는데공매물건은 (중략) 二,杏村洞山二の一(社稷公園接續)三千六百八十一坪 (중략) 이상과가튼데각호별로는하입찰에부치는바입찰보증금은각자견적금액의백분의오라더라
동아일보	1929-11-28	2	有名한古建物 京城市內에最多	유수한것만백이십팔처 보존할가치가있는고적은사찰백개소,고탑(古塔)오백개,고분삼백이십여처외에 일백이십팔개처의 관유고건물인데 이고건물을 지방별로논하보면 다음과갓더라 ◇京城府(三七) (중략)▲社稷壇齋室▲興化門▲天然亭▲東廟 (후략)

- 1930년대~해방 이전

신문명	년월일	면	단	제목	본문
중의일보	1930-01-12	3	5	飢寒의 거리에 출현한 천사	부내 평동(平洞) 칠십육번디 원구세군정위(救世軍正尉) 강봉재(姜鳳在)씨는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십삼년전에 구세군에 입영한 후로 오늘 날까지 십년을 하로가티 전도사업에 정근해오는중 얼마전부터는 특히 고아(孤兒) 구제사업에 착상하야 요지음처럼 혹독하게 치운겨울날에 못먹고 헐벗고 잠잘곳도 업시 거리에 방황하는 불쌍한 어린 아이들을 위하야 지은 가모로서나마 이와 가튼 구제기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단독힘으로 동정있는 유지들에게 의견을 어더위 선가설(假設)가옥이라도 한채 세우기로 계획하고 방금목재 까지전부 준비되엇 다하며 그밖에 우선 고아들의 먹을 량식으로 백미 세섬과 솜옷 류십여벌이 준비되여 옷은 작구일시내 사직단(社稷壇) 공원에서 고아 이십여명을 모호고 일일이 배부하얏는바 씨가 이와가티 단독으로 고아구제기관을 이르고 귀한 동기는 씨가 구세군에 개근할때에 구세군에서도 물론이와가튼 기관으로 육아(育兒)함이 잇서서 고아구제에 로력하고 잇스나 그방침이라든지 조직에 잇서서 불만한점이 만고 친기 육아함만으로서는 충분치 못함으로 단연히 결심하고 재직하든 정위(正尉)의 직까지 얼마전에 사직하엿다는바 금초부터 괴소유되는 지금으로서는 간단한 열음함의 행상(行商)으로 일반사회유지의 동정을 구함이 라더라
매일신보	1930-06-12	2	4	初夏點景 第十場	社稷壇公園의 밤 여름人間安息處 더위와 물것과 싸우다 참패한 모든 인간들의 피란처가 되엇다 여름에 싸힌 人生交響樂 해마다 여름이라도 오면 사람들은 더위와 빈대와 벼룩과 모기와 그밖에 온갖 물것들과 전쟁을 한다. 인간생활을 투쟁이라 한다면 더위와 물것과 싸우는 것도 투쟁의 하나일 것이니 모깃불을 피우고 빈대를 잡고 벼룩을 잡고 시원한 땀수를 마시고-그래도 견대다 견대다 못하야 그만 한숨을 짓고 방안에서 쫓겨나간다. 더위와 물것에게 참패자(慘敗者)가 되는 것이다. 그가튼 때는 아모리 내집이라 하여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집을 모다 떡?이로 바셔버리고십픈 생각이 나지 안튼가. 『삼간옷간이 다타버려도 물것 업서지니 시원하다』고-이것은 물것에게 쫓기는 인생의 기맥킨 하소연이다. 인왕산(仁旺山)의 뉘픈줄기가 남으로 다리를 뺏다가 『서울』의 장안을 향하고 잠간 다리를 끝호린 곳에 사직단(社稷壇)이라는 넷터가 의희(依稀)하게 남아잇고 그 주위로는 송백(松柏)이 웅울(鬱鬱)하야 가히 아름다운 천연의 공원을 일우어있다. 이곳은 넷날 인조(仁祖)께서 당년의 한재를 진렵하사 단에 올라 친도(親禱)하신 력사집픈 곳이니 지금 사람들이 그때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마다밤마다 다수한 인간군(人間群)이 여기에 모혀들어 노래부르고 춤추고 뛰고 잠자고 소창하고 질기는 공원이 되어있다. 그들은 모다가 더위와 물것들에 참패를 면치 못하고 이곳으로 쫓겨나오는 인생의 떼이니 사직공원은 그가튼 잔패인생(殘敗人生)들의 훌륭한 피난처(避亂處)가 되고만 것이다. 빈대 벼룩이 아모리 사람을 잘쫓는다 하여도 여기에까지 쫓쳐올리야 잇스랴. 모기도 여기에서는 바람결에 기운을 퍼지못하야 텨미지를 못한다올타! 여기야 말로 여름한철 더위와 물것한테 쫓겨다니는 인간군의 안식소(安息所)가 되고

				<p>만다. 서편으로 김숙히 드러가면 황학덩이라는 활쫂느터가 있고 골작우니 새 이로는 맑은샘물이 흐르고 백년로송(百年老松)이 군대군대 서있고 그밖에 온갖 수목이 산을 가리어있서 어테를가든지 시원한맛과 청신한 기분이 과연 별 유천지의감(感)을 준다.</p> <p>사람은 어대에 안저잇는지 수목 사히로부터 『노세 절머노세』</p> <p>소래가 나오면 또 한편에서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소래가 흘러나온다. 높은 창가소래가 들리고 『빠이올린』 소래가 들리고 또 한편 모퉁이에서는 만군을 호터버리는 장량의 옥통소 소래가튼 처량한 단소꼭조가 들린다. 으스스한 수목새에는 사람의 눈을 꺼리는 청전남녀가 종용히 안저잇서 사랑을 속살거리며 남김는준을 모르고있고 또 엇던곳에는 세상만사를 뜯구름 흐르는물에 부치고 름해 자기의 살을푸르기에 맞비하는 이가 술이안지있다. 비에 식겁하게 기른 『뺨취』를 삼□□옥의 조흔 침대보다도 낮게알고 그우에 네활개를 쭉뺏고 코를 고올며 혼흔하게 잠을자는 캄루한 친고도 있다.</p> <p>이것을 인생의 교향악(交響樂)이라고 할까. 쫂기는 인간군의 피난처라 할까. 그야 처지를 따라 다르고 또 보기에 달리닛이지마는 엇켓던 이곳 사직공원은 여름철만 도라오면 비바람 심한 모진날을 제한외에는 밤마다밤마다 그가튼 광경이 끈히지 안는 것이다. (사진은 황혼에 싸힌 사직단공원 인생의 교향악이 시작될 시간)</p>
				
동아일보	1931-03-18	7	汚物掃除等差別을論難	<p>汚物掃除等差別을論難</p> <p>공원 수선비에도 문제잇서</p> <p>◇京城府議第五日 경성부협의회의제五일은 작十六일 오후二시부터 경성부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중략)</p> <p>동일 협의회에서 문제된것은 다음과갓다 (중략)</p> <p>◇公園費=六년도 공원비는 八천九백二十三원으로 전년도九천一백九十一원에 비하면 二백六十八원의감소이다 감소된예산을가지고도 장충단 공원(獎忠壇公園)과 가튼것은그수선비를 一천四백六十二원이나드림에불구하고 조선인의유일한공원인 사직공원(社稷公園)은 그수선비가겨우五백八十원밖에아니된다 만일 그가티 동공원의 시설을 게을리하여 공원답지안게 내버려둘진대 차라리 업새 버리는 것이 조치안나?하는 질문까지 잇섯다</p> <p>그리고 북부 “빠고다” 공원을총독부로부터 부에이관(移管)하는문제가 잇스나 그는경성부당국이 그동안 총독부에교섭한결과 고적보존상이관할수업다고하여 교섭이 결렬된 것을 부운은 언명하얏다 (후략)</p>
매일신보	1931-04-17	2 7	아들의 失職을 悲觀코 出家松林에 縊首 아들과 말다툼하고 출가하여 社稷壇老婆屍正體	<p>기보=지난 十四일 오전 七시경에 사직단공원(社稷壇公園) 뒷산 송림 가운데서 六十여세 가량된 노파가 솔나무 가지에다 목을 매고 자살한 것을 지나가든 사람이 발견하고 소관 종로서(鐘路署)에다 게출하게되야 동서에서는 서원이 현장에 급행하여 조사하였스나 그의 신원을 알수업슴으로 경성부청에 인도한후 가매장케하였든바 금十六일 오전 十一시경에 그의 아들되는 부내 루하동(樓下洞)一五七번지 조귀동(趙龜東)이가 종로서로 그 시체를 차지러 왔는데 그 자살한 노파는 류성녀(柳姓女)(57)라는 이로 그 아들이 모회사 직공으로 잇다가 긴축바람에 지난달 상순경에 해직을 당한후 이래 생활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와 수차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四일 오전에도 또 말다툼을 하고 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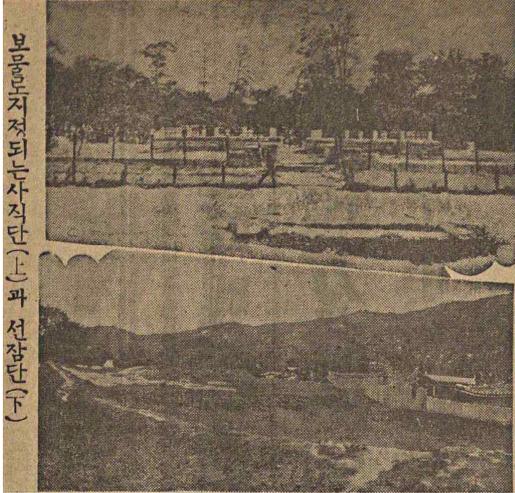


				<p>일을 내세우고 량대(兩隊)는 서로 지지안코 추격(追擊)전을 전개하여 신기(神技)를 발휘하며 변(邊)을 가할때마다 미기(美妓)의 아름다운 지화자 소리는 당편 사원의 의기를 더욱 도도와 주었으며 초순(初梭)은 동오후 一시 반에 끝을 맞치었는데 四十二대 三十二로 성내군이 리-드하고 재시(再矢)에 들어갔는바 량군의 사원의 씨명과 일순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p> <p>城內(石虎亭 黃鶴亭 一可亭) (이하 명단 생략)</p> <p>城外(靑龍亭 西虎亭 華水亭) (이하 명단 생략)</p>
동아일보	1932-08-09	7	梅普地鎮式	<p>梅普地鎮式 부내사직공원(社稷公園)부근에 신축중의 매동공보교(梅洞公普校)의 교사신축부지의 지진제(地鎮祭)는금八일오전十一시에 경정부정상(井上)부윤이하 관계자들의 털식으로 성대히 거행하였다한다</p>
동아일보	1932-10-06	2	府社會課主催敎化映畫公開	<p>府社會課主催敎化映畫公開 경성부사회과에서는 부내 하급세민층의 사회적교화를 목□□야 금五일부터 부내각방면□□ 사회교화활동사진회(社會活動寫眞會)를 개최할터이라한다 이에는 총독부의 활동사진만이 출동한다는데 그일순과장소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p> <p>五日午後七時 東部(東廟前) 六日 同 北部(社稷公園) 七日(후략)</p>
매일신보	1932-10-26	2 4	五部大公園은 三清洞으로	<p>북촌(北村)에는 공원(公園)다운 것이 업서 탑동공원(塔洞公園)이나 사직단공원(社稷壇公園)으로는 도저히 부민을 위하여 공원다운 기능을 발휘할 수 업다하야 수년래로 경성부에서는 북촌에 대공원시설을 계획하였섯스나 이래 그 실현을 보지 못하였섯는데 근일에 이르러 점차 동계획이 익어드러가 공원후보지를 모색하든 중에 삼청동(三清洞) 산이 제일 적당하다고 결정을 보게되어 국유지인 농지의 불하를 총독부 당국에 청원하는 동시에 신년도 예산에 이의 비용을 계상하기로 되었다.</p> <p>拂下를 本府에 請願</p>
동아일보	1932-12-12	1	橫說堅說	<p>橫說堅說 ▼三淸洞府立 公園의 豫算을 計上하였다.▼社稷壇公園이저 풀이오,塔洞公園이 저풀이것을 보니三淸洞公園이란 어떤풀이 될는지 모르지▼무슨풀이 되든지 觀相장이가 陣을치고 동네영감들의낮잠터가되더라도 有는 無보다는 나을것. (후략)</p>
동아일보	1933-01-19	2	梅洞公普新築 十九日入校式	<p>梅洞公普新築 十九日入校式 작년七월부터 약十만원의 예산으로 부내사직공원(社稷公園)부근에 신축중이든 매동공보교(梅洞公普校)는작년十二月二十六일에 준공이되어 오는十九일 오후 一시에부내통의동(通義通義洞)구교사에서 교사(校舍)고별식(告別式)을 거행하고 직원생도 학부형 기타관계자들은그길로 새로건축공된 신교사에서 입교식(入校式)을 거행하리라하다</p> <p>금번새로 건축된 신교사는철근"콘크리트"三층으로 교사의평수만도 四백여평이라는데 동교의 현재제적생도는 보통과六백十二명 상급과一백三十명이라한다</p>
				
동아일보	1933-04-16	2	近郊一帶에 森林	近郊一帶에 森林公園

			公園 南山,仁旺에散策路	<p>南山,仁旺에散策路          二十二万圓經費로明年에完成          化粧하는京城의風貌          경기도 내외의 풍치를 도우고동시에 대 삼림 공원을 맨들 기위하여 경기도 에서는 소요 경비二十二만 二천圓으로 급년과 명년 二개년 계속 사업으로 경성을싸고 잇는 산야에 대공사를 하기로 되었다 한다.          이 공사의 목표는 아직까지 도로가 되지 아니한 곳은 새로이길을 내고 이미 잇는 곳에는 수선을 하며 조망이 좋은 곳에는 의자 등속을 설치하여 완상객의 편의를 도읍게하고 언덕이 급한곳에는 석축과 철책을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이삼림 공원의 六대간선을 칙정하고 명년도까지에완성키로되었는데 이六대간선도로는 다음과 같다한다.          一,南山公園에서南山頂上을돌아 獎忠壇에至하는線          二,大和町憲兵隊 뒤로부터 南山 頂上에 至하는線          三,大和町老人亭附近에서 獎忠壇藥水에 至하는線          四,曹谷寺뒤로부터 獎忠壇藥水에 至하는線          五,獎忠壇에서 藥水로至하는線          六,社稷公園에서 仁旺山頂上을 通하여 彰義門을 經하고 또다시 東小門에 至하는城壁沿道線</p>
동아일보	1933-07-22	2	高齡樹巡禮	<p>高齡樹巡禮          ◇第一=社稷公園槐木          한양(漢陽)의도읍에서 五백년긴세월을 두고 봄바람과 가을비를 맞아가며 남모르는 옛일을 혼자만알고잇는 수많은"나무"(高齡)들은 시내어디어디잇는나?위선五백세이상된 나무만 찾아간단하나마옛일의一단을몰어보자!          ◇---나는사직단을 五백년동안이나 지켜왔지요. 내나이는 경기도에서 六백세라고 조사해갑다다마는 낸들늙은 몸이라 자세히알수가잇소?사직단은 지금또□형태는 변함없되 꽃핀아침과 달밝은저녁에 철없이□놀아드는 젊은남녀의꼴이 때때로보기싫소이다.</p> 
동아일보	1933-09-08	2	五個年繼續事業으로 新裝되는市内公園	<p>五個年繼續事業으로          新裝되는市内公園          ◇-----정자,식수,교의등세시설          北部三清洞公園도完成          경성부에서는 명년도부터 향후五개년 계획으로서 부내의 남산공원(南山公園)을 비롯하여 장충단공원(獎忠團公園)사직공원(社稷公園)효창공원(孝昌公園)탑골공원(塔洞公園)등 五개공원에새로운 설비를하리라 한다.          현재의 공원시설로서는 하등불만한것이 없으므로 공원 도로의완비 또는 식수(植樹)정자와 안락의자등의 설비를 완전히 하여 공원으로로서의 신면목을 갖추</p>

				<p>게하리라한다.</p> <p>그의 예산은 명년도 예산에 신규사업비로 요구하여 계속사업으로 할작정이라는데 장래로는 북부의 삼청동공원(三清洞公園)까지도 완전한 공원시설을하게 되리라한다.</p>
동아일보	1933-10-19	2	梅洞公普落成式 明十九日에舉行	<p>梅洞公普落成式 明十九日에舉行</p> <p>작년十二月二十三일에 준공되었으나 연기중의 매동공보교(梅洞公普校)의 낙성식(落成式)은오는 十九일오후一時반부터 동교에서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한다. 동건축은 七만五천八백여원의예산으로 필운동(弼雲洞)에 부지二천三백二十三평에 연건평(延建坪) 七백八十평의 三층건물이다.</p> <p>현재 十三학급에 八백七十여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의위치가 바로 수목이 울창한 사직단공원 인접지이므로 경치로 보나 건물로 보나 부내 十八공보교중에 제일이 되리라 한다.</p>
동아일보	1933-10-26	2	三公園을 新設코 五個公園은 完備	<p>三公園을 新設코 五個公園은 完備</p> <p>사직,효창원,빠고다를 확장 美化될京城의놀이터</p> <p>四十만부민의 모진말길에 짓밟히어 자□의 풍치라고는 찾아볼수없는 경성을 미화하기 위하여경정부에서는 명년도 신규예산에공원비(公園費)로 六만六천여원을 요구하게 되었다.</p> <p>그 요구예산의 내역을 보면 이미 설비가 완전히된 장충단공원(獎忠團公園),남산공원(南山公園)등은 물론 종래로 시설이 불완전하던 사직공원,사직공원(社稷公園)효창원공원(孝昌園公園),빠고다공원등의 시설을 좀더 완전히 하라는 것이다.</p> <p>그리고 훈련원(訓練院)의 중앙을 비롯하여 전 인현공보교(仁峴公普校)의 터와 삼각지(三角地)등 三개소에 소공원(小公園)을 신설하기로 계획하라는 것이다.</p> <p>그리하여 시내의 미관을 더하는 동시에 부민들의 상쾌한 유람또는 산책을 만들라 하는것이다.</p>
동아일보	1934-03-07	2	市民의慰安場 各公園을新裝	<p>市民의慰安場 各公園을新裝</p> <p>경비一만六천여원 들여서 訓練院,仁峴에新公園</p> <p>경정부에서는 신년도 예산에도시의 미관을 돕고 시민의 산보위안의 일조로 부내 각공원에 새로 설비를하고 인현(仁峴)과 훈련원광장(訓練院廣場)에 새공원 시설을 하기로하여 경비로 一만六천二백三十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시설방법은 (중략)</p> <p>▲社稷壇公園 대부할때에 두엇던길이 그대로 남아있을뿐이므로 산책자는 자연 산중에 들어가 흙을 문어트리고 수목을 상하므로 회유도로와 전등을 증설하기로하여 경비 一천六백원을 계상 (중략)</p> <p>그리고 각 공원의 풍치를 돕기 위하여 효창공원에 二천원, 사직단공원에 一천八백원, 장충단공원에 二천원, 남산공원에 四백八十원, 파고다공원에 五백원의 식수비를 계상하여 대대적 식수를하기로 되었다.</p>
동아일보	1934-06-29	2	市街地舍과 그미치는 影響 (4)	<p>市街地舍과 그미치는 影響</p> <p>㉞ 住宅地,商業地와 工業地域嚴然히區別 住居·商業·工業地域</p> <p>대정二년에제정된 시가지건축물 취체규칙은 현재지정된시가지가 경정부(京政府)에만 그치고보매 다른도시에는 건축수선등에대해서 아무런관계가 없었다. 이번시가지계획령속에 포함된건물규칙은 꽤상세한 규정을주었고 건축은물론수선이나개축에도여러가지제한을받게되었다.</p> <p>(중략)</p> <p>사직(社稷)공원,삼청동(三清洞),장충단(獎忠壇)등 풍경이 좋아 유람산책장소에는 풍치지구를지정하여 풍치에 방해되는 바는 일체 금지제한하게 되었다. (후략)</p>
동아일보	1935-03-09	2	南쪽엔벚꽃,北 村엔丹楓 六公園의綠化計 劃	<p>南쪽엔벚꽃,北村엔丹楓 六公園의綠化計劃 四十萬府民의 散策地 京城府의 植樹豫算</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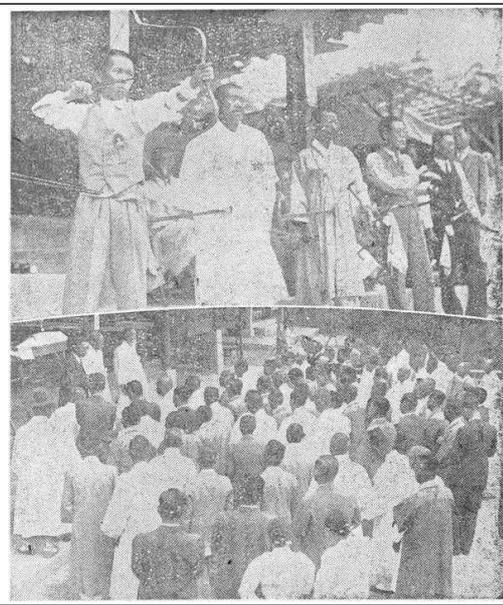
				<p>홍진만장인 착중한 도시에 생활하는 경성부민의 장한한 안식지대로서 불만한 것이 별로 없는경성부에서는 부내 각공원의 정비를 꾀하여 전공원의 녹화풍취의 완비에 착수하기로 되었다한다. 그리하여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식수五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소하 十년도 예산에 一만四천九百八十원을 계상하여 효창원(孝昌園),사직공원(社稷公園),남산공원(南山公園),탑동공원(塔洞公園),삼청동공원(三清洞公園)등에 각종의 나무 三만六천본을 식수기로 되었다한다.</p> <p>동 식수계획은 장충단공원,남산공원에는 벚나무(櫻樹)一만二천五백본을 심고 효창원,탑동공원에는 백단 또는 "한노기"二만본,삼청동공원에는 홍엽수三천본을 각각 심우기로 되었다 한다.</p> <p>그리하여 남촌에는 벚꽃의명소로 북촌에는 홍엽의 명소로 하여 각각 풍토의 적당한 전면적 식수를 시행하기로 되었는데 이로써 부민의 산책지대로서 공원의면목을 일신하게 되리라 한다.</p>
동아일보	1935-05-26	2	<p>今後擴張할府水道는 高地給水에注力 南山과社稷後山에도配水裝置貯 水地는蘆島로決定 경성부의 二백五十만원내지 三백만원의 제3기수도확장 대계획은 후보한바와 같이 그동안 그의저수지(貯水池)배수지(配水池)의후보지를 한강(漢江)연안 상하류각방면으로 물색하든중 최근에그의 설치장소가 확정되었다한다. (중략)</p> <p>그리고 전기장소의 큰 배수지 이외에 남부와 서부방면에 급수를 원활하게하는 동시에 여름 공원의 서늘한 풍경을 더하게 하기위하여 남산공원(南山公園)산정과 사직공원(社稷公園)뒷산 우에각각 대소규모의 배수지를증설하리라한다. 이와전후하여 현재의 배수지보다도 훨씬높은지대에 배수지를특설하여 현재 수도의 송수가 불능한 곳까지 급수하도록 하리라한다.</p>	
동아일보	1935-08-09	2	<p>園丘壇(환구단)은寶物(보물)로되고 獨立門(독립문)은古蹟(고적)으로 京城城壁(경성성벽)과 社稷壇(사직단)도 이측에 寶物古蹟(보물고적)으로百二十二點指定(백이십이점지정) 조선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위원회(朝鮮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委員會)는 九(구)월중순경에 개최하기로 되었다는데 그동안여러가지로 지정물에 대하여 협의한결과 -寶物(보물)로서는 신라(新羅)의 석탑(石塔)을 비롯하여 총독관저안에있는 석불(石佛), 조선호텔의 환구단(園丘壇)평안남도의 안주백상루(安州百祥樓)평안북도선정동명관(宣川東明館)경북합천혜인사(陝川海印寺)대웅전(大雄殿)앞의 三층석탑등약七十三건이고 -古蹟으로서는대방군태수 장무이(帶方郡太守張撫夷)의고분을 비롯하여경성의 성벽(城壁)독립문(獨立門)노인정(老人亭)사직단(社稷壇)신라무열왕릉(新羅武烈王陵)부여(扶餘)의정마산성(靑馬山城)등四十九건이 선정되었다.</p>	
동아일보	1935-10-27	2	<p>寶物古蹟百五十點 保存會서指定,頽廢한것은修理 樂浪古地엔採土도禁止 전반에 개최되었던 보물 ,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회(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에서 각위원이 심의하여 결의한것은 보존명예의하야 보물(寶物)六十五건,고적 四十六건, 고적과 명승 二건, 천연기념물 四十四건으로부터 통계 百五十八건을 지정하였다. (중략) 二, 古蹟 【四十六件】 京城城郭 京城社稷壇 (후략)</p>	
동아일보	1935-12-19	2	<p>四萬五千圓으로 運動場改修 窮民救濟의 隣保館新築 明年度府社會課計劃 경성부 사회과(社會課)에서는명년도 신규사업 방침을 세우기위하여 권과장(權課長)은 각계(各係)의 의견을 종합 입안중이던바 이치를 다음과같은 두가지사업을 착수기로 결정하였다 한다. 그중 하나는 궁민구제(窮民救濟)사업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명년도에 부내 사직공원(社稷公園)안에 북부 인보관(北部 隣保館)을 설치하기로 되었으며 동과에서 수행할 사업의 대강은 一,窮民救濟에關한件.二,衛生保健에關한件.三,職業紹介에關한件.四,社會教化에關한件. 등이라는바 명년도 예산은 약一만六천원에 달한다는데 개관은명년四월一일이</p>	

				라 한다. (후략)
동아일보	1936-06-27	2	扮裝하는北村公園 社稷公園에周回道路	扮裝하는北村公園 社稷公園에周回道路 三清洞에는九,十月頃에着工 경성부 토목과(土木課)에서는다년의 현안으로 되어잇은 북촌(北村)에잇는 공원의분장공사(扮裝工事)를드디어 착수하게되엇다한다. 사직공원(社稷公園)의주회도로(周回道路)는이미공사입찰도끝났으므로二三일안으로 공사를착수하게되엇다는데 그공사비는 약五千圓가량에 달한다 한다. 동 주회도로의 연장리수는 六百六十"메돌"이며로폭(路幅)은六"메돌"이라는바 동공사는 오는十月경에는 끝나리라한다. 이도로가되면 일반산책자(散策者)는 다대한 편이를 받게되리라는데자동차는 동공원정문의 바른편으로부터 공원뒷산을도라 매동공보교(梅洞公普校)앞으로 빠져나올수잇을것이라한다. (후략)
매일신보	1938-09-28	2 1	寶物,古蹟天然 記念物 八十件을 追加指定 社稷壇門, 江華傳燈社, 城北町先蠶壇等 지난 時代의 內鮮一體를 宣傳	소화 八년에 조직하야 그 이듬해부터 활동을 개시한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회(朝鮮寶物古蹟 天然記念物保存會)는 그동안 세번이나 총회를 개최 하얏섯는데 오는 十月十一일에는 제四회 총회를 총독부에서 개최하고 여러가지 보물고적을 지정하리라고 한다. 그동안 세번이나 모히엇든 총회에서는 보물 二百九十六건 고적 八十七건 천연기념물 七十건 도합 四백五十三건을 지정하얏섯는데 이번에 다시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들을 광범위에 공하야 지정한 다음 영원히 국보로서 보존하리라고 한다. 이번에 모히는 총회에는 특히 내지 각대학에 권위자들과 조선내의 유력한 학자들 四十여명이 모히게 될터인데 이번 총회를 위하여 경도제대(京都帝大)의 천소(天沼)박사는 이미 입성하야 각방면으로 실지답사를 하고 잇는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새로히 지정을 바든것은 보물(寶物)에 잇서 사직정(社稷町)에 잇는 사직단문(社稷壇門)을 비롯하야 강화전등사(江華傳燈寺) 등 四十건이 고적(古蹟)에 잇는 선잠단(先蠶壇)등 十七건, 천연기념물에 잇서서는 개풍군(開豐郡)에 잇는 백송(白松)을 비롯하야 二十三건으로 전부 八十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 보존회에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보물과 고적을 전형해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연원을 밝히리라 하며 특히 고적으로 만흔 지정을 할곳은 부여(扶餘)인데 백제(百濟)의 고읍인 만큼 이곳의 여러곳을 지정해서 그시대의 내선일체를 널리 선전하리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8-11-26	2	【寫眞은 右上으로부터 下로京城社稷公 園,廣州南漢...	【寫眞은 右上으로부터 下로京城社稷公園,廣州南漢山城,海州芙蓉堂,左上으로부터 扶餘無量寺塔,義州南門,江華傳燈寺,公州山城公園入口,鎮南門】

동아일보	1938-11-26	2	寶物·古蹟·天然記念物	<p>寶物·古蹟·天然記念物          새로百一種指定發表          今日,保存會第四回總會에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제四회총회는二十五일 오전九시부터총독부 제一회의실에서개최,대야(大野)회장이하일본내지로부터온각위원까지三十四명 출석밑에학무국원안대로신지정百一종을새로지정하고동十一시반산화하였다.          이번까지 지정된것은 제一회보존위원회이래 총계 四百五十七건인데 이지정된 물건은 석표를세워 애호의 임에당하게하고 특히 금번지정되려는것은 내선일체의관념을적확히 표명하는것이라하여 주목을끄을고있다. 고적의 애호로 향토애 중의 관념을 도두고 국토존중의 심정을 이끄는것은가장중요시 할일이므로 금후에도이업은강화시켜 갈려는 것이다.그리고 고적유물뿐만아니고 토지의독특한 문화소산이나 향토로서자랑할특수한 자연물의 표시도중요하므로 이것을 표시하는것과보호하는것은 학문상의 중요성보담도국가적견지에서 극히 중요하다 는것이다.          ▲寶物          一,京城社稷壇表文 二,傳燈寺大雄殿(후략)</p>
동아일보	1939-03-19	2	各公園을美粧!	<p>各公園을美粧!          社稷에散策路,孝昌에避難道路          南大門公園도새로히設置한다          京城府民의休息處          앞으로 꽃시절도 멀지안헛지마는 오는 신록(新綠)과하절(夏節)부민의 휴게소가 될부내 공원(公園)각처를 미장(美粧)하고 새로히 공원 一개소를 증설코져 경성부(京城府)에서는 그경비 二萬五千六百여원을 신년도 임시부예산에게상 오는 여름 일반부민에게 유-한 안식처를 제공키로 되었다.          공원이란 명목만 가추어잇는 사직공원(社稷公園)에산책도로(散策道路)를 축조하는외에 다수의 식수(植樹)를하여 아름답게 장식하고 효창공원(孝昌公園)에는 유사시(有事時)겸용할피난도로(避難道路)를 축조하기로되었다. (후략)</p>
매일신보	1939-07-20	3	7	<p>町内の老少가公園을每日清掃          社稷町勤勞奉仕隊組織</p> <p>요즘 부내에 잇는 공원을 리용하는 사람이 점점 만히 늘어가는 반면에 관광만 하여야 할 공원안에 잇는 나무라던가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불량한 사람도 늘어서 이를 취척하기예 당국은 머리를 알고 잇는 중인데 더욱이 피해가 가장 만흔 곳은 사직단공원(社稷壇公園)이라고 한다. 이 공원에 매일가치 늘</p>

				<p>러오는 동리의 로인과 청소년들은 풍치를 보존하고 공원을 깨끗이 만들기 위하여 얼마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직단공원 근로봉사회를 만들어 최명천(崔明天)씨를 회장으로 오중근(吳中根)씨를 부회장으로 하여 먼저는 일급명의 회원이 원내의 소제와 취체를 하야왔는데 최근에 이르러는 회원도 二十二명으로 느릿슴으로 매일아침저녁 몇시간씩 근로봉사를 하야 오는데 이들의 이갓흔 아름다운 행사에 동리 사람들은 칭찬을 하야 마지안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직 안에서 쓰든 어정(御井)잇든 곳을 十三년만인 근일에 이르러 발견한 고로 회원들이 팡다고 한다(사진은 사직공원에서)</p> 
매일신보	1939-10-14	2	4	<p>늘어가는 寶物古蹟 새로 指定된 것 九十七件</p> <p>지난 九월十일 전조선적으로 실시한 고적(古蹟)보호일(古蹟愛護日)을 기회로 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여러 가지 사실(事實)을 고적(古蹟)과 또는 천연기념물로부터 차져내게 하얏고 따라서 아직도 세상에 들어나지 안은 고적(古蹟)기념물을 새로 지정해서 영구히 기림보존하기로 하얏든바 드디어 오는 十八일부로 새로운 지정을 하기로 하얏다.</p> <p>이번 새로운 지정을 받게된 보물(寶物)은 서른아홉가지고 고적(古蹟)은 서른가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스물여덟가지 포함 아흔일곱가지로 되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것은 지난 九월十일 고적(古蹟)기념일에 발표된 것이었으나 고적조사위원회(古蹟調査委員會)에 심사가 느저져 이번에야 발표된 것이며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는 경성사직단대문(京城社稷壇大門)도 들어잇고 고적(古蹟)으로는 각지의 산성(山城)이 들어잇는외에 천연기념물로는 백천(白川)의 백로(白鷺)가 지정된 것이 특색이다.</p> <p>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것을 종래 지정된 것을 합하면 보물이 三백三十五건 고적이 一백七十건 고적명승이 두곳 명승과 천연기념물이 두곳 천연기념물이 九十八건으로 포함 五백五十四건에 달하고 압호로는 천연기념물로서 유명한 폭포 연못 가튼 것을 지정하리라고 한다. 이제 이번에 새로운 지정을 바든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p>
동아일보	1939-10-17	2		<p>빛나는우리의자랑 寶物,名勝,古蹟 追加指定發表</p> <p>(전략)</p> <p>그래서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연전부터 조선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조사위원회를 설치코 각지방에 산재한 명소, 고적등을 보존(保存)하기로 지정하던 중 금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새로 보존물을 추가하게 되었다한다.</p> <p>寶物三十九件 名稱 △京城社稷壇表文 △傳燈寺大雄殿 (후략)</p>
동아일보	1939-11-03	2		<p>神宮과各公園淨化 精神作興週間に淨化作業 七十敎化團總出動</p> <p>오는十一日, 국민정신작흥주간(國民精神作興週間)의 다섯째날인 가정보국일(家庭報國日)은 제종의행사가 잇겠거니와 경성교회단체약七十단체는 이날전원이 동원되어 오후二시부터 정화작업(淨化作業)을행하기로되었다.</p> <p>작업장소는 조선신궁경내 참궁도로의 제조와 소제를 비롯하여 경성신사경내, 박문사경내급장충단공원과 효창(孝昌)빠고다사직(社稷)공원등으로하루봉공의 실적을 나타내이게되었다.</p>
매일신보	1940-02-01	3	1	<p>公園都市建設運動 - 天然美에人工을裝飾하야</p> <p>경성부에서는 립시비로 총공비 二十만원을 가지고 금년 四월부터 소화 十八년도까지 四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괴설공원(既設公園) 일곱곳에 대하여 천연공원에 인공을 가미하야 곱게 단장식혀서 리상적 공원으로 만드러가지고 七十五만 부민의 산책과 보건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게하는 동시에 관광도시로서의 면목</p>

			面目を一新케 하고져今年부터府內七處에施工	<p>을 뚜렷하게 드러내세우게 하고져 十五년도 예산에 五만원을 계상하였다. 즉 경성부내에 이미 설치되어있는 공원은 남산 장충단 사직단 효창공원 삼청(三淸) 파고다 등 여섯공원에 앵정(櫻井)의 소공원까지 합하여 일곱곳으로 그 총면적은 二十七만七천평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파고다 앵정의 두 공원은 아동을 본위로 한 작은 공원이라고 하겠지마는 다른 다섯곳은 산악과 삼림을 배경으로 한 천연공원으로서 최근의 인구증가가 부민이 이용나는 수요가 날마다 만회되는 현상이어서 이에 인공을 가미하여 가지고 풍기취체 또는 수목을 보호하여 공원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 두자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 이제 이들 각 공원에 대한 비용을 구별하는 한편 시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가튼데 이것이 완성되는 날이면 부민의 보건위생은 물론이고 경성을 구경하러 모회드는 관광객의 이목을 크게 끄으리라 하여 벌써부터 그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한다. 이 비용은 남대문공원의 방공광장시설 이외의 것임을 말하여둔다. (괄호안이 시설하자는 글자)</p> <p>▲南山公園五〇〇圓(兒童遊園地制札其他)  ▲獎忠壇公園一二,五〇〇(園路改修 兒童遊園地 芝園廣場 休憩所其他)  ▲社稷壇公園 八,七五〇圓(散策路 道路新設 擴修 自由運動場 植栽其他)  ▲三淸公園 七,五〇〇圓(散策路 林間廣場 橋梁 결상 制札其他)  ▲孝昌公園 一五,〇〇〇圓(散策路 運動場擴張 回周圍路)  ▲파고다公園 一,二五〇圓(결상 울타리 制札其他)  ▲櫻井公園 一,〇〇〇圓(運動器具改修 排水工 倉庫其他)</p>
동아일보	1940-03-25	2	京城府의植樹祭	<p>京城府의植樹祭  祭四月七日에施行  식수일(植樹日)은 오는四월三日 전조선일제회 행하는데경성부에서는 七일오전 十시부터경성사직정 사직단공원(社稷壇公園)에서 거행하기로 되었다.당일은 일반부민다수의 참가를희망한다고한다.</p>
동아일보	1940-05-09	2	第14回全朝鮮弓道大會	<p>第14回全朝鮮弓道大會  時日을 十五,十六日로 變更코  【主催 朝鮮弓道會·後援 東亞日報社】  京城運動場에서舉行  조선궁도회(朝鮮弓道會)주최본사후원의 제十四회 전조선궁도선수권대회(全朝鮮弓道選手權大會)는 오는 五月十一,十二양일간 부내 사직공원 황학정(社稷公園 黃鶴亭)에서 개최한다함은 기보한바이다.  그런데 동궁도회에서는 다년열망하던 조선체육협회(朝鮮體育協會)에 가맹되고 금년가을에거행되는 조선신궁봉찬경기대회(朝鮮神宮奉讚競技大會)에도 출장하는 기회이므로 좀더 이번대회를 성대히하고져 장소를 황학정(黃鶴亭)에서 하지안코 궁도계에잇어서는 첫시험으로 넓은경성운동장(京城運動場)에서거행하려고 장소를 교섭중이다 그리하여 부득이 시일은 五月十五,十六,양일로 변경하기로 되었다. (후략)</p>
동아일보	1940-05-16	2	武風가춘百餘選士의 힘찬화살에再現된武道	<p>武風가춘百餘選士의 힘찬화살에再現된武道  떨치는,시위넘치는 歡呼黃鶴亭에가득  弓道選士權大會첫날의盛觀  고전모도(古典武道)의정수인활(弓)의 부흥을 목표로 전조선각지의 사원(射員)으로 조직된 조선궁도회(朝鮮弓道會)주최,본사후원의 제十四회 전조선궁도선수권대회(全朝鮮弓道選手權大會)는 예정과같이 十五일 사직공원(社稷公園)뒤 황학정(黃鶴亭)에서전조선 각지에서 모인 남녀一百三十여명사원입장식리에 시작되었다. (후략)</p>

				
매일신보	1941-05-24	3 5	<p>全鮮의 名弓雲集 二十五·六兩日 男女弓道大會道 頭 - 朝鮮弓道會 · 本社共同主催</p>	<p>조선궁도회와 본사 공동주최의 제十五회 전조선 남녀궁도대회는 드디어 오는二十五·六일 이틀동안 신록이 옥여가는 성동원두경성운동장 옥상경기장에서 막을 여러 넷무사의 기개를 펴기로 되었거니와 신청마금날인 작 二十三日 오후 세시까지 전조선 각지에서 신청하여온 것을 보면 개인 신입은 남으로는 여수(麗水)를 비롯하여 통영(統營) 북으로는 주을(朱乙) 길주(吉州) 중선지방은 연백(延白) 포천(抱川) 등지의 남녀궁사 二백六十여명이 신입하였고 단체신입은 또한 북으로는 길주 주을을 비롯하여 중선의 장단(長端) 개성(開城) 등 七인조의 四十조가 참가하여왔다 이리하여 어제 二十三日밤까지의 신입자를 합치면 개인 단체를 합하여 五, 六백명을 돌파하는 모양인데 경향각지의 각선수 는 향토의영예를 두역개에 지니고 속속 입성하는 중에 잇는바 여자궁사도 다수에 달하여 이체를 띄우고 있다 그런데 작 二十三日 오후 두시부터는 본사회의실에서 대회역원회가 본사 금본(金本) 상무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만반 준비를 갖추었는데 본 대회는 조선에 특유한 무사도를 장려하는 점에 잇서 각 방면에 비상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어제 二十三日까지 신입하여온 단체신입의 주요한 곳은 다음과 같다</p> <p>▲龍仁 金鶴亭 ▲長端 六一亭 ▲黃海 平山郡 南川驛 黃虎亭 ▲開城 觀德亭 ▲漣川 立巖亭 ▲高陽 元堂面西之亭 ▲吉州 慶南咸安伽倻亭 ▲延安 青華亭 ▲天安 鍊武亭 ▲高陽 崇武亭 ▲富川 蘇萊亭 ▲京城 黃鶴亭 ▲京城 西虎亭 ▲朱乙 咸北弓道會 ▲一山 松鶴亭 ▲延白 永武亭 ▲坡州 金虎亭 ▲京城 青龍亭 ▲水原 半月亭 ▲京城 龍虎亭 ▲京城 石虎亭</p>
매일신보	1941-05-27	3 3	<p>弓道復興에 큰 成果 - 本社, 弓道會主催 弓道大會圓滑開 幕</p>	<p>반도궁도계의 남녀맹장 四백여명을 총망라하여 자용을 결하는 조선궁도 회와 본사공동 주최의 제十五회의 전조선남녀궁도 대회(全朝鮮男女弓道大會)는 전 날에 계속하여 二十六일 오전 아홉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려 각 단체와 남녀 개인의 결승전을 행하고 이틀 동안의 예정을 원만히 마춘 다음 막을 다뎠다 이번 대회는 상무(尙武)의 기풍을 길르는 무사도적 정신을 함양함에 잇서 자못 성과가 컸었는데 이날 오후 세시부터는 결승전을 행하였고 오후 여섯시부터는 폐회식을 거행하였다 식은 먼저 참가궁사 일동과 역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일동이 경례를 한 다음 회장 성문영(成文永)씨로부터 영예의 一등을 차지한 경성 청룡정(京城靑龍亭) 二등의 경성황학정(京城黃鶴亭) 三등의 일산송학정(一山松鶴亭)과 남녀개인 우승자에게 각각 우승기와 상품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뒤이어는 회장의 폐회인사가 잇는 다음 가산(佳山) 명예회장을 대신하여 금본(金本)본사상무로부터 궁도대회는 연이틀동안 대성황리에 열려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고 막을 닷게 되었습니다 궁도는 고래로 반도의 유일한 무술로서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눈부신 발전이 업섯는데 이번에 본 대회는 열려 무사도적 정신과 상무의 기풍을 길르는데 큰 뜻이 잇섯다고 믿습니다 더욱 고도 국방국가 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매진하고 잇는 오늘 이번 대회가 큰 성과를 일룬 것은 반도 민중이 다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아프로 여러분께서는 반도 궁도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기픈 인사가 잇고 심판 강평이 잇는 후 국기를 강하하고 일동이 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하고 폐회하니 때는 황혼이 지터가는 오후 일곱시였다</p>



### ③ 해방 이후

- 1945년-1949년

신문명	년월일	면	제목	본문
동아일보	1945-12-17	2	檀君天眞奉安 臨時政府要人參拜	檀君天眞奉安 臨時政府要人參拜 十六일하오二시부터 시내사직공원내에잇는 대종교강당에서 단군성조 천진봉안식을 거행하였다 이날임시정부의 조소왕(趙素昂)홍진(洪震)두선생을 비롯하여 일반인도 강당에다수참석하여 고평(高平)씨 사회하에 다음과기치 식을 거행하였다 즉천진봉안에 배원도(願禱)신고문(神告文)랑독래빈축사이다 [사진은단군천진봉안식광경]
동아일보	1946-01-09	2	懸賞雄辯受賞者	懸賞雄辯受賞者 市内사직 공원내 웅변구락부(雄辯俱樂部)주최신탕통치반대독립축성전국현상웅변대회는 지난五,六일성황리에개최하였는데 수상자씨명은 다음갓다 ▲第一日一等(平壤)金德 寶二等(利原)姜顯夏 (후략)
동아일보	1946-02-13	2	自由搬穀許容하라	(전략) 獨立宣言記念 講演士를募集 시내경운동천도교본부(天道敎本部)내의 기미독립선언기념(已未獨立宣言記念)전국대회 준비회에서 오는三月一일을 기회하여 경향각지에 강연연사를 파견할 계획인데 남녀와 노인청년을 가리지 안코 그지원을 바란다고 하며 사직공원 안에 잇는 웅변구락부에서 지도련습을 시킨다고 한다
동아일보	1946-03-15	2	檀君殿奉建會開催	檀君殿奉建會開催 단군전봉건회(檀君殿奉建會)에서는 전국적으로국조봉제의정신과 사업을이르키기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를 三月十七일하오一시에 시내사직공원내 단군전봉건회회과내에서 개최하리라하는데 토의사항은 전각건축(殿閣建築)급경비에관한건이라고한다
동아일보	1946-04-14	2	美蘇委員會對策 中央委員會召集	美蘇委員會對策 中央委員會召集 미소공동 위원회 대책전국국민 총연맹에서는당면한 긴급사항을 토의하기위하여 十五일 오후二시부터 시내사직공원내웅변구락부에서 중앙위원회를소집한다
경향신문	1946-10-31	4	(광고) 男女晝夜學生募集	

			<p style="text-align: center;"> <b>政經學科</b>  <b>語文學科</b>  <b>男女各一五〇名</b> </p> <p style="text-align: center;"> <b>願書期日</b>          自十月二十九日          至十一月十五日       </p> <p style="text-align: center;"> <b>試驗期日</b>          十一月十六日          十一月十七日          外日       </p> <p style="text-align: center;"> <b>男女晝夜學生募集</b> </p> <p style="text-align: center;"> <b>試驗科目</b> 國語・英語・國史・口頭・自體       </p> <p style="text-align: center;"> <b>詳細한問議는本校로</b> </p> <p style="text-align: center;">         서울市鍾路區社稷洞一番地          (社稷公園內)  <b>朝鮮文化大學</b>          電話 ③ 七一五番       </p>
동아일보	1946-12-01	2	<p>投書函</p> <p>(전락)          ◇ 저는 서울사직동(社稷洞)번지 사직공원안건 「방공훈련소」 이든 건물에 살고있는 전제민인데 요지음 이건물에 거주하는 十여세대 전제민들은 모다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 까닭은 「웅변구락부」(雄辯俱樂部)라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문화대학」(文化大學)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교사로 쓰려고 이 건물을 접수하였으니 모다들 끝나가라”고 하며 나중에는 전제민의 식기(食器)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문화대학교장이라고 하는분은 통지도 없이 방으로 드러와 새교사 설치 준비차로 왔다고 전제민 거주자들의 간담을 서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곧 동거자상보회(同居者相保會)를 조직하는 동시에 건물소유자인 시청에 직접 알아보니 「문화대학」과는 아모런 관계도 없으며 사직공우너안에 학교를 세울수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니다 물론 우리들도 전제민이라는 명목으로 생깁이때를 쓰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일은 넘어 지나친 행동이 아닐는지요          (社稷洞一番地 戰災民同居者相保會代表 張俊錫)</p>
동아일보	1947-03-24	2	<p>라이타發火로          文化大學全燒</p> <p>라이타發火로文化大學全燒</p> <p>"라이타"에 휘발유를넋타가인화되어 학교를전소            二十一日하오十二시반경 시내사직동一〇四 문화 대학(前法政校)사무실에서 교원 한태진(韓台振)씨가"라이타"에 휘발유를넋타가 손과옷에흘린것을 모르고"라이타"를켜다가 인화되어 발화하였다 한(韓)씨는 화상을 당하고 三十四평一동四호를전소하고 동一시반경 진화하였는데 손해는 二十七萬원정도라고 한다</p>
동아일보	1947-03-24	2	<p>軍政廳植木          五日社稷公園서</p> <p>봄을맞이하야 혈벗은산에나무를 심으자고하는 녹화운동은 남조선전체에서 활발하게 진전되고있는데 군정청에서는 五일하오두서 시내 사직공원에서 식목기념식을 거행하기로되었다</p> <p>이기념식에는 김규식박사와 러-취소장도 참석할것이라고하며 조선여성대표들이 조미친선과 우의를 돈독케하고저 군정청근무十一명의 미인여자대표에게 묘목을 진정한바있었는데 이날미인여자들이 이나무를심으기로되었으며 만일비가오면 일로 연기될것이라고한다</p>
동아일보	1947-03-28	2	<p>文化大學總會</p> <p>文化大學第一次定期學生總會는 오는三十日午前十時부터社稷洞同校講堂에서 開催하는데 全學生은時間嚴守登壇할것을 要望하고있다</p>
동아일보	1947-04-06	2	<p>萬山の綠化를目標코          昨日社稷公園서植木式舉行</p> <p>萬山の綠化를目標코 昨日社稷公園서植木式舉行</p> <p>五일식목일을 맞이하야 군정청에서는 하오 두시지나사직공원에서 안재홍(安在鴻) 씨등 군정고관외 내빈다수의 참석아래 기념식을거행하였다</p> <p>이어 군정고관을 비롯하야조미 양국여성대표들의 의의깊은 식목이있었다 (사진은 식목광경)</p>

				
경향신문	1947-05-06	2	社稷公園에 孤兒收容所	社稷公園에孤兒收容所 집없는고아들을 위하여불원간 시내사직공원(社稷公園)에고아 수용소를신설 하게되었다고 五일군정청 보건 후생부장은발표 하였다 이수용소는고아원과 감화원에 각각수용 되기전에 임시적으로 수용하는데 사용되리라고한다
동아일보	1947-05-29	2	宋芳憲對朴龍辰 十回拳鬪戰	宋芳憲對朴龍辰 十回拳鬪戰 (중략) 弓術選手權大會 朝鮮弓道協會에서는 朝鮮體育會와 文教部體育課의後援을얻어 六月六,七,八의三日間 社稷公園後錄黃鶴亭에서 第一回全國弓術選手權大會를 開催키로되었는데 申請은六月五日까지 朝鮮體育會에하기바란다
동아일보	1947-06-05	2	全國弓術大會	全國弓術大會 朝鮮弓道協會에서는 朝鮮體育會後援으로 第一回全國弓術大會를 來六月六,七,八의三日間 서울社稷公園뒤黃鶴亭에서 舉行한다고한다
동아일보	1947-06-10	2	檀君殿奉起大會	檀君殿奉起大會 단군전(檀君殿)봉건회 제二차 전국대회는 지난 二十五일부터 시대 사직공원에서 열리어 모든 의안을원만히 토의결정한후 이시영(李始榮)씨를총재로 이청천(李靑天)장군을 부총재로 추대하고 새로운구상과 민족의협력으로 강력하게 국조단군왕검 할아버지를외설 전각건설사업에 매진하기로 되었다고한다
동아일보	1947-09-21	2	文化大學開校	文化大學開校 서울문화대학에서는 그동안학생사건으로말미암아 지난八일개학하기로되었던것이 그대로 연기되었던바 동대학재학생들로서 새로히 건설학생위원회를 결성하고 학원의명랑화를 부르짖는동시학원과 학생들의 도의를 선양하기위하여 노력중 二十一日 개학하기로 되었다
경향신문	1947-10-19	2	社稷公園에浮浪兒收容所	社稷公園에浮浪兒收容所 보건후생부에서는 서울거리를 헤메는 부랑소년중범죄경향(犯罪傾向)이 있는아동을 일주일내지 일개월간 특별수용하여 특수교육으로써 교정하기위하여 시내 사직공원(社稷公園)에 새로히 「부랑아수용소」를설치하기로 되었다는바 수용능력은 一백五十명이라 한다
동아일보	1947-11-23	4	集会	集会 (중략) ◇社稷公園內에있는 雄辨俱樂部는 十二月一日開□三週年을마지하여 同俱樂部를□□코저 幹部會를 開催하기로되었는데 聯絡場所는 陽光九八이라한다 (후략)
경향신문	1948-01-13	2	새少年收容所 社稷公園內에開設	새少年收容所 社稷公園內에開設 서울시당국에서는 고아와부랑소년약二백명을수용할 소년수용소(少年收容所)를 十二일부터사직공원(社稷公園)에개설하였는데 이수용소에는 시후생당국에서임명하는 사회사업가 의사 심리학자 보모 요리인 등 합十六명이 배치되었다고 하며 갱생할수 있는 소년들은 고아원에 보내여 교육을 받도록 할것이라 하며 악질소년은 교정원(矯正院)에 송치하리라 한다
동아일보	1948-01-17	2	朝鮮少年保護資	朝鮮少年保護資金에 「운라」 救濟會서三百萬圓寄附 지난十二일 사직공원(社稷公園)

			金에 「운라」 救濟會서三百萬圓寄附	내에 개설한 소년수용소에는 이미四十여명의 부랑소년들이 들어가 새로운감격에 넘치는 생활을하고있거니와 이수용소는"운라"소년특별자금에 의하여운영하게된 제一차의 사업으로 조선에할당된 자금은약三천만원의거액에 달하며사직공원수용소에는 二백五十만원이배정된것이라고한다
동아일보	1948-01-24	2	少年育成의殿堂 市立中央保護所開設	少年育成의殿堂 市立中央保護所開設 거리에서헤매든 고아들이일단고아원또는감화원에수용되면 그품성이좋은어린이라도 간혹그러한세계에서볼수있는악습을배워버려마침내또다시갱생하지못할길을밧은에 가흔히있어서서울시에서는 이들고아원에수용될아동이고아원에수용되기전에 그품성을 개별적으로과학적심사를하여적의적소의고아원에수용케하려는시립중앙보호소를 二백五十만원의예산으로 시내사직(社稷)공원안에 설치(종래문화대학관자리)하였는데 二十二일관계당국자다수 참석아래뜻깊은 개소식을거행하였다 그런데 이 수용소는 현재 八十여어린이가 수용되어있으나 二백명까지도수용할수있다한다
				
동아일보	1948-02-21	2	旅客援護所移轉	旅客援護所移轉 서울역구내에 설치되었던여객원호소는 十九일 동역남편 새건물로 사무소를옮기고 계속하여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는동시 그동안八十二명의 부랑아를 주선하여 서울 사직공원수용소에수용보호하도록 하였다고한다
동아일보	1948-02-25	2	서울市内孤兒 仙甘島에收容	서울市内孤兒 仙甘島에收容 의지할곳없는"거리의천사"들을수용하고자 지난번서울시에서는 시내사직공원에고아수용소를 설치하였거니와 시와경찰에서는 거리에방황하는 걸인고아들의 갱생을 위하여 해빙기를앞두고이들전부를 수용하기로 대책을세우고있다 즉의지할데없는 이들고아는 서울시내에만 一천내외가있는데 앞으로날씨가따뜻하여감에따라 지방으로부터 모여들것이에상됨으로 三월초순을 기하여 인천 선감도(仙甘島)등 구호기관에 이들을전부 수용할예정이라고한다
동아일보	1948-04-02	2	選舉應援演說隊	選舉應援演說隊 웅변구락부(雄辯俱樂部)에서는 五월九일 선거응원연설에 참가하고자 동구락부전원을 선거응원연설대로 재편성하여 각도별로 파견하리라 한다
경향신문	1948-04-22	2	立候者政見發表會 雄辯俱樂部서主催	立候者政見發表會 雄辯俱樂部서主催 웅변구락부(雄辯俱樂部)에서는 四월二十일부터 三十일까지 서울시내각구 입후보자의 종합정견발표대회를순회개최하기로되었다한다
동아일보	1948-04-24	2	地區立候補 政見發表會	地區立候補 政見發表會 마포구입후보자 종합정견발표대회를二十五일 상오十시아현(阿峴)국민학교에서개최한다  ◇중구(中區)입후보十三인종합정견발표대회는웅변구락부(雄辯俱樂部)주최로二十六일상오八시부터 시공관(市公館)에서 개최하기로되었다 (후략)
동아일보	1948-03-10	2	集會	集會

				<p>◇조선민족청년단에서는제九기생 중앙훈련소 입소식을 금十일하오二시부터 수원(水原)북문의중앙훈련소강당에서열기로되었다고한다</p> <p>◇옹변구락부에서는十일하오五시부터 총선거를응원키위한간부회를 열기로되었다</p>
경향신문	1948-03-10	2	集会	<p>◇民族青年團第九期生入所式(三月十日午後二時水原北門外中央訓練所講堂에서)</p> <p>◇雄辯俱樂部幹部會(三月十日午後五時서울社稷公園內同會事務室에서)</p>
동아일보	1948-04-27	2	集会	<p>◇朝鮮辯護士會서울支會臨時總會는 來二十八日(水)正午同會會議室에서開催</p> <p>◇雄辯俱樂部主催 鍾路甲區立候補者政見發表大會는廿七日上午十時부터 豐文女中講堂에서開催 立候補者 李允榮,朴容來,朴順天,徐相天,金恩培,吳三柱,崔嶺,金大石</p>
동아일보	1948-04-30	2	모임	<p>모임</p> <p>◇梨大家事科同志會(五月一日土曜午後二時 於 新村母校但午後一時頃梨大튜러이和信앞에서待機會費三百圓也)</p> <p>◇鍾路乙區立候補綜合政見發表會(雄辯俱樂部主催로 四月三十日 午後三時부터 蓮池洞 貞信女子中學校講堂에서)</p>
경향신문	1948-10-13	4	"거지"잡이 어제163名을收容	<p>"거지"잡이</p> <p>어제163名을收容</p> <p>거리를떠다니는 어린거지들의처치에골치를앓고있는서울시에서는그한방책으로서작十二일오전六시부터八시까지두시간동안 수도청의 응원을얻어거지잡이를 하였다 직원四十명을 三대로 나노아 「트럭」으로 각지역에 출동하여 一백六十三명을 잡아다가 사직동(社稷洞)에 있는 중앙보호소에 수용하였는데 대개가 七,八세로부터 十七,八세까지의 어린 소년소녀들이라 하며 종래의경험에 비추어 소녀들중에는 성병환자도 많으리라는 듣기에 한심스러운 현상이다 이들은 일단동보호소에수용하였다가 시내각 고아원에배치하리라한다</p>
동아일보	1948-10-20	2	東大門甲區立候補 政見發表大會	<p>東大門甲區立候補政見發表大會</p> <p>옹변구락부주최 동대문갑구입후보자十七인의 종합경전발표대회는 二十,二十一일 양일에걸쳐 개최하기로.되었는데 二十일에는 하오三시반부터 동七시까지 돈암(敦岩)국민학교에서 二十一일에는 하오三시반부터동七시까지 창신(昌信)국민학교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되었다</p>
경향신문	1948-12-01	4	國際雄辯部創設	<p>國際雄辯部創設</p> <p>옹변구락부(雄辯俱樂部)에서는 十二月 一일개강四주년을 맞이 하여새로히 국제옹변부를 창설하리라한다</p>
동아일보	1949-02-24	2	反民者聲討會 廿七日市公館서	<p>反民者聲討會廿七日市公館서 국제옹변대학(國際雄辯大學)에서는 민족반역자성토대회를 서울시내三十여신문사와 옹변구락부후원아래二十七일 오전九시부터 시공관에서 개최하게되었는데 연사는三十여명이라한다</p>
동아일보	1949-03-16	2	集会	<p>集会</p> <p>◇雄辯俱樂部에서는 鍾路乙 區立候補六氏의 綜合政見 發表大會를 다음과같이開催한다 十七日(木)午後三時   五 時 孝梯國中學校에서 二十日(日)午後三時   五 時 校洞國民學校에서 (후략)</p>
동아일보	1949-04-21	2	集会	<p>集会</p> <p>◇大韓勞總全國□山聯盟結成 大會는二十三日午前九時待 天教堂에서舉行한다</p> <p>◇雄辯俱樂部에서는 島山墓 前에서 二十四日追慕雄辯 會를開催한다 (후략)</p>
동아일보	1949-05-07	2	团体行事	<p>团体行事</p> <p>(중략)</p> <p>◇仁旺山早起會=市内社稷洞에있는 雄辯俱樂部에서는 오는 八日 午前六時부터 七시까지 사이에 仁旺山早起會를 開催하게되었는데 一般의 많은 參加를 바라고 있다</p>
동아일보	1949-08-21	2	비안와祈雨祭 市警察局서舉行	<p>비안와祈雨祭 市警察局서舉行</p> <p>요지음 결실기(結實期)를 앞두고 연일 백도에가까운더위가 계속되고있어금년 수확에 영향이 있을까염려되는바 적지않은데 시경찰국에서는 二십일하오십二시반경부터 시내사직공원에서국장이하 각과서장합석리에 기우제(祈雨祭)를거행한바있었다</p>
동아일보	1949-11-26	2	寢具도準備되어 十二月五日엔收容된다	<p>寢具도準備되어</p> <p>十二月五日엔收容된다</p> <p>거리의 거지</p> <p>업동을앞두고 거리에서우글대는"거리의거지"를 일제히강제수용하여 직업의보도와</p>

				<p>근로의정신을배양시켜새로운갱생을피하고자서울특별시사회국에서는 그간만반의준비를갖추어오던바이들을수용할사옥과 침구등도준비되어 오는十二月五日새벽五시를기하여 시청직원과 경찰관이 총동원하여파출소단위로 일제검속을한다음이날자동차로 각각수용하기로되었다</p> <p>그런데 거지가운데十六歲미만의 나이린아이는 시내사직동에있는중앙보호소(中央保護所)에 수용하고 기타거지는시내홍제동의 청소작업장에 수용한다음 청소작업에종사케하고 기타쓰레기통을뒤져 폐물을회수하는거지는 교외청소작업장인 뚝섬돈암동 二촌동 원효로四가동四개소에모라 이곳에서만쓰레기를줍게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다 오랜동안을두고서울의 암적존재이던거지가없어질것인지 극히주목되는데 눈에떠우는대로검속하여 수용할방침이라고한다</p>
동아일보	1949-12-02	2	新刊紹介	<p>新刊紹介 ▼그림 춘향전=安高弘그림 글姜齊換 答 市内社稷洞文化村出版社發行 畧二百圓</p>
경향신문	1949-12-10	2	없어진다乞人떼 十日부터 一齊히收容	<p>없어진다乞人떼 十日부터 一齊히收容</p> <p>국도서울에는 「한푼줍쇼」라고하며 문전걸직하는 거지가 무려 二천여명이나있어 일반에게아름답지 못한감을 주고있는데 서울시 사회국에서는 이들을 일정한 장소에 따로 수용시키고자준비중이던바 나병환자나 쓰레기통에휴지를 줍는거지는 제외하고 금十日 오전六시를 기하여수용에 착수하기로되었다 그리고 제二차는 십三日 오전六시에 그다음은 십六일 오전六시에 轉후三차에걸쳐 대대적으로모으기로 되었다 이번에는모은 거지중에서 어린거지는 중앙보호소로 불구자는 공생원(共生院)과 화광교원(和光敎院)으로 병환자는 순화원과 자애원 청량리밖에있는 너병원으로 각각 수용하리라고한다</p>
동아일보	1949-12-13	2	거리의流浪者 更生되려나? 거지에따뜻한情 市當局集團收容에着手	<p>거리의流浪者 更生되려나? 거지에따뜻한情 市當局集團收容에着手</p> <p>따뜻이 구호하자 거리노동포 보내라 걸인을 자생원으로!"라는글발을 트럭양편에 써붙이고 십일 이른아침六시 밝아오는거리를구석구석기웃거리며 서울시당국의 걸인수용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이날저녁까지 시내각구에서 모아들인걸인六백三十八명이 영천(英川)밖 홍제원(弘濟院)에있는 자생원(自生院)과 사직공원(社稷公園)안에있는 중앙보호소(中央保護所)에 수용되었다 (후략)</p>

- 1950년대

신문명	년월일	면	제목	본문
동아일보	1950-01-01	4	住宅問題解決에總力	<p>住宅問題解決에總力 二百萬市民에여러公約 李市長의새해人事 一백六十萬의식구를거느리고 한해를지난 서울시장(李起봉)씨는 경인년을맞이하여 기장과단독으로만나고"시민에게 이렇다할 아무것도한일이없이새해를 맞게 되어 미안하기 짝이 없다"라고 한다다음 새해에해눌수있는자신있는사업은 먼저시민의 주택(住宅)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고 다음과같이새해구상을말하였다 (중략) ◇社稷公園改修(사직공원개수)=사직공원을완전히개수하여 빠고다공원과같이 수도의공원으로만들계획이다 (후략)</p>
동아일보	1950-01-08	2	市外서모아든乞人 數日間에다시收容	<p>市外서모아든乞人 數日間에다시收容</p> <p>서울시사회국에서는그동안 거리에서 방황하는거지를모아 홍제원에 있는 자생원(自生院)에약一천명을 수용하였고 나이어린거지는 사직 공원안에있는 중앙보호소에수용하여 그들로하여금 갱생의 길을 걸도록지도보호하고있는데 요즘 시외로부터 모여던 거지들이산재하고있으므로 수일내에 다시모아다 전기두곳에수용하리라고한다</p>
동아일보	1950-04-08	2	거지떼又復蟻集 서울市廳 또悲鳴	<p>거지떼又復蟻集 서울市廳 또悲鳴</p> <p>한때차최를감추었던 국도 서울에는거지가또다시범람하고있어시민에게 불쾌한감을 주고있는데 이들은 지방으로부터 매일四,五십명씩 서울로 집중하고 있다한다 즉종래서울에있던 거지 약一천명은 작년겨울에 서울시사회국에서 대부분 몰아다 어린거지는 사직공원에있는 중앙보호소에 나이 많은거지는 홍제원에있는 자생원(自生</p>

				院)에 수용하였는데 이같이 거지가 줄어든 것을 알고 비교적 대우가 좋다는 서울로 각지에서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후략)
동아일보	1951-03-16	2	赤風사라진 『首都서울』의實態	赤風사라진"首都서울"의實態 健在洞建物 서울市廳 法院 德壽宮 半島호텔 社會部 景武台 昌慶苑 國立劇場 被害甚大洞 小公洞 忠武路 西大門 陽洞一帶 市廳 中央廳 南大門 獎忠壇附近 (중략) ▲被害甚大한洞 小公洞一帶 市廳附近 南大門通一部 陽洞一帶 中央廳附近 中學洞 新堂洞 鍾路五街 忠武路1-4街 明洞 獎忠壇 往十里 乙支路2-3 社稷洞 官舍村三國 아과-트 社稷公園,西大門一帶
동아일보	1954-03-30	2	말뿐인浮浪兒團束	말뿐인浮浪兒團束 行悖如前·社會惡助長에도한뭇 當局의無策暴露 收容·保護에技術的貧困도달 (중략) 지난十七일 시내 천여명의 부랑아를 일소하기 위하여 시경(市警)에서는 一주일간에 걸쳐 부랑아를 단속한바있었는데 백六十三명의 부랑아를 사각(社稷)공원 임시천막에 수용하였을뿐 시내의부랑아일소문제가수용소가없어중단상태에 빠지고있다 (후략)
동아일보	1954-05-10	2	強制收容計劃 街頭의浮浪兒들을	強制收容計劃 街頭의浮浪兒들을 거리에 산재하여 오고가는부녀자들의치마에매달려 돈달라는 걸인(乞人)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시경찰국에서는오는십일부터 시내전반에걸쳐서 거지들은붙들어다가 시내사직동 거지수용소에 강제수용할방침이라고한다
경향신문	1954-10-23	2	全國體育大會	全國體育大會 自轉車에또新記錄樹立 弓術,柔道는서울이首位 第三日戰績 第三日을맞이한「全國體育大會」는 二十一日 午前九時부터 서울 運動場과 市内各競技場에서 前日 에이어 續開 되었다 (중략) 한편 中央道場에서의 柔道와 黃鶴亭에서의 弓術은 이날로써 競技日程 全部를 마쳤는데 (후략)
동아일보	1954-12-05	3	『잠자리』와『밥』을준다	"잠자리"와"밥"을준다 飢寒에떠는거리의孤兒 추녀밑에서 기한에떨고있는 서울거리의부랑아에 따뜻함잠자리와조석끼니가 제공케된다이러한 조치는三일개최된사회부경기도 서울시그리고 한미재단등관계관긴급회의에서 결정된것이다 이날회의에서는 경인지구부랑아들에대한 응급조치에대하여 논의한끝에 우선서울에있는중앙아동보호소를 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즉현재중앙아동보호소에는 약二(이)백여명에 달하는부랑아들을 수용보호하고있는데 이번동건물사용에따라 기왕수용된아동들은 지방시설에분산수용하고 기한에떨고있는부랑아들을 이곳에수용키로한것이다 그런데현재경인지구에는 약三백여명에 달하는부랑아가있다고한다
동아일보	1955-01-08	3	郊外로軌道延長等	郊外로軌道延長等 서울市서 새해12個事業計劃發表 서울특별시에서는 작七日 수도서울재건에따르는"시립공원설치""문화부흥""시주변의교통망확충"및"수도확충"등 십二개항의 신년도사업계획을발표하였다 (중략) 시내 社稷동에는 十三세미만의고아를돌보아줄 우리나라최초의"보건병원"을설치할것이라고한다 (후략)
경향신문	1955-04-16	3	浮浪兒收容基金	浮浪兒收容基金 韓美財團에援助要請 十五일보건사회부에서는 한미재단에 대하여 「빠스」 운영 기금중 우선一천二백九十四만五천환의 자금을 수원지구에집결해있는 二천여명 의부랑아수용및 三개 후생시설 개수(改修)비용으로 사용할것을 요청하였다고하는데 三개 후생시설은다음

			과같다 ▲경기도=선감원(四八〇萬圓) ▲서울=중앙아동보호소(四二九萬五千圓) ▲경기도=천우원(三八五萬圓)
경향신문	1955-10-30	3	하루平均四名씩 늘어가는棄兒·迷兒處理에골치  서울시에서는 하루평균 三,四名씩 생기는 「기아」(棄兒)와 「미아」(迷兒)처리로 머리를 앓고있다 사관내의三十六개소고 아원및 영아원의 수용능력은 二천여명에 불과하나 현재五천一백十八명을 수용하고있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중략) 이를 받아들일서울시의 사회사업 시설은 「아동불구자수용소」가一개소 「고아원」이三十개소 「영아원」이三개소 「탁아소」一개소등인데 매일같이 늘어만가는 어버이없는 가련한 「어린이」를 수용할만한 능력이 없어 부득이 시내 사직동에 있는 중앙보호소에 임시보호를 해오던 터이었다한다  그런데 현재 중앙보호소도 一백五十명밖에 수용할수없는 시설이면서도 二백五十명을 무리로 수용하고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는 동보호소에 맡길형편도 못되는 딱한공공에빠져 「집없는 길거리의천사」로방임시킬도리밖에없는것으로 보인다 (후략)
동아일보	1956-02-11	3	서울에孤兒病院 社稷公園內에新築 서울시내고아들의 질병을치료하기위한 기관으로서 서울시당국에서는三,八〇〇만환의예산으로"시립아동보건병원"건립을추진   작一〇일하오二시 시내"사직공원"인근대지에서 기공식을거행하였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추산약6천명의 고아들이있는데 이들의 치료기관으로등장케될 동"아동보건병원"은 총건평二〇四평의 二층건물(一層=一〇五坪 二層=九九坪)로서 본관 진찰실 회의실 X광선실 등 근대식 치료기관으로 건립될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56-02-11	3	兒童保健 病院起工  서울 특별시 에서는 「시립어린이보건병원」의기공식을 十일 하오二시시내사직공원안에있는현장에서거행하게되었다
동아일보	1956-02-12	3	李大統領夫人이 孤兒에菓子膳物  李大통령부인은 구정을 하루앞둔 작십一일불상한 고아들에게 과자十五상자를 보내었다이선물을받은 서울시에서는 이날하오한시반금시장이"아동보건병원"과"중앙보호소"를 찾아 전달하였다
경향신문	1956-09-23	3	市立保健病院竣工 26日,落成式舉行키로  그동안공사중에있던시립보건병원(고아환자수용병원)신관의낙성식은오는二十六일하오二시시내사직동의동병원마당에서거행되리라한다  낙성될동병원건물은 시비 三천八백만환과AFKA로부터 一만四천四백六十二 불에 해당하는 세멘트 목재 철근등의 원조물자로 지난二月十日 준공한 것인데 동건물 준공으로 약二백명의 고아환자를 수용할수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56-11-23	3	议会万像 그대로萬病通治黨인듯 요즘流行·말하고도"안했다" 서울市議  ◇---겨울철은닥아오고 구호대책은막연하여 수많은세국민들이연이어 시당국에호소하고있는 이때 「시의원」 신분을 힘껏이용하여 洪사회보건분과위원장은 社稷공원 근처 빈터에고아들을 수용케하는데 성공하는가하면 金秀吉의원은 정백도합 六십八가마와 의류 一백점을 普門동일대주민에게 보내주어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버린 주민들을 감격케하였다고. (후략)
동아일보	1957-06-27	4	市內名所巡礼 (4) 社稷公園 壇蹟이보일뿐 거 칠은廣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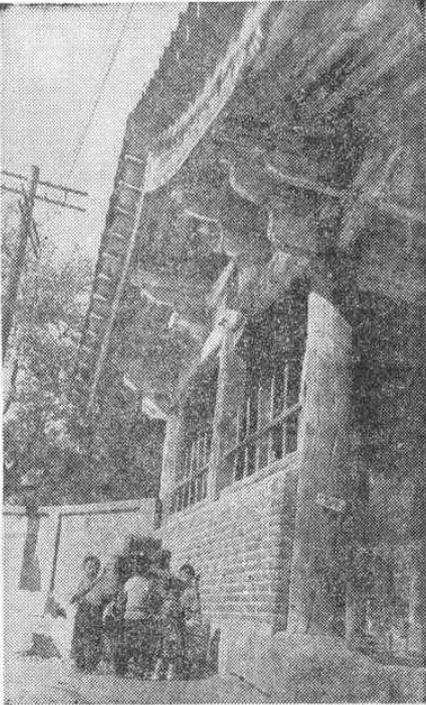
			<p>"社稷公園"하면 그 근처 彌雲·社稷洞에서 聯想되는것은 지난날 歷史상의秘話들이다.</p> <p>즉"彌雲洞과 鰲城"과 肅宗때의"南人大慘禍事件"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前者는 저 유명한 오성부원군의 出生地로서이고 後者는 "社相"(사직동정승)이라고까지 부르던 許積의 勢道와 그후 그의 庶子 許堅이 逆謀하므로 許積 一門을 위시하여 南人 一派가 大慘禍를 당하게 된 일이다.</p> <p>社稷公園은 一九二一年(三·一운동중후)十月에 設立된곳으로 본래 그 자리는 李太祖三년에 社稷壇을세우고 봄·가을로 큰제사를 지낸 것으로 비롯한다.그큰제사란 것은 土地神과 穀物神을 받드는 것으로 그 來歷은 新羅中葉에 始初했다고한다. (중략)</p> <p>옛날에는 나라最高的 藝術을 다하여 세워졌던 社稷壇은 지금은 壇蹟이 보일뿐 거칠은 廣場이다. 간신히 남아있는 大門이 단청도 退色된채서있고 公園안의 樹木하나 제대로 保護되지않은채모든 것이 放置되어있다.</p>
동아일보	1957-08-15	3	알림
경향신문	1957-08-17	3	메가폰
			<p>알림 ◇ 「社稷學院」開院式=一五日下午三時 社稷公園에서   ◇女性教養「映畫및音樂鑑賞會」十六日上午一〇時公報室公報館에서  </p> <p>메가폰</p> <p>▼市立兒童保護所着工=시에서는 부랑아동을수용보호하기위해 서대문구응암동(鷹岩洞)에있는 一만五천평의 대지에다 二천四백三十여만환으로 수일내에 제一차공사에 착수할것이다 약二개월예정인 동공사가 준공되면 五백명을 수용할수있는 숙소·식당·의무실등이 마련될것이다 (후략)</p>
경향신문	1957-08-18	2	一年에四萬乃至五萬名
			<p>一年에四萬乃至五萬名 結核으로인한全國의死亡者 骨結核 까지도</p> <p>十七일 보건당국 관계자로부터 알려진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一年에 四만내지五만명이 결핵병으로 사망하고 있는것이 밝혀지고있어 이에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을 요하고 있다. (중략)</p> <p>◇--시내사직동(社稷洞)시립보건병원에 입원중인 고아환자 八十三명중 三十一명이 결핵에 걸려 누워있다 (十七일현재) (후략)</p>
			
경향신문	1957-11-18	3	來年度엔 徵稅事務強化
			<p>(전략)</p> <p>▲孤兒患者爲해난房施設=시립보건병원(시내社稷洞소재)에수용중인고아환자(대부분이결핵)를위한 난방시설을 근일중 착공한다 동공사는 재한미국인 부인들의 주선</p>

				으로 만四천 五백여불의 원조자재와 시비 四백만원으로 이룩될 것이다
동아일보	1958-10-31	2	서울都市計劃大 幅變更	<p>서울都市計劃大 幅變更 既存建物撤去않도록 明年부터三年안에實現豫定 서울시에서는 종래 서울시가지의폐허를 전제로하여 釜山에서 만들어졌던「도시계 획」 기존의건물을허물어야하고 일반민가를철거하여야만되었던비현실적인 「도시 계획령」을제정하여 기존건물을피하고 一般민가점포등을 철거하지않는원칙아래 대폭변경하였다</p> <p>이러한 「서울도시계획변경」은 三〇일오후내무부에서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승인을얻음으로써 결정을보게된것인데 許서울시장은 31일 전기 「서울시도 시계획령변경」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나의 취임시 시민에게 공약한 사업중의 하 나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도시계획변경」은 주로서울 시내 간선(幹線)도 로 공원등에 관한것으로서 종래 계획에 들어있던 33개간선도로중 폐지개8개 신설 이7개 축소가5개 그리고확대가3개로되어있다 (중략) 三, 종래 世宗路 광장에서 社稷 공원으로 가는 四〇미터 계획도로를 폐지한다</p>
경향신문	1958-12-17	3	藥品二千弗分 傳達 兒童病院 에	<p>藥品二千弗分 傳達兒童病院에</p> <p>시립 아동병원 구호회에서는 十六일 상오十一시 짓가二천 불(弗)에해당하는 약품 을 아동병원에전달하였다</p> <p>사직동에 있는 아동병원을 구호하는 이모임은"다우링"미국대사부인이 명예회장이 며 "테그로트"회장을 비롯한 내외명사부인 三十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p> <p>시립아동병원에는 고아환자 一백여명이있다</p>
동아일보	1959-11-26	3	李大統領視察 砂防工事狀況	<p>李大統領視察 砂防工事狀況</p> <p>李大통령은 二五일하오三시반 시내 社稷洞공원뒤에있는 黃鶴亭근처산에올라가 사 방공사가 실시되어가는 상황을 시찰하는한편 약三〇분간에걸쳐순수 사방공사를 하였다</p>

- 1960년대

신문명	년월일	면	제목	본문
동아일보	1960-02-20	3	老人亭을建立 서울市内各區에	老人亭을建立서울市内各區에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주요사업의 하나로 시내각구에 一개소씩의 노인정(老人亭)을 세우게될것이라고 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一천八백만원인데 이로써세워질 노인정은 다음과 같다.▲중 로구사직공원▲중구인현공원 (후략)
경향신문	1960-07-23	3	오늘이大暑 철만난 꼬마들	오늘이大暑 철만난 꼬마들

			<p>물장구치며 더위있고</p> <p>○--- &lt;풀&gt; 속에 뛰어들 하동(河童)들의 피부에 윤기가 흐른다. &lt;꼬추&gt; 까지 드러낸 꼬마들이 마냥좋아서 물장구를 치고 구슬같은물거품이 복중(伏中)의 하늘을향해 곤두박질을 친다.</p> <p>○---시내 五개소의 공원에는 &lt;어린이풀&gt;이 어제 22일 하오 3시 일제히 개장되어 더위에 시달리는 꼬마들의 친구가 되었다. 30환만 내면 하루종일 &lt;물친구&gt;와 놀수가 있는것이다. (후략)</p>
동아일보	1960-07-24	4	<p>공원에아동풀 우선 세군데부터</p> <p>서울시에서는 금년도사업계획의 하나로 시내일곱개의 공원 안에 설비중이던 어린이 풀이 완성되어 二十二일 그중의우선 세군데의 문을 열었다. 이풀은 오전九시부터오후 七시까지 주로 국민학교 아동을 상대로 열게되는데 두시간에 三十환씩 받으며 그풀이 있는 공원 이름은 다음과 같다.</p> <p>▲장충단공원▲답동공원▲인현공원▲사직공원▲삼청공원▲북정공원▲영등포공원.</p>
조선일보	1960-07-24	4	<p>「어린이풀」 생겼다. 서울시내 7개 공원안에 두시간 노는데 30환씩</p> <p>서울시내 7개공원안에 설비중이던 「어린이풀」이 완성되어 지난 22일부터 쓰게 되었다. 이 「어린이풀」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누구나 놀 수 있는데 입장료는 2시간에 30환씩 받는다. 「풀」이 있는 공원은 다음의 일곱군데이다.</p> <p>▲장충단공원▲답동공원▲인현공원▲사직공원▲북정공원▲삼청공원▲영등포공원.</p> <p>한편 서울시내 여학생들만이용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뚝섬수영장은 오는 25일부터 열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는 약1백만환의 예산을 들여 여학생수영장의 모든 시설을 갖추어놓았다 시교육위원회에서는 23일 하오3시에 갖을 여학생수영장개장식(開場詩泳式)에 시내각 여자중학교수영반 학생들을 참석시키리라 한다.</p>
동아일보	1960-08-08	3	<p>손질안되어갈수록荒廢 버림받은 『社稷壇』</p> <p>버림받은"社稷壇" 손질안되어갈수록荒廢</p> <p>태조三년에 건립되었고오늘날까지 유서깊은 고적의하나로 남아있는 「사직공원」의 社稷壇에는관계당국이 거의방관하다싶이 하는가운데 어린이들이 철책(鐵柵)안까지넘어들어가서 놀고있어 나날이 손상되는실정에 있다</p> <p>사직동막바지에는 지금도 국사단과 국직단의 자취가 남아있으며 현재 「사직공원」의 정문처럼서있는 문사(門舍)는국보로 정해져있는것인데이문사에는 선거때마다입후보자들의 포스타가 여기저기붙여져있는가하면심지어 각종광고물까지못박힐 때가 있어 국보의존업성이 전혀상실되어있을뿐아니라 철책을 四방에 쳐놓은 사직단안은 풀이무성한채 어린이들이 들어가 놀고있으며 사직단의 유일한 흔적인돌바닥위에 앉아서 놀고있어차츰손상되어가고있는 것이다</p> <p>이러한실정에대하여 一소풍객은 당국에서좀더적극적인 보호시책을쓰기를바란다고 말하면서 문사의철을 다시하고 철책안의풀을깎는것쯤은 예산을얼마쓰지않고도 할수있는문제일것이라고 말하고 있다</p> <p>◇社稷壇의由來</p> <p>현재 사직동 막바지에 國社壇과 國稷壇자취가아직도남아있다 사직공원의정문과도같이 특색있게서있는 문사(門舍)는지금국보로 정해져있지만 그문안에 베풀어진 「사단」과 「직단」은 바로신라때부터의제도를 모방해서꾸며진것이다</p> <p>사직단은 태조3년에베풀어졌으며 宗廟와함께소중하게 여겨졌던답답에그제사를 대사(大祀)라고했으며 사직의사단은 국가로서 국토를제사지내는곳이며 직단이라함은 국가로서 오곡(五穀)을제사지내는 곳이었다</p> <p>또 때로는 풍년이들도록 기곡제(祈穀祭)를 올리고祈雨祭도 이곳에서 올린예가있다</p>
동아일보	1960-09-29	3	<p>사직공원에서개최한 교조대표자대회광경</p> <p>사직공원에서개최한 교조대표자대회광경</p>

				
동아일보	1960-11-10	4	文化財 實態 (3) 퇴색한 社稷門	<p>文化財 實態 (3) 퇴색한 社稷門  "더우면 고지 피고치우면 님 디거늘 솔(松)아 너는 어이눈서리를 모로□다"  라는 옛 時調의 한句가 생각난다. (중략)  이 至高至尊한 存在가 불에 타 간곳없고 老人들의 장기터와 아회들이 놀이터가 되고말았다. 오직 옛날을 외로히 말하는듯 퇴색한 모습을 하고있는 것은 社稷正門 뿐이다. 社稷門을 의지하여 온갖 장사치들이 우글히 모여있기도 한다. 때로는 公衆便所로 代用되는 것인지 똥, 오줌이 기둥을 둘러싸고 널려 있다. 그뿐이라! 風雨에 개와가 덩굴어 떨어지고 비가 습새어 七色이 영롱하였을 丹青은 먼지와 거미줄이 얽혀 찾아볼 길조차 없다. (후략)</p> 
동아일보	1961-02-17	3	防犯에 立體的 對策 세워 54개 虞犯地帶  설정	<p>防犯에 立體的 對策 세워  54개 虞犯地帶  설정  刑事隊배치·機動隊는 流動순찰  서울시경 수사과에서는 시내 五四개 지역을 우범지대(虞犯地帶)로 결정하고 관하  一개 경찰서에 이우범지대에 주 야를 막론하고 (후략)</p>
동아일보	1961-06-13	3	六百名을 摘發 無斷入山團束	<p>六百名을 摘發  無斷入山團束  서울시경에서는 기마대로(기마二〇필)하여금 南大門서 中部서 지원아래 지난九일부  터 무단입산자계몽지도기간(一五일까지)을 설치하고 시내一원에 걸쳐 단속한결과  一二일 현재 도합(후략)</p>
동아일보	1961-09-19	2	서울市民慰安의 밤 18일부터30일까지	<p>서울市民慰安의 밤18일부터30일까지 서울시는 一八일부터三〇일까지 시내一원에  걸친순회시민위안의 밤을마련하고 극영화 시경기록영화를 상영한다는데 첫날인  一八일밤에는 社稷공원과 城東구청구국민학교에(후략)</p>

동아일보	1961-12-27	3	어제開院 市立 嬰兒院	어제開院 市立嬰兒院 시립영아원(嬰兒院)이새로이 설립되어 二六일하오二시 金부시장을 비롯한 많은인사가 참석한가운데 개원 「테이프」가 끊어졌다 시립중부병원 안에 임시로 자리잡은 이영아원은 약二〇〇명의 영아를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시립시설로서 한살부터 세살까지의 무의무탁한 영아들을 보호육성하기위해 마련된것이다
동아일보	1961-12-28	4	무의탁어린이보호 시립 『영아원』 신설	무의탁어린이보호시립"영아원"신설 「서울 특별시」에서추진하여오던 「시립영아원」이 설립되어 二六일오후 두시 김부시장을 비롯한 관계되는 분들이참가한 가운데 개소식을거행하였다. 「시립 중부병원」에 임시로 자리잡은 이 「영아원」은 약二〇〇명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한살로부터 세살까지의 의탁할곳없는 갓난어린이를 보호육성하게 되는곳이다
동아일보	1962-05-07	3	和暢한黃金休日 古宮으로·山野로人波數十萬	和暢한黃金休日古宮으로·山野로人波數十萬 〇---6일 서울시내의여러고궁과 교외의유원지는휴일을즐기려고 쏟아져나온 여러십만의인파로 들끓었다 立夏이자 「觀光의달」에 접어들어 첫번째일요일이고매마침 「(후략)」
경향신문	1962-12-26	6	결방살이免할 嬰兒院 사직公園 옆에新築키로	결방살이免할 嬰兒院 사직公園옆에新築키로 시립 중부병원 청사안에서 결방살이해오고있는 시립영아원은 곧 모든 시설을 갖춘 자기집을짓고 나가게되였다. 서울시는 새해초에 시내 「사직공원」옆에있는 시립아동병원 경내의대지 약2천평에 이 시립영아원을 세우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립영아원은 중부병원 2층에 난방장치나 수도시설이 없는 판잣집을 사용해 왔었다. 새로 마련된 영아원청사는 2천7백여만원의 돈을 들여 현대식 시설을 완비한 병원을 결합 영아보호소가 되는 것이다. 새 청사가 완공되면 현재의 수용능력인 1백50명을 훨씬 넘는 영아들을 수용보호하게 될 것이다.
동아일보	1963-01-18	6	第二級國寶386點	第二級國寶386點 指定된"寶物"名單 「文化財保護法」에따라 文教部文化財委員會가 새로寶物로指定한 三八六點의名單은다음과같다. 舊國寶中에서同法에依한 「國寶」指定에서 解除된것을 「寶物」로指定한것이다. (중략) ▲一七五,松慶寺經碑▲一七六,同金銅搖鈴▲一七七,서울社稷壇正門▲一七八,傳燈寺大雄殿 (후략)
동아일보	1963-01-23	8	社稷公園안에 現代式 嬰兒院 건축	社稷公園안에 現代式 嬰兒院 건축 棄兒迷兒收容保護 中流家庭以上の處遇 50餘名の保姆·看護員等配置 서울시 보사국은 오는4월 九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초현대식 영아원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영아원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기아,미아등을 모아 수용할 예정으로 우선 건축예정지로 社稷공원구내를 선정했다. 이곳을 선정하게된 이유는 대개의경우 기아나 미아가 질병을 갖고있기때문에 社稷공원안에있는 시립아동병원을 거쳐 수용하기 편리한 지리적조건을 고려하였다.
동아일보	1963-01-29	7	史蹟指定	史蹟指定 第一號엔慶州鮑石亭址 大幅整理 百21點으로 〇--- 「사적」(史蹟)一백二십一개소가 지정되었다. (중략) ▲一二〇=固城內山里古墳群▲一二一=서울社稷壇
동아일보	1963-02-14	8	市立 嬰兒院에 答 在日 僑胞 金 씨 傳達	市立 嬰兒院에 答 在日 僑胞 金 씨 傳達 지난9월 모국방문중시립영아원을 시찰하고 돌아간 재일교포 金주봉씨는 13일 동영아원에 答요一백七십매를전달했다.
동아일보	1963-06-14	8	塔洞·社稷公園 어린이 『풀』 開場 入場料 3원	塔洞·社稷公園 어린이 『풀』開場入場料3원 「과고다」공원과 社稷공원내의 어린이 「풀」이말끔히 손질되어 15일부터 개장된다. 입장료는三원.
동아일보	1963-06-15	6	공원 『풀』 열어 15일 시내 두 군데	공원 『풀』 열어15일 시내 두군데 중로구청에서는 여름철을맞이하여 과고다공원, 사직공원안에있는 어린이풀을 말끔히손질하고 15일부터 개장하였는데 입장료는三원이다.
동아일보	1963-06-21	8	社稷公園에 嬰兒院 建立	社稷公園에 嬰兒院 建立 서울시는 시립영아원신축공사를 21일착공했다. 총八五六만원의 공사비로 社稷공원안에 세워질이건물은 연건평一천六四평방 「미

				터」,철근「콘크리트」 4층으로 오는10월말 준공될 예정인데 현재 4세미만영아 백5십여명을 수용하고있는 병원내의 가건물을 쓰고있어 신축공사가 끝나는데로 원아를 옮기게된다.
경향신문	1963-06-21	6	市立嬰兒院 사 직公園에着工	市立嬰兒院 사직公園에着工 서울시는 21일 시립영아원 신축공사를 착공했다.사직공원안에 세워지는 이영아원은 1천64평의 터에철근「콘크리트」 4층으로짓는데 공사비는 8백56만원을 들이게 된다.
경향신문	1963-07-03	6	市立嬰兒院이전 婦女保護所內로	市立嬰兒院이전 婦女保護所內로 서울시는 시립중부병원안에있는 시립영아원을 동병원 수리공사때문에 4일부터 전 시립부녀보호소자리로임시이전하기로했다. 임시로 옮기는 자리에는현재 사직공원에 신축중인 영아원 새건물이 준공될때까지이다.
동아일보	1964-04-04	7	社稷公園用地를 拂下 個人에二萬九千坪 地籍圖變 造嫌疑도	社稷公園用地를拂下 個人에二萬九千坪 地籍圖變 造嫌疑도 이미根抵當으로千餘萬원融資 서울社稷공원의땅 한덩어리가 개인에게 불하되었음이 밝혀졌다. 재무부는 지난1월공원용지인 社稷동山一의 一번지 땅二만九千坪을 金永東(중로구누상동1-5)씨등五명에게 269만7천890원에 불하했는데 도시계획법제48조에 의하면 공원용지는 매매할수없도록 규정되어있다. 불하된 社稷동山1번지땅은 공원용지일뿐만아니라 그위에 성곽이있어 문교부의 보호관리지이며 또 농림부의 보호임야이기도한데, 작년말 문교부가 갑자기보호조치를 해제했을뿐 서울시에서 공원용지해제결정을 내린일도 없고 농림부에서도 역시 보호임야에서 제외한일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도시계획국이나 鍾路구청의 지적도에 의하면 그땅은 분명히 공원용지로 표시되어있는데, 불하신청서류에 붙여진 지적도엔 풍치지구로 표시되어있어 지적도변조의 의혹도 짙다. 더군다나 서울관제국은 그업무를 사세청에 인계하기 바로전날인 작년12월 16일, 불하에관계된 서류작성을 모두끝내고 光化門세무서에 매수요구서를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져 의혹은점점질어갈뿐이다. 지난1월22일 269만7천890원을 일시불로내고 社稷공원땅을 불하받은 이들다섯명은 29일 東洋不動産주식회사에 이를 이전했으며 2월4일엔다시 金永東씨명의로 이전등기, 현재에 이르고있는데 2월5일엔 東洋鐵鑛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그땅을 商業은행에 근저당(根抵當)하고 650만원을 대부받았으며 2월9일엔 또 560만원을 대부받았다.
동아일보	1964-04-06	7	原狀回復할터 公園用地拂下 서울시서強硬	原狀回復할터 公園用地拂下 서울시서強硬 속보=6일상오 尹致暎서울시장은 社稷공원용지불하사건에대해"관계자로부터금 진상을조사중에있다"고밝히고"부당한 불하결정을시정,기어이 원상회복시키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尹시장은"불하된 社稷공원용지는 국유지로서 불하해준 그사실만은 시와 관계가 없지만 도시계획법을 어긴 부당한처사를 그대로둘수없다"고강조,"앞서 말했던 漢江택지불하사건도 이번에일괄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시도시계획국 韓鼎變 계획과장은 "지적도의 지목(地目)변경을 앓고서는 공원용지를 불하할수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64-04-06	7	財務部서取遣示唆	財務部서取遣示唆 6일 재무부는 사직공원용지의 일부불하문제에관하여 종로구청에 보관된 지적도와 이번발행된 지적도와와의 내용이만약에다를경우에는 동불하를취소하겠다고 그태도를밝혔다.
동아일보	1964-04-06	7	鍾路署서搜查	鍾路署서搜查 6일상오 서울鍾路署는社稷공원용지 불하사건의내막내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1964-04-08	1	社稷公園 不正 拂下를追窮	社稷公園 不正 拂下를追窮 金議長의兄 關聯說도 國會本會議 國會는 8일本會議에서「社稷公園不正拂下事件」의경위를 규명키위해 朴東奎財務·閔復基法務·高光萬文教長官·鄭南圭農林次官등 四部長次官을불러 "이事件은 賣國의 행위일뿐만아니라 政治黑幕이 介在해있으며 또다시 이런사건이 일어나지않도록 對策을 세우라"고 추궁했다. (후략)

동아일보	1964-04-08	7	눈먼 國有地拂下	눈먼 國有地拂下 社稷公園用地사건을 契機로 본問題 點獨占의인管理權限管財當局不正도 쉽게 빠지는監視節次 ○---개인에게 불하되었던 社稷공원용지는  재무부의 불하취소지시 (후략)
동아일보	1964-04-08	7	問題의公園用地는 追加담보物에不過 商銀側解明	問題의公園用地는追加담보物에不過商銀側解明 ◇상업은행 河震壽전무담=社稷公園용지불하자체를 담보로하여 용자한것은 아니다. (후략)
동아일보	1964-04-08	7	서울地檢서搜查	서울地檢서搜查 七名召喚,建築證明變造혐의 8일상오 서울지검李宅珪부장검사는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 수사에 착수,공원용지를 풍치지구대지인양 변조불하받은金永東(서울樓上동山一의五)씨등 七명을소환 조사중 (후략)
동아일보	1964-04-08	7	財務部서 拂下取消	財務部서 拂下取消 서울司稅廳두幹部 待機發令公園用地拂下 속보=재무부는 문제가된 社稷공원의 용지불하를 취소하라고 6일하오서울사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날이와같은지시는 도시계획법제四八조에 의거하여 도시구역내 공원용지는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후략)
동아일보	1964-04-09	7	관계자徹夜審問	관계자徹夜審問 서울地檢嫌疑드러나면 모조리拘束 社稷公園용지拂下사건 속보=9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제三부(李宅珪부장검사,金鎮佑,孫宇榮,金炳河검사)는 불하에관여한 (후략)
동아일보	1964-04-10	1	與·野國會調委構成案제출 軍政下의 國月地拂下疑惑추궁	與·野國會調委構成案제출軍政下의國月地拂下疑惑추궁 與·野國會調委構成案제출軍政下의國月地拂下疑惑추궁·比率엔異見與=社稷公園·東九陵·水踰里만野=孰岩洞道路·王室財産 包含 社稷公園用地拂下사건이 政治문제화된것을 계기로 與野는 다같이 (후략)
동아일보	1964-04-10	1	"不正拂下 依法處斷할터 大檢表明 政治的壓力받지않는다"	"不正拂下依法處斷할터大檢表明政治的壓力받지않는다" 大檢察廳金炳華次長檢事は 10일 방금서울지검에서 수사중인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비롯하여국회에서 난난된 三清공원南山·漢江·水踰리등 국·(후략)
동아일보	1964-04-10	1	不正關聯者嚴斷 閱法務長官에 朴大統領指示	不正關聯者嚴斷閱法務長官에朴大統領指示 朴正熙大統領은 9일하오 閱法務長官과 申檢察總長을 靑瓦臺로 招致,社稷公園拂下事件수사中間報告를들었다. 朴大統領은 이사건을조속한시일내에조사하여 不正관련(후략)
동아일보	1964-04-10	1	共和黨도 調査關聯된黨員은 除名嚴斷키로	共和黨도 調査關聯된黨員은除名嚴斷키로 共和黨은 社稷公園用地拂下사건을계기로 國公有地拂下에개제된不正을 국회에서의 조사와는 별도로 黨에서도 조사하기로방침을 세웠다. 金鍾泌黨議長은 9일철저히조(후략)
동아일보	1964-04-10	2	共和黨도 이젠 금이갔다	共和黨도 이젠 금이갔다 ◇---"이젠 共和黨에도 금이 갔다"고 野黨의원들은 10일 企劃院長官및 農林長官解任것의안의  표결을 끝내고좋아했다. 지난번 內務解任건의안때도 二十餘名의 叛亂者가있어 질겁을했(후략)
동아일보	1964-04-10	7	銀行·管財局수사	銀行·管財局수사현값으로鑑定與否추궁4名召喚公園用地拂下사건 속보=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李宅珪부장검사·金鎮祐·孫宇榮·金炳河검사)는 10일상오문제된 二만三천여평(후략)
동아일보	1964-04-11	1	「歸財」拂下에도 黑幕 上道洞 九萬坪(時價五億圓)에 얽힌曲折	「歸財」拂下에도 黑幕上道洞九萬坪(時價五億圓)에 얽힌曲折權力背景---不法私有化某機關員解任,壓力으로搜查도中斷銀行貸付받아政治資金으로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사건으로 爆發하여 國公有地拂下疑惑으로(후략)
동아일보	1964-04-11	1	횡설수설	횡설수설 ◆"愛國心은自然에의 愛情으로부터시작된다"고했다. 이말은 곧자기가 살고있는地方의 산·내·골짜기·숲들에서느끼는 愛鄉心에서出發,나라안의모든景致와 風物을사랑하고,따라서 國土안에있는풀(후략)
동아일보	1964-04-11	7	時價의1/10 餉값으로鑑定	時價의1/10餉값으로鑑定 또 4名拘束·모두6名收監 社稷公園用地 不正拂下事件 속보=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李宅珪부장검사·金鎮祐·孫宇榮·金炳河검사)는10일밤서울사세청감정과주사 박해일(38=용산구 청과동 2가 90)·재무부관리과주사 신병식(용산구 신계동 1-159)·한일은행감정역 남익희(51=서대문구 신촌동 70-50)·조흥은행 감정과 감정역 구분각(34=용산구 도화동 318-22)씨등 4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 서울교도서에 수감했다. 이른 문제의 공원용지(사직동 산1-1)불하에 앞서 서울시 관재국으로부터 짓가

			<p>감정을 의뢰받자 4명이 공모, 현장답사도 안하고 깃가2천9백47만5천원짜리를 222만원 내지 382만원이란 깃가의 10분의 1에 불과한 헐값으로 감정, 국고수입에 2천6백여만원이나 손해를 끼쳤고 또한 가격사정날짜를 작년12월16일자(서울관계국폐지이전)로 고친혐의도 받고 있다.</p> <p>검찰은 이들의 증수회관계와 보다 고위층의 배후유무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보관중이던 거물급인사들명함 20여장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검찰은 사건수사 3일째 모두 6명의 관련혐의자를 구속했는데 앞으로 배후관계를 파헤치면 사건은 더욱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p> <p>11일상오 현재 이사건으로 6명이 구속되었다.</p> <p>&lt;韓一銀·朝興銀&gt; 鑑定課長등 召喚</p> <p>한편검찰은 11일하오공원용지를 감정한 韓一은행과 朝興은행의 감정과장과 차장등 관계자 4,5명을 소환심문한다.</p> <p>10일밤 구속된 南翼熙(韓一은행)·具本珥(朝興은행)씨등 감정역들이 시가보다 싸게 감정한 것은 감정의퇴축이 고객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보다 높은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동용지감정에 관여했다가 가구속된 재무부 및 사세청의 직원들은 "상부지시에 의한것이였다"고 진술했다한다.</p>
동아일보	1964-04-11	7	<p>姜씨가받았던名啣20장押收 1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서울지검 형사二부는 구속된 전서울사세청재산관리국장 姜信庚씨가 제직시 받아두었던 명함二〇여매를압수했는데 이중에는 金모,安(후략)</p>
동아일보	1964-04-13	1	<p>政府,國有地不正拂下·公務員腐敗自認  곧某種 強力措置있을듯 13日아침異例의인 國務會議召集"國民의怨聲直視하라"朴大統領社稷公園不正拂下真相公開도指示 朴正熙大統領政府는 최근 말씀이되기시작한 國公有(후략)</p>
동아일보	1964-04-13	2	<p>彌縫이나,決斷이나   共和黨의活路를論한다   어떠한政黨을 國民이 願하는가. 무엇이 健全한 政黨이나하는것도 國民各自의 見解가 一致하기  어려우問題겠지만,"健全한與黨과 健全한野黨"을 가지기를 國民이(후략)</p>
동아일보	1964-04-13	2	<p>交響樂... 『拂下變奏曲』 ◇---國公有地拂下문제등 權力和利權의 結탁에대해서 13일아침 野黨의원들은 憤慨에찬話題로 熱을 올리고있었다. "이것보슈!社稷공원등 壘地拂下는 옛이야기고---蔚山精油工場에서나올(후략)</p>
동아일보	1964-04-13	7	<p>懸賞金 10萬원 金永東씨등 逮捕·申告者에 13일상오 檢찰은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장본인인 金永東(38=東洋不動產·東洋鐵鑛社長)金寅泰(39=東洋不動產常務)양인을체포 또는 소(후략)</p>
동아일보	1964-04-13	7	<p>某黨幹部도關聯? 某黨幹部도關聯?名啣에有力한資料의"메모"가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檢査서 搜查綜合 검토 13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서울지검 형사二부(李宅珪부장검사,金眞祐,孫宇榮,金炳河검사)는 지(후략)</p>
동아일보	1964-04-14	1	<p>公園拂下와無關 安東濬議員發言 公園拂下와無關安東濬議員發言 社稷公園 不正拂下事件에  관련된  혐위를받고있는 共和黨의 安東濬의원(槐山)은 14日財經委에서"전혀  그런일에  관련된일이  없다"고  身上發言을했다.  安의원은今年2月末"친구의(후략)</p>
동아일보	1964-04-14	1	<p>형설수설 ◆社稷公園을비롯한  일곱개의國·公有地不正拂下에따르는  公務員들의腐敗相이  속속  드러나자,  朴大統領은  매우怒했다.  그리고  政府當局도  共和黨도  창황망조해졌다. 「百孔千瘡」의行政亂脈과  극(후략)</p>
동아일보	1964-04-14	3	<p>搜查 難關에 逢着 搜查 難關에 逢着5個地區 國·公有地不正拂下 赦免令·證據湮滅등으로檢査서도是認"拂下經緯 밝혀疑惑은 풀겠다"關係書類가  불타"위켜·힐"땅과마꾼經緯등迷宮神道面市有地處分의경우  檢찰은  社稷공원을  비(후략)</p>
동아일보	1964-04-14	3	<p>搜查이틀...그狀況 &lt;搜查이틀---그狀況&gt; 13日  國·공유지부정불하사건의  일제수사에착수한  檢찰은  14日현재각부별로  수사를  벌이고있는데  그수사상황은  다음과같다.  社稷공원용지  형사二부(李宅珪부장검사,孫宇榮·金眞祐·(후략)</p>
동아일보	1964-04-15	7	<p>國·公有地拂下 黑幕一部  드러나 國·公有地拂下黑幕一部  드러나三淸공원保護林野로虛偽證明水驗國有前最高委員某씨關聯社稷公園不正拂下搜查는踏步  國·공유지불하의  혹막여부를  수사중인  檢찰은  15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수사(후략)</p>
동아일보	1964-04-16	1	<p>國公有地등不正拂下=『特別調委』를構成  國公有地등不正拂下= "特別調委"를構成與野,運營委代案채택國會本會議  國會本會議는  16日「國公有地등 不正拂下真相調查特別委員會設置에관한決議案」을  滿場一致로  採擇함으로써  社稷公園을비롯한  十二個(후략)</p>
동아일보	1964-04-16	7	<p>金永東,서울潛伏 金永東,서울潛伏며  철전自己會社部下에電話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李宅珪부장검사·金眞祐·孫宇榮·金炳河검사)는  15일하오  현상금  五만원과함께  전국에지명수배된  金永(후략)</p>
동아일보	1964-04-18	7	<p>搜查急進展 搜查急進展手配했던金永東씨自首社稷公園不正拂下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수사는  17일하오  지명수배해온  金永東(38·東洋鐵鑛社長)씨가  檢찰에구속됨에따라  급진전을보게되었다.  金씨는  이날하오  白翔起(후략)</p>
동아일보	1964-04-18	7	<p>司稅廳元씨도拘 司稅廳元씨도拘束 17日밤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에구속된</p>

			束	金永東씨로부터 수회한 서울사세청 재산관리국조사원元恒彦(32=普光등二五一의五)씨를 수회혐의로 구속했다.
동아일보	1964-04-20	7	社稷公園事件 前財務長官 黃鍾律씨를喚問	社稷公園事件前財務長官 黃鍾律씨를喚問背後人物로 韓議員·陸教授도搜查속보=20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李宅珪部長)는 전재무장관 黃鍾律씨를 서울교도소로 불러 동(후략)
동아일보	1964-04-21	1	陸씨부터拘束하라 自民黨聲明	陸씨부터拘束하라自民黨聲明 自民黨은 21일 政府가同黨所屬 金俊淵의원拘束同意要請을낸데대해 聲明書를 발표하고"朴正熙大統領은 四大疑惑事件의主謀者로서의疑惑을받고있는 그의조카사위 金鍾泌共和黨(후략)
동아일보	1964-04-21	1	횡설수설	횡설수설 ◆여기에 한사람의重病患者가漢方의사에게 아무리 湯藥을써봐도差度를 못분다하자. 그리고 病勢변화에따라 藥種과 用量을 根本的으로 바꾸지않고,같은藥材를가지고서물만갈아再湯·三湯을한다하자(후략)
동아일보	1964-04-21	3	赦免令으로 흐지부지되는 『不正』	赦免令으로 흐지부지되는"不正"非違事實드러났으나公訴權거의消滅7個 國·公有地拂下搜查결과 검찰은 앞서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계기로국민의의혹을 사고있는七개국공유지부정불하사건에대해 일제(후략)
동아일보	1964-04-21	3	社稷公園用地사건 陸教授가 銀行돈貸付알선	社稷公園用地사건陸教授가銀行돈貸付알선韓議員은 金永東감취재우고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李宅珪부장검사)는 사건의배후인물로 떠오른 전재무부장관 黃鍾律씨, 서울대학陸(후략)
동아일보	1964-04-22	1	朴大統領訪問 金鍾泌씨	朴大統領訪問金鍾泌씨 金鍾泌共和黨議長은 22일상오靑瓦臺로 朴大統領을방문, 金俊淵議員의 拘束執行문제와 社稷公園用地拂下事件에 관련된 與黨議員들의 責任追窮문제를 協議했다. 金의장은 政治的인配慮(후략)
동아일보	1964-04-22	7	金龍泰·金好七·芮春浩氏등해 百40萬원再融資	金龍泰·金好七·芮春浩氏등해百40萬원再融資金永東진술 交際費90萬원빼고社稷公園用地事件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의하면 21일 주범金永東은동공원용지를 담보로 지난2월 상업은행(후략)
동아일보	1964-04-22	7	商銀·朝銀걸어 民訴	商銀·朝銀걸어民訴政府 鍾路廳廳發行證明偽造들어 22일상오 법무부는 말쑥난 社稷공원용지대수인金永東씨, 商業은행, 朝興은행장등 一四명을 걸어서울민사지법에 임야지분권등기말소(林野持分權登記抹消)청(후략)
동아일보	1964-04-22	7	네銀行幹部를釋放	네銀行幹部를釋放 22일상오 서울형사지법은 앞서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에 관련, 용지감정을 부당하게한 혐의로검찰에구속된(丁奎昌48=韓一은행감정부차장)宋壽善(49=韓一은행감정과장)劉基赫(朝銀감정부(후략)
동아일보	1964-04-23	1	總務團辭表受理	總務團辭表受理共和黨,國會波動으로引責 共和黨의 金龍泰院內總務·崔致煥·芮春浩副總務등 總務團세사람은 22일하오 議員總會에서總務職亂意를表明,受理되었다. 이들 總務團은 지난번國務委員解任建議表(후략)
동아일보	1964-04-23	1	金好七씨 議員職辭退書 社稷公園不正拂下關聯에引責	金好七씨議員職辭退書社稷公園不正拂下關聯에引責 社稷公園不正拂下사건에관련된 혐의를 받고있는共和黨의 金好七(全國)의원은 22일하오 議員職亂退書를 黨에제출했다. 金의원의 辭退書는 金鍾泌黨議長에(후략)
동아일보	1964-04-23	3	難航의 『共和黨號』 船內서도 熱病	難航의 『共和黨號』 船內서도 熱病"改編"뒤엔 어떤 바람이 불것인가沙工은"槽"를 놓고不正拂下등腐敗들어나 필경手術해야船主 朴씨·金씨의 處分기다려 出帆四個月에 物價高等經濟難·韓日會談·不正拂下등(후략)
동아일보	1964-04-23	7	社稷 漢陽 背後關係규명	社稷漢陽背後關係규명三淸·貞陵은"國有"로還元조치檢察발표"다른 네곳은不正 없었다"陸芝修教授亂表제출"不正에關聯된듯오르내려미안" 22일 서울대학교수陸芝修씨는 다음과같은 요지의성명서를 발표하고文(후략)
동아일보	1964-04-23	7	韓泰淵議員喚問 黃前財務와金瑞鉉祕書도	韓泰淵議員喚問黃前財務와金瑞鉉祕書도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23일상오 주범金永東을은닉한 혐의로 입건된 공화당소속 국회의원韓泰淵씨를 소환신문했다. 韓씨는 이날 신문에서지난(후략)
동아일보	1964-04-24	1	前財務長官 黃鍾律씨拘束	前財務長官黃鍾律씨拘束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前秘書官金瑞鉉씨도 24일 새벽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전재무장관 黃鍾律(55)동전비서관 金瑞鉉양씨를 업무상배임·교사혐의로(후략)
동아일보	1964-04-25	1	靑瓦臺에 中間報告 國公有地 不正拂下	靑瓦臺에 中間報告國公有地 不正拂下閔復基法務長官과申植秀檢察總長은25일상오 朴正熙大統領을방문,國公有地不正拂下사건수사中間보고를했다. 靑瓦臺대변인은 이들이搜查中間보고를 한것뿐이라고밝혔으나 (후략)
동아일보	1964-04-25	7	陸芝修씨喚問 社稷公園用地사건	陸芝修씨喚問社稷公園用地사건 속보=25일상오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조사중인 서울고검韓沃申검사는 陸芝修씨를소환했다.
동아일보	1964-04-27	7	社稷公園用地 不正拂下사건 金寅泰도 逮捕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사건金寅泰도 逮捕懸賞金5萬원 붙였던 26일상오8시 서울西大門署는 社稷공원사건과 관련되어 五萬원의 현상금이붙어있던대한부동산주식회사건주 金寅泰(39=茶洞一八四의三)를 釜山시 (후략)
동아일보	1964-04-27	7	財産管理局 處分課=崔課長구속	財産管理局 處分課 崔課長구속金寅泰로부터30萬원收賄혐의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는 체포된 金寅泰를 경찰로부터 인수하여 26일부터 철야신문,사건배후를 계속추궁중이다.(후략)
동아일보	1964-04-27	7	『融資알선안했』	"融資알선안했다"議員職내놓은金好七씨釋明 「社稷公園사건」에 관련혐의를받고

			다』議員職내놓은 金好七씨釋明	議員職사퇴원을 낸 共和黨金好七의원(全國)은 27일 「解明書」를 내고"金永東(주범)에 대해 融資를 앞선해준일이없다"고 관련(후략)
동아일보	1964-04-28	1	申檢察總長談"金議員 起訴는 速決위한것 韓泰淵議員拘束할 必要없다"	"金議員起訴는 速決위한것 韓泰淵議員拘束할 必要없다"申檢察總長談 28日上午 申植秀檢察總長은"金俊淵의원을 속히拘束起訴한것은 適否審査를막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起訴段階에 이르렀다는 판단과 速決處(후략)
동아일보	1964-04-28	3	우선14各만을 起訴	우선14各만을起訴31名中一次로 主犯계속追窮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 社稷公園용지 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李宅珪부장검사·金眞祐·孫宇榮·金炳河검사)는 사건수사二〇일만인 28일(후략)
동아일보	1964-04-28	3	三日間에 百餘件을 遡及처리 背後에 長官以上人物	三日間에 百餘件을 遡及처리 背後에 長官以上人物不正拂下國會調委서 문제화 金某議員 關聯說 사직공원용지등 국공유지 부정불하사건의진상을조사중인 국회조사위는 27일 비공개회의에서 사직공원 부정불하에있어(후략)
동아일보	1964-04-29	7	臨時特例法적용 起訴한18名중 12名에 社稷公園用地사건	臨時特例法적용起訴한18名중12名에社稷公園用地사건 社稷公園용지 부정불하사건에 관련,제一차로 一八명을 기소한검찰은 이들중二명에게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위반(제二조 加重罪적용)을적용,최(후략)
동아일보	1964-04-29	7	韓議員등 네名 起訴	韓議員등 네名起訴 28일하오 社稷公園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검찰은 주범金永東을 은닉해준 韓泰淵(공화당소속국회의원=安岩동四五八의一五)·金麟浩(48=普門동五가 一三六)·崔貞華(35·여=樓上동一(후략)
동아일보	1964-05-01	3	背後關係 再搜查	背後關係 再搜查社稷·三清公園用地 拂下事件 1일 서울지검 韓勝憲검사는 三清宮원용지부정불하사건의 배후를 가리기위해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앞서 국회특별조사위는이사건에 보다큰 정치적배후를 가려(후략)
동아일보	1964-05-04	7	崔某議員도 喚問할豫定	崔某議員도喚問할豫定金寅泰와收拾問題議論협의社稷公園用地事件 4일상오 社稷公園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검찰은 이사건이 신문보도로 세상에알려진뒤 주범金寅泰(39=東洋不動產常務)가 야당소속 崔(후략)
동아일보	1964-05-04	7	背後안가리나 못가리나	背後안가리나못가리나=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搜查한달權力層의壓力·巧妙한 造作·行政空白期등으로事件치고는 知能滿點주主犯잡혀어도 소결을 社稷公園용지 부정불하사건이 지난4월4일하오 신문(東亞(후략)
동아일보	1964-05-05	1	檢察 搜查 政治的影響받은듯	檢察搜查政治的影響받은듯貸付韓旋條로"코미손"3萬원授受說도黃鍾律씨,秘書拘束되자 金鍾泌씨만나社稷公園拂下調委 野黨側委員들報告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등 國公有地不正處分事件진상을 조사키위한 (후략)
동아일보	1964-05-06	1	<金容珣·崔守龍>두議員關聯없다	<金容珣·崔守龍> 두議員關聯없다檢察서搜查經緯증언國公有地不正拂下國會特別調查委서 國公有地등 不正拂下國會特別調查委는 5일하오제7차 非公開會議에서,徐柱演서울지검 檢事長을비롯,담당 檢사를 불(후략)
동아일보	1964-05-06	7	陸教授의 『코미션』 違法與否를 檢討	陸教授의『코미션』違法與否를 檢討社稷公園사건 속보=6일 社稷公園용지 부정불하사건의 배후관계를 수사중인 검찰은서울대학 陸芝修 교수가주범 金永東에게지난3월모은행에 용자를알선해주고 그로부터 「코(후략)
동아일보	1964-05-07	1	國庫詐害防止法案 國會에提出	國會에提出國庫詐害防止法案 李鍾極議員(共和=全國)外十二人의 共和黨議員들은 6일 國庫를 좀먹는一部公務員들의 不正腐敗를根絶하기위한 立法措處로서 「國庫詐害防止法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이는 社稷(후략)
동아일보	1964-05-08	3	金永東등三名起訴	金永東등三名起訴背後關係개낸후前黃財務도社稷公園用地사건 속보=8일상오 社稷公園용지 부정불하사건을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二부는 관련자중 제2차로金永東(38=東洋不動產社長)씨등 三명을 특정범죄처벌(후략)
동아일보	1964-05-09	7	俞炳熙씨起訴 社稷公園用地사건	俞炳熙씨起訴社稷公園用地사건 속보=社稷公園용지부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수사에 협조해왔다는이유로 그동안 불구속 조사중이던 東洋不動產업무과장 俞炳熙(31)씨를8일밤특정범죄처벌에 관한임시특(후략)
동아일보	1964-05-11	7	背後못개낸채搜查종결	背後못개낸채搜查종결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사건 黃前財務등 모두23名起訴 11일 검찰은 社稷公園용지부정불하사건에대한 수사에매듭을짓고 마지막으로 전재무장관黃鍾律씨를업무상배임교사혐의로 구속기소하(후략)
동아일보	1964-05-13	1	30萬원받았다 陸芝修씨證言	30萬원받았다陸芝修씨證言 國會國公有地등 不正拂下 特別調查委는 12일하오 전 서울대文理大教授 陸芝修씨를 환문했다. 陸씨는社稷公園사건의主犯인 金永東으로부터 銀行融資앞선의謝禮로 三十萬원을 받은(후략)
동아일보	1964-05-15	1	金好七議員辭表 返戻하기로決定	金好七議員辭表返戻하기로決定 共和黨은 15일 黨紀委員會에서 조사한결과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사건과東洋鐵鋼株式會社에 대한銀行融資斡旋에 共和黨所屬議員이 관련한바 없다고 밝히고 이들사건에관련된(후략)
동아일보	1964-05-26	3	黃鍾律씨病保釋	黃鍾律씨病保釋高血壓으로首都醫大入院 社稷公園용지부정불하사건에관련되어 업무상배임교사혐의로 서울교도소에수감중이던 전재무장관黃鍾律씨가 고혈압으로 지난23일새벽 병보석으로출감,首都의대부속병(후략)
동아일보	1964-05-27	8	어린이 『풀』	어린이 『풀』내달에開場

			내달에開場	서울시는 시내六개공원에있는 어린이「풀」을 오는6월중순쯤에 개장할수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이번에「풀」이 마련될공원은 다음과같다. ▲社稷공원▲「과고다」공원▲獎忠공원▲墨井공원▲仁峴공원▲永登浦第二공원.
동아일보	1964-06-13	2	三粉暴利 國公有地不正拂下事件 檢察搜查結果 발표	三粉暴利 國公有地不正拂下事件檢察搜查結果발표業者暴利는認定赦免令으로 刑事處罰 不可能社稷公園不正確認,搜查進行중 12日하오 申植秀檢察總長은 세칭三粉業者暴利說과 國公有地拂下事件수사전모를 받(후략)
동아일보	1964-06-19	3	社稷公園不正拂下 金·姜 被告 病保釋	社稷公園不正拂下金·姜 被告病保釋 19일하오 서울형사지법합의 일부(재판장·文永克 부장판사)는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에 관련구속기소된 金永東(38=東洋鐵鑛·東洋不動產사장·신장병),姜信庚(前서울(후략)
동아일보	1964-06-22	4	市內6個公園 어린이풀開場	市內6個公園 어린이풀開場 서울시는 22일부터시내六개공원내에어린이「풀」장을 개장한다. 8월말까지개장하는 이「풀」장은매일상오9시부터 하소6시까지 개장한다. 六개어린이「풀」장은▲사직공원▲과고다공원 (후략)
동아일보	1964-06-24	1	30日間을延長	30日間을延長國公有地不正사건國會調委調査期間 國會本會議는 24일 社稷公園을 비롯한 國公有地不正拂下사건真相調査國會特別委員會의 調査기간을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三〇日間 연장할것을 결의했다.(후략)
동아일보	1964-06-30	7	來14日로延期	來14日로延期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公判 30일상오10시 열릴예정이던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첫공판(재판장 文永克부장판사)이변호인요청으로 오는7월14일로 연기됐다.
동아일보	1964-06-30	7	휴지통	휴지통 ▼30일상오 대법정에서열릴 예정이던 사직공원 부정불하사건 첫공판은 피고인들이 출정치않아 연기됐는데▼ 당초구속기소되었던십九명의 피고인중 송사리격인 六명만남고 나머지는 모조리병보(후략)
동아일보	1964-07-06	1	對政府質疑는 않기로	對政府質疑는 않기로開會앞서 與·野院內總務團합의 6일상오 國會 開會式에앞서 열린 與·野院內總務會談은 오는7일부터9일까지 三일간 「各交涉團體의 時局對策에 관한演說」을 하기로하고 對政府質疑戰은(후략)
동아일보	1964-07-14	7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사건=첫公判開廷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사건=첫公判開廷巨物級出廷않아來月로延期 14일상오10시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의 첫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 일부(재판장=文永克부장판사)심리,李宅珪부장검사간여로대법정에서열(후략)
동아일보	1964-07-25	6	어린이수영대회 8월 10일개 서울서	어린이수영대회8월 10일개 서울서 어린이 수영대회가 8월10일개 서울운동장 풀에서 열린다.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어린이는 시내에 있는 여섯개의 풀인 사직, 인현,장충,답골,북경,영등포 제2공원등의 풀(후략)
동아일보	1964-07-29	2	"社稷公園用地事件外엔 不正拂下없었다"	"社稷公園用地事件外엔 不正拂下없었다"國會特別調査委 中間報告 國會本會議는 29일상오國公有地등 不正拂下진상증간보고를 金長涉(共和)調査)委員長으로부터 들었다. 國公有地등 不正拂下진상조사特委는 (후략)
동아일보	1964-08-18	3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첫公判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첫公判巨物級出廷않은채 19名의人定訊問마치고閉廷 18일상오10시만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 첫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 일부(재판장 文永克부장판사)심리,李宅珪부장검사관여로 대(후략)
동아일보	1964-09-23	3	第3回公判을延期	第3回公判을延期社稷公園用地事件 23일상오10시열릴예정이던 社稷공원용지부하사건제三회공판이 검찰촉요청으로 오는30일상오로연기되었다. 이날재판부는 개정벽두 관여 李宅珪부장검사로 부터 공판준비미(후략)
동아일보	1964-09-30	3	黃被告 公訴棄却신청	黃被告公訴棄却신청金永東은"앰블런스"로出廷社稷公園用地 第二回公判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제二회공판이 30일상오 10시만 서울형사지법합의 일부(재판장 文永克부장판사)심리,李宅珪부장검사,金炳(후략)
동아일보	1964-10-07	3	3回公判開廷	3回公判開廷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 제三회공판이 7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文永克부장판사주심 李宅珪부장검사관여로개정,사건당시 서울판재국처분과근무 朴海一(38=당시서기)崔永春(49=당시과장) 이(후략)
동아일보	1964-10-14	3	銀行關係의被告人6名=分離起訴하기로	銀行關係의被告人6名=分離起訴하기로社稷公園事件 共謀事實없다고 14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 제四회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 일부(재판장 文永克부장판사)심리,李宅珪부장검사金炳河검사관여로 서(후략)
동아일보	1964-10-21	3	"金永東은 모른다"	"金永東은 모른다"黃前財務,事實審理서否認社稷公園拂下사건 21일상오10시만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을 심리중인 서울형사지법 합의 일부(재판장 文永克부장판사)는 앞서 분리심리키로한 전재무장관 黃(후략)
동아일보	1964-11-04	3	18日證言듣기로 社稷公園事件中 黃被告事件公判	18日證言듣기로社稷公園事件中黃被告事件公判 4일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 일부(재판장 文永克부장판사)는社稷공원사건중전재무장관 黃鍾律피고의 업무상배임·교사사건공판을열었는데 이날재판부는 전재무장(후략)
동아일보	1964-11-18	3	"壓力加한일없다"고	"壓力加한일없다"고朴東奎씨등 네명의證言청취社稷公園用地不正黃 被告사건 公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의 일부인 전재무장관黃鍾律피고의 업무상배임교사사건 제三회공판이18일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후략)

동아일보	1964-12-07	3	裁判部서現場踏查 社稷公園用地 사건	裁判部서現場踏查社稷公園用地 사건 7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심리중인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文亨克부장판사)는문제의 공원용지2만3천1백90평에대한 현장답사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상(후략)
동아일보	1964-12-28	3	結審公判을延期	結審公判을延期社稷公園用地 사건 28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제12회공판이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文永克부장판사)심리,金東煥·金眞祐·孫宇榮검사판여로 지법대법정에서열렸는데 이날 검찰은(후략)
동아일보	1964-12-30	4	召喚不應한崔被告 保釋取消구속 社稷公園 사건	召喚不應한崔被告保釋取消구속社稷公園 사건 29일하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을 심리중인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文永克부장판사)는두차례나걸쳐 소환에불응한 崔善一(31·前서울司稅廳管理課調查(후략)
동아일보	1965-01-19	3	8個月間이나끌어온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의 決算	8個月間이나끌어온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事件의 決算결국龍頭蛇尾物級?모두빠져檢査搜查"미스"로 무더기保釋犯人隱匿議員은 不拘束 起訴軍政2年間の 갖가지 不正과 非違를 暴露하는데 導火線이 되었고 마(후략)
동아일보	1965-01-19	7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 사건 求刑懲役最高10年서3年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 사건 求刑懲役最高10年서3年金永東金寅泰姜信庚에10年賂物授受全額追徵罰金刑도 검찰은 군사정권때 4대의혹사건의 하나였던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관련자 18명에대해 19일하오 특(후략)
동아일보	1965-01-22	3	來30日에宣告 社稷公園拂下 사건	來30日에宣告社稷公園拂下 사건 서울형사지법 합의1부(재판장 文永克 부장판사)는 21일하오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변론공판을모두끝내고 오는30일선 고공판을열기로 했다.
동아일보	1965-01-30	3	네證人의證言聽取 社稷公園 사건公判	네證人의證言聽取社稷公園 사건公判 13일상오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文永克부장판사)심리孫宇榮검사판여로개경,검찰이신청한 金榮珪(商銀감독)씨등 4명의 증인신문(후략)
동아일보	1965-01-30	7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 사건 宣告金永東·金寅泰·俞炳熙에懲役2年	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 사건 宣告金永東·金寅泰·俞炳熙에懲役2年일급금만實刑法院拘束4名執猶銀行關係등 7名엔無罪51萬圓罰金刑도併科喜悲雙曲無罪는"고맙습니다"급실급실姜信庚피고卒倒法院스냅保釋取消(후략)
동아일보	1965-02-01	3	法廷서 도망친 兪被告 사흘째 감금 社稷公園 사건	法廷서 도망친兪被告사흘째감금社稷公園 사건檢察과法院 서로責任轉嫁 속보=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 선고공판에서징역2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된 東洋不動產업무과장 兪炳熙피고는 판결직후 행방을 (후략)
동아일보	1965-02-10	1	國公有地處分 13件中"9件이 不法不正"	國公有地處分13件中"9件이不法不正"國會調査委결론 國公有地不正불하眞相調査國會特別委員會는昨年4월부터착수한調査活動을끝내고報告書를作成,13件의國公有地處分過程중9件이不法不正으로 이루어졌다는 (후략)
동아일보	1965-02-11	3	말썽많은 國公有地拂下事件을 報道한 新聞標題들	<말썽많은 國公有地拂下事件을 報道한 新聞標題들. 圓內는 社稷公園不正拂下事件公判廷에선 被告들. >
동아일보	1965-02-17	3	事實審理속개 社稷公園事件黃鍾律 피고	事實審理속개社稷公園事件黃鍾律 피고 서울형사지법합의부(재판장文永克부장판사)는17일상오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에 관련된 전재무부장관黃鍾律씨의 업무상배임교사혐의사실심리공판을 속개했다. 黃피(후략)
동아일보	1965-03-03	3	前財務長官 黃鍾律씨에 刑量 없는求刑	前財務長官 黃鍾律씨에刑量없는求刑社稷公園 사건,檢察意見 3일상오 서울지검金東煥검사는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에관련 분리심리를받아오던 전재무부장관黃鍾律(58)씨에대해특수범죄처벌에관한 임시특(후략)
동아일보	1965-03-13	7	黃鍾律씨에無罪 宣告 社稷公園 用地 사건	黃鍾律씨에無罪宣告社稷公園用地 사건 서울형사지법합의1부文永克부장판사는 13일상오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에관련,재판을받아오던 黃鍾律(58=전재무부장관)씨의 선고공판에서 黃피고인에게 무죄를선고했다.(후략)
동아일보	1965-03-13	7	睡眠劑먹힌搜查	睡眠劑먹힌搜查消化劑라고監視刑事에被疑者 유유히逃走 社稷공원용지부정사건으로 징역2년선고를받고법정에서 도주한 兪炳熙가도주한지 44일이 지나도록잡히지않고있는데,12일밤에는 또지명수배중 자진출두(후략)
동아일보	1965-03-27	7	無罪判決난黃씨 檢察서抗訴拋棄	無罪判決난黃씨檢察서抗訴拋棄社稷公園用地 사건社稷공원용지부정사건에관련,업무상배임교사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되었던(공판도중보석)전재무부장관 黃鍾律씨가 무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후략)
동아일보	1965-04-08	7	兪被告체포	兪被告체포숨겨준親戚도拘束法廷서逃走65日社稷公園用地 사건 社稷공원용지부정불하사건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보석이취소되자 법정에서 도주했던 兪秉熙(東洋부동산업무과장)피고인이 도주65일만인 7일(후략)
동아일보	1965-05-08	7	金永東등 세被告 原審破棄 懲役3年을宣告	金永東등 세被告 原審破棄懲役3年을宣告두被告法廷拘束·11名기각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 사건抗訴審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8일오전 서울고법제2호 법정에서 韓萬洙부장판사 주심(배(후략)
동아일보	1965-05-31	3	佛敎徒들,社稷	佛敎徒들,社稷壇에 비를빌어

			<p>단비를내려 줍소서   30일 오전 9시반서울 社稷공원안 社稷壇에서는 天華佛敎포교원주최로 金凡父·金庠基·金潛泰씨등 각계인사와 불교신도및 시민다수가 모여 기우제를지냈다.</p> <p>포교원장 李喜秀(淑大교수)여사는"황천의 신명께옵서 창생의고충을 살피시어 하루마뻔 단비를 내려줍소서"하는 제문을읽었다.</p>  <p>壇에 비를빌어</p> <p>!! &lt;社稷壇에서 동계지동제물을 차려놓고 기우제를 올렸다.&gt; !!</p>
동아일보	1965-08-16	3	<p>橫厄의하루---休日겹친光復節12名溺死·一家3名가스中毒死 광복절이자 일요일이던 15일 서울漢江유역과 근교의각유원지는 마지막더위를피해 몰린인파 로붐볐다. 경찰집계를 보면 이날하루 貞陵·牛耳동·道(후략)</p>
동아일보	1965-09-07	7	<p>金永東등5名 上告棄却社稷公園不正拂下 最終審 7일오후 대법원형사부는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俞炳熙(32·東洋부동산업무과장)피고인만 원심을파기,서울고법에 환송판결을내리는(후략)</p>
동아일보	1965-09-30	7	<p>俞被告에 懲役10月宣告 俞被告에懲役10月宣告法廷逃走한被告를 숨겨社稷公園用地不正 30일오전 서울형사지법李洙祥판사는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에관한,징역2년을선고반자 법정에서 도주한 兇東洋부동산업무과장 俞炳熙피고(후략)</p>
동아일보	1965-12-08	3	<p>俞炳熙에懲役2年6月 俞炳熙에懲役2年6月서울高法,社稷公園事件宣告 7일오후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鄭台源 부장판사)는 「社稷공원부정불하사건」의俞炳熙(33=「東洋부동산」업무과장)피고에게 원심을판결(징역 2년)을내고 뇌물공(후략)</p>
동아일보	1966-01-01	3	<p>人間尊重 ① 棄 兒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자 非情의 行政에도 하루平均 5名꼴, 外面·無關心이빚어 곳곳하게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컷·朴正熙大統領 揮毫 66년,해방21년째로 들어선다. (중략) ○...이렇게 버려진 생명들의 가는길은 모두가 같다. 경찰은 부모찾기보다 서울시청 사회과로넘긴다. 꼬마들은 다시 서울사직동산1 시립영아원에 옮겨져 수용된다. 이렇게 이들어린생명들은 비정(非情)의 행정절차에 따라 확일적으로 영아원에 넘겨진다. (후략)</p>
동아일보	1966-02-24	7	<p>金永東隱匿罪의 韓泰淵씨등 네被告 돌연 公訴取消 金永東隱匿罪의韓泰淵씨등 네被告돌연 公訴取消社稷公園用地不正拂下사건"檢察의 威信失墜前例없는 政治的행위"法曹界 반향 검찰은 社稷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주범 金永東을숨겨주어 범인은닉죄로기소됐(후략)</p>
동아일보	1966-03-12	8	<p>새서울의 靑写真 11 11월 11일 靑해안에 百23미터貫通 連結道路도1킬로 社稷公園근처百餘家屋·市場철거 補償金만 靑 2億원 64년11월에착공된 靈泉·內資농간 도로확장및 「터널」 공사는 현재전공정의 25%가 진척,금년안에 우선 터널만은 관통된다. 獨立門앞에서 內資시장끝까지 이르는 이 공사는 총연장 1천2백미터로 그중 터널길이는 1백23미터(폭9.5미터, 높이6.5미터로 두줄로 되어있음). 당국은 제대로 도로가나있지않은 社稷공원앞지역부터 內資시장끝까지 7백 미터범위안에는 1백여동의 가옥을 모두철거 內資시장도 철거, 노폭 25미터의 도로를 닦</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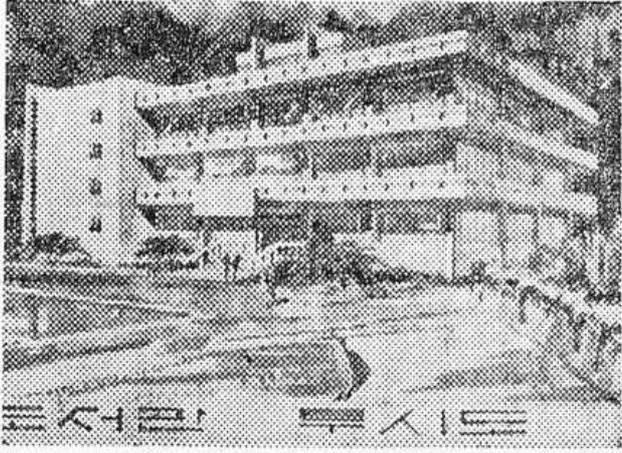
			<p>을 계획이다(이공사는 67년에 착공해서 완공할예정). 65년까지의 공사진척상황을 보면 獨立門앞에서 터널 입구까지의 도로는 말끔히 정리되었고 터널의 한줄은 도갱(道坑=다른공사를하기위해 앞에놓는것)이 관통되어있으며 70미터 라이닝(단면 확대를 70미터로하고 콘크리트로성형하는것)이되어있다.</p> <p>당국은 오는8월경엔 남은 한줄도 마저 관통시키고 70미터 라이닝을 끝내어 금년 안에 터널 공사는 완공할예정. 예상총공사비는 3억으로 그중 가옥과 시장건물철거보상비는 공정비의 절반이 넘는 1억7천만원이 나온다.</p> <p>이공사가 완공되면 ①우선 시당국이 계획하고 있는 골격(骨格)가로망인 제1환상선(環狀線=서울驛광장~西大門광장~獨立門광장~中央廳광장~安國동~東大門~光熙동~서울驛)이90%완성(당국자는실제環狀線기능은 95%발휘가능하다함)되고 ②弘濟동고개에서 東大門방면으로 넘어오는 통과교통량이 복잡한 西大門 로타리와 光化門 로타리를 거치지 않고 곧장 中央廳앞으로해서 東大門까지 수월하게 빠져나가게될 것이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b>靈泉-內資洞 터널</b></p> </div>
동아일보	1966-03-14	3	<p>社稷公園을最終결정 서울시,議事堂建立候補地로 서울시는 14일오전 국회의사당건립후보지로 社稷公園을 서울시안으로 최종결정,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에 통과했다. 시당국은①용지구입이 용이하고②중앙청과 인접해있다는 점등으로 社稷公園을 국회의사당후보지로 최종결정했는데, 새로세워질 국회의사당은 대지3만9천평에 건물은 지상14층 지하1층으로 설계되어있다. 시당국은 또한중앙청에서 社稷公園에 이르는 도로폭도50미터로 확장할계획이다.</p>
동아일보	1966-04-19	7	<p>휴지통 ▼----"땀방울흘리면 금방울 떨어진다"   6년만에 되찾아온"피의 화요일"4.19 아침,남산공원·사직공원, 「과고다」 공원등 서울시내곳곳에는 색다른 「플래카드」가 나부껴 오가는시민들의 눈길을 모았(후략)</p>
동아일보	1966-04-25	4	<p>金市長 10大事業새로 公約 특섬에5百萬坪團地造成등 25일오전 金서울시장은오는5.16을기해 특섬면牧지구의 5백만평 단지조성공사·서울역앞지하도·敦岩동   牛耳동간 간선도로·弘濟동   葛峴동간무장에도로공사착공을 골자로하는 「제2차공약」을 밝혔다. (중략) ▲獨立門-社稷公園앞도로 신설=5.16착공, 11월30일완공,예산1억2천4백만원.</p>
동아일보	1966-07-04	1	<p>不正拂下調査報告書 채택 國會本會議 國會는 4일본회의에서작년4월27일부터 약2개월간 國公有地不正拂下事件을 조사했던特別委(위원장=金長涉의원)의 조사보고서를 與野의의없이 채택했다. (후략)</p>
동아일보	1966-07-15	4	<p>2千陸本土兵 街路清掃앞장 육본소속사병 2천여명은 15일새벽5시부터 약1시간동안 비를맞으며서울시내 가두청소에 나서社稷·獎忠壇·孝昌·과고다·南山등 5개 공원과 乙支路·鍾路·清溪川일대의거리를말끔(후략)</p>
동아일보	1966-08-13	8	<p>= 幹·支線道路邊 15萬坪 = 都市計劃서解除 各區別 解除지구20年內에實現性없는것 鍾路管內78個등265個路線 1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선에묵인 간선도로가로변과지선도로변의 14만8천평을 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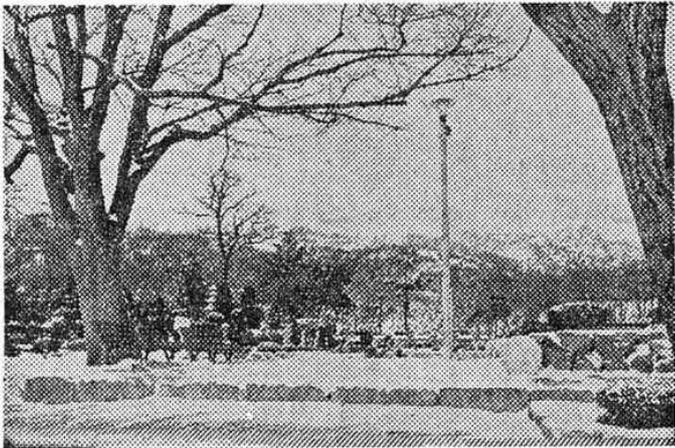
				<p>내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서울시는 도시계획선에 묶여 집을짓거나 달리사용할수없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급격막기위해제1차로 20년안에 실현할수없는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해제하기로했는데 간선도로변이 6만8천평, 지선도로변은 8만평이다. 이번에 채택될 지역은 鍾路구의78개노선을비롯,2백65개노선의 도로변이다. (괄호안은 도로의길이,m)</p> <p>...</p> <p>(56)社稷동55~社稷동136</p> <p>...</p>
동아일보	1966-11-11	3	알림	<p>알림 ◇天華佛敎布敎院主催 檀君聖祭및社稷神·歷代名賢烈士祭=14일오전10시반,社稷公園內天宮庵. ◇以北5道主催反共講演會=12일낮1시,以北5道廳講堂. ◇在京莞島學友會秋季總會=13일오전10시,秘苑. ◇靑(후략)</p>
동아일보	1966-12-20	7	市立保育病院에 크리스마스선물	<p>市立保育病院에 크리스마스선물</p> <p>로타리클럽서</p> <p>20일오전 漢陽로타리클럽은 X마스와 세모를맞이하여 불우한 아동들이수용되어있는 社稷동소재시립보육병원에 동클럽을대표하여 본사부사장 金相万씨가 5만원을 전달했다.</p>
동아일보	1966-12-29	4	66市政決算	<p>66市政決算</p> <p>눈에 띄는 일에 集中</p> <p>住宅·交通難解決엔 소걸음</p> <p>福祉·産業施設등한意欲과잉·猝速主義비난도</p> <p>66년도의 서울시정은 건설공사와 도시미화등 눈에 띄는일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투입한것이 큰 특색이었다.</p> <p>(중략)</p> <p>건설사업은 (중략) 독립문~사직공원 (중략).등 도로의 신설, 확장으로 예년에 볼수없던 활기를 띠었다. (후략)</p>
동아일보	1967-01-21	2	市民의生活과直結된市政	<p>市民의生活과直結된市政</p> <p>서울시는 道路·住宅·上下水道등 多様な 計劃下에이미 새해의 建設作業에着手하였다. 今年度 公益建設에만도 1百58億원이라는막대한 豫算을 投入하리라한다.</p> <p>실천가로 이르는 金玄玉市長은 (중략)</p> <p>또中央廳에서社稷公園에 이르는 길을 現在의 25m에서 50m로 넓히기 위해서 內資아파트를비롯하여 住宅百棟가량을 헐게 되리라는바 아직 査定價格은 나오지않았으나 그補償額도 엄청날것으로 推測된다.</p> <p>(후략)</p>
동아일보	1967-01-21	8	社稷터널 오늘 開通	<p>社稷터널</p> <p>오늘開通</p> <p>21일오전10시 서울西大門구獨立門에서 鍾路구社稷공원앞에이르는 1천5백m의 도로신설공사가착공2년1개월만에완공,社稷터널이개통됐다.</p> <p>지난64년 11월에착공,총공사비 2억4천4백원을들인 이도로는 길이1천5백m,노폭 25m이며 社稷공원 산허리를 뚫고나가는터널은 길이1백46m에 폭9.5m의 왕복선으로 되어있다.</p> <p>이터널의 개통으로 孝子동과 中央廳에서 靈泉쪽으로 가는차량은 西大門을거치지 않고 직접운행,약1km의 거리가 단축되었다.</p>
동아일보	1967-01-24	8	無定見한破壞와建設	<p>無定見한破壞와建設 朝鮮호텔을 헐어 버리고그 자리에 17層으로 3백50개의 客室을 가진 超現代式「아리랑 호텔」을 짓는다고 한다. 朝鮮歷代王의後宮을 모신 宮井洞의 七宮一部를 헐고 길을넓힌다고한다. 5百70餘年前 李太祖가 國家를 創始하면서 세운 社稷壇을 撤去하고 길을 擴張한다고 한다. 悠久한 歷史의 가지가지 波瀾을 아로새긴 文化財들이 廣汎한 挑戰을 받고 破壞·湮滅에 直面해있는 것이다.</p> <p>(후략)</p>
동아일보	1967-01-24	8	都市計劃에 헐리게될 七宮·社稷壇 文化財委員들 撤去에 反對	<p>都市計劃에 헐리게될 七宮·社稷壇 文化財委員들 撤去에 反對</p> <p>"길을 돌려서 내라" 서울시 強行않겠다고</p> <p>서울시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七宮·社稷壇등 사적을헐려는데대해 문화재위원들은 이를크게반대,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사적이 다치지않도록 길을돌려내라고 주장하고있다.</p> <p>24일 李弘植·金元龍씨등 문화재위원들은 한결같이 현재의계획대로한다면 七宮의 경우 사적이완전히 훼손되므로 도로가약간 우회하더라도 옆으로돌려야하며 社稷壇의경우는 계획선에 저촉되는문을 원모습그대로 옮겨세울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있다.</p> <p>이들은「빠리」「로마」등의국도시에서도 도로계획이고적에 저촉되는 경우 길을 돌려냈다고 지적, 이향으로의 해결을위해 25일오후2시 문화재위원회를열고 시장</p>

			<p>국과도 협의할생각이라고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0년전에 이미제정공포된 도시계획이므로 이를 수정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는하나 문화재위원들의 견해를 존중, 도로를 우회하도록연구하겠으며 당분간강제철거를피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7宮은李朝宣祖후궁金씨등 역대후궁의신주를동안한곳이며 社稷壇은 국토신과 오곡신을모셔 국가가 제사지낸곳이다.</p>
동아일보	1967-02-09	8	<p>서울版 無許可 建物2萬餘棟 3月부터撤去단행 7월까지끝낼方針 撤去民엔城東·城北區에定着地 서울시는 올해 각종공사에 따르는 무허가 거물철거대상을 모두2만1천1백35동으로잡고 오는3월초부터 철거를 시작한다. (중략) 3월에 철거될 7천7백38동의 지역별건물수는다음과같다. (중략) ②도로공사▲효자동~세검동=40사직동~중앙정=325 (후략)</p>
동아일보	1967-02-15	4	<p>과고다公園整理로 鍾路圖書館철거</p> <p>서울시의 「과고다」 공원정리작업에 따라 매년연15만명이이용하던시립鍾路도서관이 오는3월초에헐리게되었다</p> <p>서울시교육위는 당초 「과고다」 공원풀장에 鍾路도서관을 이전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의 뒷받침이없어 이계획도 좌절되어 鍾路도서관의 신축은 가망이없는실정이다.</p> <p>15일시교육위조사에의하면 해방후20년동안서울시내국민학교와중고교는2배로,극장은5배,대학은4배(전문학교포함)로,인구는3.8배가 늘어났으나 시립도서관은 鍾路도서관이 헐리고나면 南山도서관만 남게되어 2개에서 하나로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p> <p>한편 서울시내의 사설도서관은 89개가있으나 제대로도서관이구비되어있고 시설이갖추어진곳은 네곳뿐이다.</p>
동아일보	1967-03-22	4	<p>갈팡질팡... 都市計劃 曲線을直線으로하라 金市長이즉석指示 住民抗議있자取消,다시曲線으로 中央廳   社稷公園도로 「돌격건설」의 구호아래 각종공사를 벌이고있는 서울시는 뚜렷한 기본방침없이 도시계획선을 자주 바꿔치는 바람에 주민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中央廳~社稷공원정문간도로확장공사의 경우, 지난1월6일 기공식장에서 金玄玉시장은 中央청 뒷문쪽에서 禁泉橋시장쪽으로 돌아 社稷공원으로 이르는 종전의 곡선계획선이 도시계획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 中央청정문에서 똑바로 사직공원정문과 통하는 직선으로 고치도록 즉석에서 지시하고 이계획선변경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일부주민들이 "직선으로하면 內資아파트등 값비싼 건물이 많은데 왜 갑자기 계획선을 바꾸느냐"고 항의와 진정을 벌이자 이를 취소, 종전대로 곡선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자 이번엔 또 종전계획선에 들어있는 禁泉교시장상인및 주민들이 도시계획원칙에 어긋난다고 "변경지시까지해놓고 무슨사연으로 불합리한 곡선계획을 다시 고집하느냐"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후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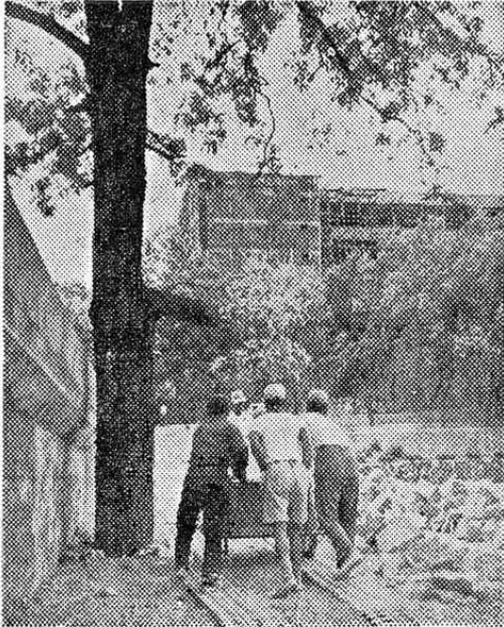
<p>동아일보</p>	<p>1967-07-04</p>	<p>5</p> <p>어디로가나?... 鐘路圖書館</p>	<p>어디로가나?—鐘路圖書館   商街아파트에 쫓기는 開館48年の 名物 市 對策없이"비워달라"與黨選舉公約에도 어긋나 "商店10個보다 圖書館이"</p> <p>우리나라 최초의 圖書館인 서울시立鐘路圖書館이 隕된다. 새都市計劃에 의해 商街아파트를 짓기 위해 쫓겨나야할 이 圖書館은 이전하는데 대한 아무런 대책이 나 계획이 없어 6만권의 藏書와 하루6백명의 閱람자는 거리에서 방황할 것 같다. 그리고 日帝시대부터 長安의 文化센터로 활약해온 또하나의 서울名物이 자취를 감추는 셈이다.</p> <p>유서깊은 「과고다」公園 옆 5백31평의 대지위에 3백여열람석을 가진 이 圖書館 은 지난1월 서울시教育監을 통해 鐘路區廳長으로부터 아무런대안없이 “4월20일 가지 이전해달라”는 통첩을 받았다.市教育監과 圖書館界는 서울시長등과 끊임없이 교섭했으나 “迫更豫算에 반영, 社稷公園에 지어주겠다”는 지극히 막연한 대담만 얻었을뿐 철거해달라는 재촉만받아 전전공공할 입장에 빠졌다.</p> <p>1919년9월에 開館된 이 圖書館의 設立者는 해방후 서울시長을 지낸 李範昇씨. 日 本留學에서 돌아온 李씨는 우리민족의 「開化에 가장  필요한 文化事業」은 圖書 館이라고보고 당시 朝鮮總督府의 所有건물을 빌려 약간수리한후 자기 私有도서를 내놓아 이도서관을 지은 것이다. 현재까지 사용되는 이도서관의 韓末건물은 韓末 軍樂隊가 사용하던 숙소였고 圖書館 건물로서는 청으므로 지어진 石造新館은 23 년 7월 閔泳徽씨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지은 것이다.</p> <p>22년에 이도서관으로부터 分立한 南大門도서관(現南山도서관)이, 그리고 23년에 國立圖書館이 생겼지만 이 韓人私立圖書館은 圖書貸與에 自足하지않고 23년부터 兒童館을 설치,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2년제 初等教育을 실시하고 朝鮮女子青年 會의 舊式女性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매주 토요일마다 방정환,정홍교씨등을 초 빙 어린이 童話會를 열었다. 이도서관의 사회활동은 財政관계로 京城府에 넘어간 후에도 계속됐다.</p> <p>50년전의 舊屋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이도서관의 한해 閱람자는 15만명이 상. 그중 학생들이 13만명이고 대역서적이 6만권을 넘는다. 공원을 옆에 낀 이상 적인 현위치에 1억원 예산으로 1천5백평의 새건물을 지을 계획도 해보았지만 이 번에 商街아케이드계획 때문에 霧散, 임시건물의 마련조차 기대할수 없게된데 대 해 도서관 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市民의 항의가 적지않다.</p> <p>현재 서울시內는 國立中央도서관과 鐘路·南山·阿峴(분관)외에 私立도서관으로 東 大門·「4.19」·경릉 도서관 등 7개에 불과한데 公立도서관은 해방당시 그대로 다. 그동안 학교가 2배반, 신문이 4배, 방송국이 9배, 극장이 5배, 그리고 인구가 4배로 늘었지만 도서관은 20여년동안 현상유지에 불과했다는 이사실이 우리 文化 政策이 얼마나 빈곤했던가를 말해준다. (후략)</p>

				 <p>〈開館48년만에 헐릴 市立鍾路圖書館〉</p>
경향신문	1967-07-05	6	移轉대책없이 撤去	<p>移轉대책없이 撤去 아케이드에 밀려나는 鍾路圖書館 서울 종로구청은 파고다아케이드를 찾공,시립종로도서관을 철거기로 했는데이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없다. 시립종로도서관은49년전에 초대서울시장인 李범승씨가 세운것으로 장서만도6만권,하루6백명의 관람자가 이도서관을 이용하고있다. 시립 종로도서관측은 점포를 짓기위해 공공도서관을 아무런대책도 세워주지않고 헌다면 그많은장서와 관람자들을 어떻게 할것이나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종로구청은 사직공원에 부지를확보, 콘센트창고라도 만들어 장서를모아 들것이라고만말하고 뚜렷한대책을세우지않고있다.</p>
동아일보	1967-07-06	8	社稷公園을 庭 園式으로	<p>社稷公園을 庭園式으로 나무 30萬그루심고小動物園도 6일 서울시는 社稷公園을 정원식공원으로 개조,나무와꽃을심고 산토끼·다람쥐등짐승들을 기르는 소동물원도 갖추기로했다. 서울시는이공원을 계단식으로 구획정리,모두30만그루의 꽃과 나무를 각구획에 나누어심고 3백만원의 시비를들여 벤치와 비치파라솔및5천평의 잔디밭등을 마련할 계획인데 오는10월3일 완공예정.</p>
동아일보	1967-07-11	7	두곳에地下商道 도	<p>두곳에地下商道 11일 서울시는 연내에小동~德壽莊및 체신부~大韓공문사사이에 새로지하상도를 건설기로 하는한편 社稷公園에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을 짓기로했다.</p>
경향신문	1967-07-18	4	파고다公園 아 케이드 建築強 行	<p>파고다公園 아케이드建築 強行鍾路도서관 이달중撤去 金서울시장은 시립종로도서관을 7월중에 철거하고 「파고다」 상가아케이드는 계속 건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상가아케이드건립을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짓게된다고 말하고 종로 도서관의 철거에 따라 사직공원안에 2천만원규모의 도서관을 7월중에 착공, 연내에 완성한다고 밝혔다.</p>
동아일보	1967-07-22	5	圖協서募金운동	<p>圖協서募金운동 鍾路圖書館구제위해 全國圖書館協會는 21일오후 理事會를열고 商街아케이드때문에 헐려야할鍾路圖書館에대한 대책을토의했다. 우리나라사람에의한 이최초의 圖書館은서울에서社稷公園안에 2천만원을 들여 금년내로 완공시켜주기로했으나 圖協측은 우선 당장 철거후의 문제와 市의 도서관 이전결정을 촉구할 것을 상의했다. (후략)</p>
동아일보	1967-08-10	8	鍾路도서관 起 工	<p>鍾路도서관 起工 社稷公園안에 明年7月준공 서울鍾路도서관기공식이10일오후2시 金玄玉서울시장·崔福鉉서울시교육감및많은교육계인사가 참가한가운데 社稷公園에서올려졌다. 총공사비 7천만원으로마련되는 이 도서관은 社稷공원 안 대지 7백평에 세워지는데 연건평 8백10평 3층건물로 열람석 5백석에 휴게실, 오락실을 갖춘다. 준공은 68년 7월계.</p>

				 <p style="text-align: center;">〈鍾路도서관 루시도〉</p>
동아일보	1967-08-11	1	형설수설	<p>형설수설 ◆社稷의 社는土神,稷은 穀神을나타내는 것이라고한다. 한나라가 새로일어나면壇을세우고 이것을모시게 되어있다. 말하자면 國家의守護神이되는셈이다. 社稷公園에 있는社稷壇은 고우나 미우나 (중략) 그 사직공원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된다는 소식이다.(후략)</p>
경향신문	1967-08-31	4	鍾路도서관 1일부터休館	<p>鍾路도서관 1일부터休館 서울시립 종로도서관이 독서시즌을맞은 9월1일을기해 휴관한다. 내년5월말까지9개월간 문을닫게될 종로도서관은 1926년4월1일에 개관한 우리 나라최초의 도서관이다. 서울시가 파고다 상가아케이드의 건립을 위해 헐게되는데 오는10일부터는 이도서관의 철거작업을 하게된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시립종로도서관의 철거에따라 5만여권의 장서와 각종비품을 서울시 종암동 자재창고에 보관토록 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직공원안에 새로운 3층건물의 도서관을 68년 5월말까지 짓는다.</p>
동아일보	1967-10-18	1	형설수설	<p>형설수설 ◆日本구경한사람이면 누구나 日本庭園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寺刹같은,우리나라 절은 山間깊은 곳에 자리잡아 自然속에 과묵한 아름다움이있지만,日本절은 市街속에 자리잡은 곳이 많아 (중략) ◆사직공원~중앙청 사이의 길은 미군용내자아파트가있고 상가주민들이 반대해서 직선도로를 못만들고 말았다. 바로 그 서울시가,종묘와 칠궁은 도로계획을 우선시켜야 하겠다니, 반대하는 문화계의 힘이 보잘것없어 그런것인가.</p>
동아일보	1967-11-03	4	알림	<p>알림 ◇天華佛敎布敎院主催 檀紀4300年紀念 檀君社稷大祭典=4일오후3시,社稷公園內 檀君紀念館內.</p>
동아일보	1967-12-26	7	혈값拂下로 말썽빚은 社稷公園用地 4年만에 되찾아	<p>혈값拂下로 말썽빚은 社稷公園用地 4年만에 되찾아 "結託賣却한건 法無視" 政府 尙少---二萬三千坪 時價十여億 지난64년 많은공무원과 은행원등이결탁, 특정인에게 혈값에불하하여 크게 말썽을 빚었던 서울 시내 社稷公園원용지부정불하사건은 형사사건이 매듭되고 정부가 2만3천여평의 이땅을 되찾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4년만에 승소함으로써 잃을뻔했던 국유지를 되찾게됐다. 26일 오전 서울민사지법합의5부(재판장曹聖基부장판사·배석金柱祥·金鍾培판사)는 정부가 東洋不動産 대표 金永東(鍾路區누상동山1-5)씨등 15명을 상대로낸 「사직공원원용지 2만3천여평은 당초 법을 무시하고 부정불하된 것이라」고 판시, "피고들은 동 임야를 정부에 반환해야한다"고 원고인정부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임야는 社稷公園원용지로 仁旺山기슭에 인접된 풍치지구며 소송제기당시인 64년에도 약4억여원으로 평가됐는데 社稷壇널이 개통된후 이일대의 땅값은 급격히 뛰어들라 현재는 평당5,6만원으로 호가되고있어 2만3천여평이면 최소한 11억5천만원이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장장 4년여에 걸친 심리끝에있는 이날의 판결에서 "이미 형사사건의 판결이 있었듯이 이임야는 관계구청직원·세무서원·임야의 시가를 감정</p>

			<p>한은행원등의 결탁으로 헐값에 불하된것이며 국유재산처리법 4조2항 규정은 재무부가 국·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하려면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도 당시의 입야의 불하는 재무부가 단독허가했던 것이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p> <p>재판부는 이어 "도시계획법48조에는 도시계획구역안에있는 공원용지는 매각 또는 양여할수없게 되어있는데 본건입야는 엄연히 도시계획구역 안에 자리잡은 공원용지인데도 잡종재산으로 편입, 헐값에 불하된 것은 관계관청의 부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는 이유를 설시(說示)하고 있다.</p> <p>서울한복판인 鐘路區사직동 山1-1에 자리잡은 문제의 입야 2만3천1백9십평은 지난 62년 4월 재무부에 의해 갑자기 잡종재산으로 편입되어 64년 1월 22일 金永東피고등 6명에게 당시시가의 10분의1도 안되는 평당1백여원씩 도합2백6십7만8백9십원에 불하됐으며 金피고인등은 이 입야의 일부를 다른 9명에게 전매, 현재는 15명의 소유로 되어있다.</p> <p>동입야의 부정불하는 당시 본보등의 보도를 통해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켜 부정에 관련된 당시 서울관제국장 姜信庚씨등 관계공무원과 동입야의 시가를 헐값으로 감정한 은행원등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국회의원 6명이 관련됐다는 설까지 떠돌았으나 결국 고위층의 부정을 가려내지 못한채 정부는 소유권을 둘러싼 끈덕진 법정투쟁만을 벌여왔다.</p>
동아일보	1967-12-26	7	<p>부정불하했다가 4년만에 도로 정부소유로 판결이내려진 社稷공원용지</p>  <p>&lt;부정불하했다가 4년만에 도로 정부소유로 판결이내려진 社稷공원용지(산기슭부분)&gt;</p>
동아일보	1968-02-01	5	<p>文化財깎고가는都市計劃 또 하나의 風波...서울市의 大漢門·철책 撤去통고 分別없이朝三暮四 격렬한反對---담의 復元論도 대두 七宮移轉과 忠묘담의 撤去계획으로말썽을 일으켰던서울市의 都市計劃이 이번에는 太平路路幅확장계획에따라 德壽宮大漢門과 담을 뒤로물리는문제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고있다. 서울시는 지난달二十日 國會議事堂앞도로를 너비 五十m(현재三三·五m)로 넓히기 위해 國會議事堂현관·遞信部현관·太平路和출소등을 六월까지 철거하고 德壽宮철책과 大漢門을十六m가량 뒤로 물려세우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市당국으로부터五월三일까지 이의철거를 통고받은 文化財管理局에서는 三十日 "文化財保護를 의면한 짓"이라고 아연해있다.</p> <p>서울市都市計劃과 文化財保存의 마찰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五·一六직후 德壽宮담을 헐면서 後退시켜 투시철책으로 대신한데서 표면화한말썽은 도로확장을 위한 景福宮담의 一部철거후퇴, 사직단正門의 도로변 노출,高架道路건설에따른 水口門철거시비(보류), 파고다公園 주변의商街化, 孝子洞~洗劍亭간도로확장공사를 위한 七宮의일부철거 移轉, 忠묘담의 철거후퇴에 의한 도로신설등 큰문제를 제기해왔었다.</p> <p>그리고 都市의 現代化를 앞세운 서울시당국의처사는"都市건설이니 近代化니하는 이름으로 民族의 빛나는 遺産까지말살하는 몰상식하고 성급한 의욕"이라 비판되고이에대해 서울시측에서는"이들 反對論이 文化財자체만을 논하는 지엽적인 문제며 文化財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전하는길과함께 現時點을 거쳤다는형적을붙여서 전하는방법이있다"고 현대에어울리는 都市計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p> <p>이처럼 상극되는 견해를 드러내온 도시계획과 文化財保存문제는 지난가을 七宮과 忠묘문제를통해 절정에 이르렀었다.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의비상한 관심을 모</p>

			<p>아온 이과제는 文化財保護法으로인해 서울시의 계획집행이정체된 상태에 있었다. 六二년초에제정공포된 文化財保護法은 文化財의 保存과 活用을 위한 것으로 중요한 文化財의 관리, 수리, 복구나 現狀變更등은 文化財委員會(각계인사 三十여명으로구성)의 議決을 거치도록 규정하고있다.(후략)</p>
동아일보	1968-02-22	8	<p>六개公園施設확충 年内준공 野生動物園·골프場등 二十二日 서울시는 민간자본十二億三千五百萬원을들여 南山·사직·孝昌·와우·三清·貞凌및牛耳등六개공원에 야생동물원을비롯,골프연습장六개 소·수영풀六개소와 각종공원시설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달안에 착공, 연내에 준공될 이공원시설은 민간투자자의 임대료가 공사비에 달하면 모두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공원별 공사규모·예산·준공예정(괄호안)등은 다음과 같다. ▲사직공원=풀一개소·골프연습장一개소·매점三개소=공사비二千六百萬원(九月) (후략)</p>
동아일보	1968-03-20	4	<p>사직公園에 풀場 民間資本千萬원 들여 年内준공 "文化財해칠까우려" 민간자본을들여 孝昌공원에 골프장을 시설하려다 말썽을 일으켰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사직공원에 풀장을 설치하려하여 문화재 애호가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서울시는 오는 四월 사직공원안 폭二十五m길이 五十m의 풀을 민간자본 一천만원을 유치,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 풀장에정지는 사직단너머 계곡바로밑으로 시민들은 이자리에 풀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의 가치를 상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국자는 계곡밑이기때문에 사직단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장소이어서 문화재 보존에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사직단은 一三九四年(太祖三年)에 李太祖가 건립한 높이 약 一m, 면적 七十二㎡의 제단인데 왕이 오곡신을 제사지내고 기우제나 기곡제를 지내던 곳이다.</p>
동아일보	1968-05-21	7	<p>풀場開設工事(장개설공사)말썽 "사직公園(공원) 합부로 해쳐" 國稅廳(국세청) 서울市(시)에是正通告(시정통고) 사직공원풀장개설공사를싸고 공원재산소유자인국세청이 관리자인 서울시에대해 공원재산을 합부로 훼손하고있다고 지적하는가하면 시민들도 계획성없는 공원행정이라고비난하고있어 동공사는또한번말썽을일으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十四(십사)일 서울시에대해⊖(⊖)당초의 협의와는달리 수영장부대건물로서 관리사무실외에 휴게실과 개인주택을 지으려하고있으며⊖(⊖)공원림을 마구베고 묻는등 공원재산을해치고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할것을 통고했다. 특히 시민들은⊖(⊖)수영장이 현재동공원내에 세워지고있는 시립도서관四(사)층건물의 바로앞 一百(일백)m밖에 안떨어진 저(低)지대에 있어 뻥뻥 내려다보일뿐 아니라 성인들까지 입장시킬 계획인 풀장은 도서관의 분위기를 해치는 결과가되며 풀장이 사적 一二一(일이일)호로 지정된 사직단(社稷壇)과 「사직기념관」에서얼마 안떨어져있어유서깊은곳을더럽히고있다고꼬집고있다.</p>
동아일보	1968-05-21	7	<p>사직공원안에 신축중인 도서관 바로앞,성인용풀장공사가 한창</p> <p>&lt;사직공원안에 신축중인 도서관 바로앞,성인용풀장공사가 한창이다&gt;</p>

			 <p>&lt;사직공원안에 신축중인 도서관 바로앞, 성인용 풀장공사가 한창이다&gt;</p>
조선일보	1968-05-22	4	<p>사직공원 풀 개설공사 말뚝. 수목벌채등 시정도록, 공중도덕-문화제 해쳐</p> <p>사직공원 풀 개설공사 말뚝이다. 공원재산 소유자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관리자인 서울시에 대해 공원재산을 함부로 훼손하고있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시민들도 시당국의 공원미화계획이 엉망이라고 나무라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시정통고문에서 서울시가 당초 협의와는 달리 수영장부대건물로서 관리사무실외에 휴게실과 주택등을 지으려하고 있으며, 공원립을 마구 베고 묻는 등 공원재산에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주민들은 풀장이 현재 건축중인 시립종로도서관 4층건물에서 1백40m 밖에 안떨어져 있고 인근 고지대주택가에서 바로 눈아래로 내려다보여 풀장이 성인용을 겸할 때 주택가의 공중도덕을 해칠 우려가많은 것이며, 사적 121호인 사직단(社稷壇)과 사직기념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화제의 가치관을 떨어뜨리기 쉽다고 우려하고 있다.</p>
동아일보	1968-08-01	8	<p>사직公園풀開場</p> <p>사직공원안에 만들고있었던 어른용풀장과 어린이풀장이 일요일전十一시개장됐다. 서울시가 공원개발사업의 하나로 민간자본 二千三百여만원을 끌어들이지안되네월 착공,이날완공을본 이풀장은 국제규격의 것으로 매일오전 九시부터 오후 八시까지 개장된다. 입장료는 어른 一百五十원, 어린이 七十원.</p>
조선일보	1968-08-02	3	<p>사직공원 풀 개장</p> <p>종로구사직공원안에 마련한 풀이 1일 개장됐다. 서울시가 민간자본 2천3백만원을 유치해서 국제규격에 맞추어만든 이 풀의 입장료는 어린이 70원, 성인 1백50원. 시당국은 풀입구의 길을 확장키로했다.</p>
동아일보	1968-08-08	7	<p>어린이놀이터 夜間駐車시켜</p> <p>어린이놀이터夜間駐車시켜경찰서 경찰이 공원안에 있는어린이놀이터등을 자가용 및 영업용차량의 야간주차장으로 빌려주고 주차료를받고있어 말뚝이다. 서울종로경찰서관내 사직동 파출소는 지난해九월부터(후략)</p>
동아일보	1968-08-09	4	<p>各區마다圖書館·풀場一개씩마련</p> <p>서울시는 민간자본을 유치,시내각구마다 도서관一개와 풀장一개씩을 신설키로했다. 이도서관과 풀장은 오는九월부터 착공,내년 七월중에는 모두 완공키로했는데 종로구의 경우 사직공원 안에 이미 풀장이 개장되었으며 도서관은 오는 五일 개관할 예정이다.</p>
동아일보	1968-08-20	5	<p>서울市立종로圖書館개관</p> <p>열람席五四五个·藏書五萬여권</p> <p>서울市立종로圖書館이二十日사직公園에서 준공,開館됐다. 종로二街과교다公園뒤에서 移轉된 이圖書館은 一千坪대지에 三층,延建坪一千三十七坪의규모로 七千五百萬원이 所要됐고 五百四十五개의 열람석과 五萬六千七百권의 장서를 갖고 市民에게 奉仕하게된다. 또한 이 圖書館은 學生中心에서 成人·兒童·主婦에까지 利用대상을 확대하고 시청각관계 특수활동실을 운영한다.</p>
경향신문	1968-08-20	4	<p>市立鍾路圖書館개관</p> <p>學生·主婦·兒童閱覽室갖춰</p> <p>서울시립종로도서관이 20일상오10시 개관됐다. 이도서관은 과교다공원증수계획에</p>

				따라철거된 鍾路도서관대신 새로사직공원1천평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새로운 건물로 마련된것이다. 7천5백만원의 예산을들어 지난67년8월착공 1년만에 완공한 이 도서관은 학생 주부 아동 성인열람실을 갖추고있으며 열람석5백45석에 5만6천7백권의 장서를비치 하고있다.
동아일보	1968-09-02	4	알림	알림 ◇단군성전및사직(社稷)기념관낙성 봉축제 집행위원회(위원장李熙昇)주최 낙성봉축제=三일 오후一시반,사직공원내 사직단.
동아일보	1968-09-03	7	사직紀念館단장 奉祝제전도	사직紀念館단장 奉祝제전도 사직공원안에있는 단군성전과 사직기념관이 새로 말쑥하게단장되어 三일오후 그 낙성봉축제전이배풀어졌다. 개국시조 단군등을 봉안하고있는 이 단군성전과 사직기념관은 韓國인의 국가의식 과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일본인들의 정책으로 담장이 헐리는 등 황폐해지고 주 위가 높아터로 되는 등 수난을 겪다가 이번 사회유지들의 성금으로 중수된 것이 다. 이번 새로 단장된 성전에는 높이 二·七m의 단군상과 역대왕조의 초대왕·충의열사 의 위패 및 사직신위를 모시고 있다.
동아일보	1968-09-05	5	民族正氣·主體 性的支柱 檀君 聖殿·사직紀念 館완공	民族正氣·主體性的支柱 檀君聖殿·사직紀念館완공 民族的始祖 檀君을모신檀君聖殿과 사직紀念館이三日오후一時半사직公園에서준공, 봉헌式을가졌다. 二·九m높이의 檀君坐像과영정(影幀),歷代創業主·忠義烈士 및 사직神位 등 十四位 의 위패(位牌)를 모신 檀君聖殿은 天華佛教布教院長 李淑峰씨의 노력으로 九年만 에 二百五十坪대지에 八百萬원의 豫算으로 完工, 社團法人顯正會(理事長=李熙昇) 에 移管된 것이다. (후략)
동아일보	1968-10-01	8	알림	알림 ◇현정회(이사장 李熙昇)주최개천절기념단군사직신대제및강연회=三일 오전 十一시,사직공원내 사직기념관,연사및연제우리민족의전통적사상(申奭鎬),개천절의 역사적의의(李瑄根).
동아일보	1968-10-02	3	開天節奉祝祭 顯正會	開天節奉祝祭顯正會 현정회(顯正會·이사장李熙昇)는 三일 제四三〇一회 개천절을 맞아 이날오전十一시 사직공원안에있는 단군성전및 사직기념관에서 개천절봉축제및 추계사직제를지낸다. 이식전은 배달민족(후략)
동아일보	1968-12-14	8	市内네곳에선열 彫像건립	市内네곳에선열彫像건립 財界서 4,000萬원 헌납 着工 애국선열 조상(彫像)건립위원회는 내년五월말까지 시내 네곳에 乙支文德·金庾信· 栗谷·元曉大師등 四기의 선열조상을 건립하기위해 계계로부터 四千萬원의 헌납을 얻어 그 제작에 착수했다. (중략) ▲栗谷상(동양양회주식회사 李洋球, 金貞淑, 사직공원안) (후략)
경향신문	1969-01-11	8	서울 69년 하 수도 건설및골 목行政의청사진 (1) 산악환상도 로	서울 69년 하 수도 건설및골 목行政의청사진 (1) 산악환상도 로 산악환상도로 해발 백80m에 경사30도 반타원형으로 北岳 누벼 ○---장의문~사직공원안 황학정뒷산~무악재~안산~연희동을 연결하는7.4km의능선 도로와 아리랑고개~미아리고개~서라벌예술대뒷산~고대뒷산~중앙아파트뒤를거쳐 신설동에 이르는 2km의 능선도로가 오는2월에 착공, 10월말까지 완공된다. 총연장 9.4km의 이능선도로는 지난해 9월28일에 개통된 9.2km의 북악능선도로 와 연결됨으로써 신설동에서 연희동에 이르는 18.6km의 산악 환상도로가 이루어 진다. (후략)
동아일보	1969-03-29	6	金庾信장군銅像 착공式	金庾信장군銅像 착공式 28日 서울市廳앞 廣場서 愛國선열彫像建立委員會(총재金鍾泌)는 二十八日市廳앞광장에서 金成坤씨의 基金 헌납으로 세워지는 金庾信장군의 彫像建立起工式을 가졌으며,이어 李栗谷선생元曉 大師乙支文德將軍의 銅像着工式을 四月四日까지 순차적으로 갖는다. (중략) ▲栗谷선생(金貞淑)=사직公園 (후략)
동아일보	1969-06-19	8	五개풀 20日開 場	풀 20日 開場 서울시는 二十일부터서울운동장 풀장을비롯 四개공원의 어린이 풀장등六개의 풀 장을 일제히개장한다. 九월말까지 개장될풀장의 개장시간은 오전十一시부터 오후六시까지이며입장료는 작 년과 같다. 개장될 풀장은 ▲서울운동장▲사직공원▲목정공원▲인현공원▲장충공원▲영등포제2공원

동아일보	1969-07-10	6	YWCA水泳講習	YWCA水泳講習사직공원풀서 서울YWCA가 주최하는 하기수영강습회가七日부터八月二十九일까지사직공원수영장에서 열린다. 대상은 직장여성 여학생 어머니와 어린이. 매일 十시부터 시작하는데 직장여성반(후략)
동아일보	1969-07-23	3	장마가 겹히자 풀에서 수영연습에 나선 어머니들	장마가 겹히자 풀에서 수영연습에 나선 어머니들... <사직공원 풀에서>  장마가 겹히자 풀에서 수영연습에 나선 어머니들... <사직공원 풀에서>
동아일보	1969-08-09	7	栗谷선생 銅像 제막 사직公園에 높이 4.5m	栗谷선생 銅像 제막 사직公園에 높이 4.5m 栗谷 李珣선생의 동상제막식이 九일 오전十시서울 사직公園에서朴대통령을비롯,각 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거행됐다. 애국선열 동상건립사업위원회(총재 張太和)가 세운이동상은 높이四.五m 좌대높이 三.六m로 도포에 정자판을 쓰고 서가옆에 서있는 栗谷선생의 못브이 조각됐다. 동상건립비는 동양시멘트 사장 李洋球씨가 헌납했으며 제작은 홍익대 金貞淑교수가 맡았다.
동아일보	1969-08-09	7	사직公園에 세워진 栗谷李珣선생동상	사직公園에 세워진 栗谷李珣선생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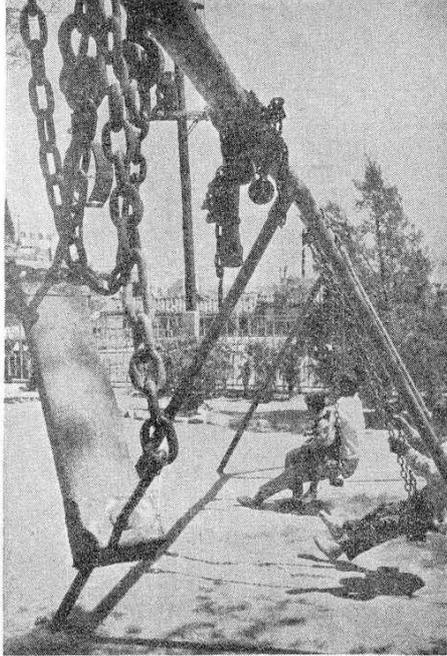
				 <p>사직 공원에 세워진 栗谷 李珣선생동상</p>
동아일보	1969-08-11	4	돈벌기에 눈어둔 풀場	<p>돈벌기에 눈어둔 풀場          定員 초과·管理소홀로 事故 잦아          서울시내 시립 또는 사설풀장들이 정원을 배이상이나 초과하면서까지 수영객들을 마구 입장시키는가하면 관리소홀로 인명까지 앓기고있어도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맡은 당국이나 업자들이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있다. (후략)</p>
동아일보	1969-08-19	8	어린이公園	<p>어린이公園          인왕山둘레 50萬평에          一億들어 내년 完工          서울시는 인왕산주변의 五十여만평에 어린이들을위한 종합공원을 건설키로했다. 자하문밖에서부터 사직공원뒷산허리와 홍제洞산중턱을 지나는 스카이웨이를 중심으로 한지역에 건설될 이 어린이종합공원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그안에 어린이놀타기장 사다리타기장 풀장등 체력단련을 위한 각종시설과 오락시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등이 마련되고 관상동물을 방목하는 등 다목적 종합공원으로 개발된다.          十九일오전 金玄玉서울시장은 이 어린이공원계획을 확정발표하고 건설공사는 약 一億원 예산으로 금년 후반기에 착공, 내년 여름철까지는 기본시설을 완전히 갖추게 될것이라고 말했다.</p>
동아일보	1969-10-13	3	인왕 스카이웨이 開通	<p>인왕 스카이웨이 開通          사직터널—창의門까지2.8km          인왕산중허리를굽이도는 「인왕능선스카이웨이」가十三일개통,또하나 서울의 명소로 등장했다.          十三일오전十시개통식에는 朴대통령이참석,개통테이프를끊었다.          사직공원 터널입구에서 출발, 인왕산 동쪽산허리를굽이돌아창의문까지 이어지는 이 스카이웨이는 전장二·八km에달하는데 지난二월一일 서울시에 의해 기공,만八개월만에 완공된것이다. 이공사에는 1억2천3백만원의 공사비와 연인원 3만명이 투입됐으며 뚫어낸 암반만 10만7천입방미터에 달했다.          북악스카이웨이와 이어지는 인왕능선스카이웨이는 앞으로 유료 도로로 운영될것인데 50원의 통행세를 내면 북악스카이까지 통과 할수있게된다.</p>
동아일보	1969-12-08	3	市民運動場35개新設	<p>市民運動場35개新設해初 수유地區등 八곳에 서울시는 내년초에 착수할 수유토지구획정리지구등 八개지구에 평균三百평정도의 시민운동장 三十五개소를 설치키로했다. (중략)          서울시는 또한 35개소 운동장외에도 남산공원 사직공원 정릉 우이동 도봉동 독섬 유원지 내의 유휴지를 운동장으로 개발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p>
동아일보	1969-12-12	4	公園·綠地 새해 사업確定	<p>公園·綠地 새해사업確定          四億들어 40건着手          市民아파트地域엔 沙防工事          서울시는 내년에 四億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공원과 구획정리지구일대에三十八개</p>

				의 「공원운동장」을 개설하는 한편 모두 四十여건의 공원 및 녹지사방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사직공원 우이洞유원지 남산식물원 뚝섬유원지 등과 시내 김포시흥 신림 영동 역촌 망우지구등 구획정리지구 三十三개소에 모두 三十八개의 「공원운동장」을 신설하는 한편 관악공원의 기초공사를 하고 남산타워호텔옆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며 시내 연희입체교차로 등 十四개소에 녹지대와 분수대를 개설하는가하면 六九年과 七〇년에 세워질 시민아파트 지역 일대에 사방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인다. (후략)
--	--	--	--	--

- 1970년대

신문명	년월일	면	제목	본문
동아일보	1970-02-05	8	영등포유통센터 등 民資유치事業確定	영등포유통센터 등 民資유치事業確定 서울시는 五일 금년에 유치할 민자사업을 三十七건에 一百七億六千五百三十三萬一千七百圓 규모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될 二十건이 포함되며 새로운 十七건은 삼청터널공사(예산 1억6천2백8십만圓)를 비롯(중략) ▲사직공원개발(3백4십만圓)(후략)
동아일보	1970-02-14	8	觀光코스二元化	觀光코스二元化 엑스포70對備三月一日부터 서울시는 十四일 오후 三時부터 日本서열리는 엑스포70에 대비, 종래 산발적이었던 시내관광코스 순행을 관광대상종류별과 시간별로 일원화, 시내각관광업소에 이를 따르도록 지시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코스 일원화 계획은 고궁관광코스 시가지관광코스 산업시설관광코스(1일 오후 1회 운행) 등 3개 종류를 각 종류마다 4시간코스와 1일코스 두가지로 나누어 모두 6개코스로 하고 그 요금과 관광지에서의 체류시간을 한정시켰다. (중략) ◇1일코스 ▲시가지코스=경복궁~사직공원~인왕스카이웨이~북악스카이웨이~고려대학교~한양대학교~위키힐~청계천고가도로~코트라~덕수궁(55km)·900원 (후략)
동아일보	1970-05-09	7	사직公園에 師任堂 彫像 오늘 着工 九月 除幕	사직公園에 師任堂 彫像 오늘 着工 九月 除幕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회장張太和)는 九일 오전 10시 서울종로區 사직公園에서 申師任堂의 조상건립공식을 가졌다. 栗谷동 상영에 건립될 이동상은 서울대미대 崔滿麟교수가 조각한 것으로 오는 九월 말 제막된다.
동아일보	1970-06-19	7	區마다 어린이公園	區마다 어린이公園 區劃地區 38곳엔 새運動場 서울시는 금년도 정서환경조성사업으로 모두 三億二千萬圓의 예산을 들여 일반공원 六개소를 새로 단장정비하고 각구에 一개소씩 어린이공원과 구획정리지구내 三十八개소에 어린이운동장을 건설키로 했다. 이번 구획정리지구내에 세워질 어린이운동장 38개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사직공원내 ▲장충공원내(후략)
동아일보	1970-08-06	8	어린이 풀場 다섯곳 開場	어린이 풀場 다섯곳 開場 서울시는 六일 시내중區인현공원 어린이풀장 등 五개소의 풀장을 일제히 개장했다. 오는 九월 말까지 개장될 풀장은 아침 九시부터 오후 六시까지이며 입장료는 十圓. 시당국은 개장된 풀장에 안전관리원을 고정배치하고 구급약품 소독약품등을 배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는데 개장된 풀장은 다음과 같다. ▲인현공원 ▲장충공원 ▲영등포제2공원 ▲묵정공원 ▲사직공원
경향신문	1970-08-13	8	과출소서 30여대 돈받고 말아 駐車場된 사직공원	과출소서 30여대 돈받고 말아 駐車場된 사직공원 서울종로구 사직공원 안과출소주위의 공원빈터가 주차장으로 이용돼 저녁만되면 각종자가용차 30여대가 몰려들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사직공원은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조용해 어린이들과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차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다. 공원입구에 자리잡은 사직과출소측은 단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 운전사들로 부터 한달에 2천여원씩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거두고 있는데 일반 주차장은 한달에 5천여원씩 받기 때문에 4개월전부터 이곳으로 주차장을 옮겼다고 운전사들은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1970-10-03	7	開天節	開天節 四三〇三年 ---곳곳서 紀念式



			▲종로구 사직공원▲중구 장충공원▲동대문구 전농공원▲성동구 뚝도유원지▲성북구 정릉공원▲서대문구 안산공원▲마포구 와우공원▲용산구 남산공원▲영등포구 봉천동151-1등 2개소
동아일보	1972-05-05	6	망가진채 放置된 어린이廣場의 危險한 쇠그네 망가진채 放置된 어린이廣場의 危險한 쇠그네 가뜩이나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가 부서진채 방치되거나 무책임한 어른들에의해서 침식당하고있다. 서울 사직공원어린이놀이터에 마련된 그네만하여도 어른들이 타서 줄이 끊어진채 방치되는등 관리가 엉망이다. (후략)
동아일보	1972-05-05	6	부서진 그네는 아예 매달아놓고 그나마 성한것은 어른들차지. <서울사직공원=尹錫奉기자>  부서진 그네는 아예 매달아놓고 그나마 성한것은 어른들차지. <서울사직공원=尹錫奉기자>
동아일보	1972-06-09	6	市文化財管理위해 「結緣」 추진 學校·연고團體등과, 「優秀」엔 표창 서울시는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기위해 시가 관리하고있는 국보 보물 사적등 문화재 四十四점중 관리하기 까다로운 六점을 제외한 三十八점에 대해 그 인근학교 또는 연고단체 및 연고인과 결연, 평소 보호활동에 힘쓰도록 했다. (중략) ▲보물177호 사적단정문(종로구 사직동)=배화여고▲사적121호 사적단(“)=▲보물 235호 장의사지 당간지주(서대문구 신영동)=세검국민교(후략)
동아일보	1972-06-10	6	市,오늘저녁五 곳서市民에 건전歌謠보급 서울시는 건전한 가요보급을위해 각구청별로 어머니합창단과 YMCA합창단이 출연,十日오후 六시 시민합창 운동을 사직공원등에서 벌인다. 市,오늘저녁五곳서市民에 건전歌謠보급 서울시는 건전한 가요보급을위해 각구청별로 어머니합창단과 YMCA합창단이 출연,十日오후六시 시민합창운동을 사직공원 등에서 벌인다.
동아일보	1972-07-21	7	남山避暑客 三萬 通禁時間도 있어 거리 (중략)밤늦게까지 더위를 피해 한길을 찾아 나온 시민들은 통금넘어서도 발길을

				돌릴줄 몰라 납산 장충 사직공원과 독섬한강변에는 한반의 피서객들이 지쳐앉았다(후략)
동아일보	1972-08-02	6	市營풀장에衛生감독관	市營풀장에衛生감독관 市,市립病院長책임아래三명씩 常住케 서울시는 二일 시영풀장에대해 시립병원장의 책임아래 간호원二명 보건기사一명 등을 고정배치,수질관리등 풀장위생감독을 담당하도록했다. (중략) ▲사직어린이풀장=서대문병원 ▲인현어린이풀장=마포병우너 ▲영등포제2공원풀장=영등포병원.
동아일보	1972-08-24	6	200여명의 목숨앗은 山사태·築臺붕괴의 實態	200여명의 목숨앗은 山사태·築臺붕괴의 實態 安全不在의 大量壓死 이번 비에 一三〇곳 山허리 깎아만든 道路邊서 큰慘事 아슬아슬한 돌山 50곳·땅 안다진 住宅團地등 放置 高地帶 날림축대默認...거의 무너져 (중략) 이번 산사태는 북악스카이웨이와 남산순환도로등 산허리를 가로질러만든 도로주변과 절개지등에서 많이 일어났다. 사직동에서 인왕산 북악산등의 산허리를 지나 정릉으로 연결되는 북악스카이웨이는 곳곳에 급커브진 비탈길이 많아 산사태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곳인데 이번 평창동 참사도 팔각정에서 자하문쪽으로 300m지점에서 길이 70m가 함몰하여 빚어진 것이다.
동아일보	1972-12-25	6	세모에 찾아본 시립 厚生施設 (1) 아동병원	세모에 찾아본 시립 厚生施設 (1) 아동병원 各界선물받고 밝은눈망울 을 一,七二二명保護·외래진료二萬六千명 棄兒 많아 看護員·施設확충돼야 정글벨소리와 함께 저물어가는 세모,찾아갈곳없는양로원의 노인이나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의 어린이들은 자선단체들의 정성어린 온정에도 불구하고 이런때엔 쓸쓸함이 더하기마련. 그래도 내일의 양지를 향해 외로움을 달랠가고 있는 이들 불우한 사람들이 수용되고 있는 시립 후생시설을 살펴본다. <편 집자주> 대부분 핏덩이로 버려진 기아들로서 시립아동병원(종로區 사직洞 산一)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간호원이나 보모들이 물려준 젖(우유)를 빨며 눈매를 초롱초롱 빛냈다. (중략) 二千二百四평의 땅위에 건평 一千一百八十三평의 아동병원은 지난四八년 중區북창洞에있던 귀속재산 경성산부인과를 시에서 인수, 처음에는 보건병원으로 발족했다. 六·二五때 병원이 불타버려 五一年 十月 전쟁고아진료를 목적으로 중區주자洞에서 업무를 계속하다 十七년전인 五五년 현 위치로 옮겼고 五六년에는 외래진료소를 신축,十五세미만의 어린환자들을 진료하고 부모없는 四세미만의 영아들을 받아 기르는 특수시설로 발족한 것이다. 이병원은 六六년 시립영아원을 통합, 한때 보육병원으로 부르기도 했으나 六九년 四월 다시 「아동병원」으로 되돌아갔다. (후략)
동아일보	1973-03-13	7	市警건의 公園·古宮 「禁酒地」로	市警건의 公園·古宮 「禁酒地」로 소란막게 못팔고 못마시도록 서울시경은 十三일 입산통제령에따라 시내 고궁과 공원에 봄철 행락인파가 몰려들것으로 보고 이지역에 대한 음주 소란을 막기위해 고궁 공원에서 술판매와 술마시는것을 금지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경찰은 시내 덕수궁 창경원 창덕궁 종묘 경복궁 등 5개궁과 파고다공원 사직공원 등 2개공원을 술없는 지역으로 책정,▲지정고궁 공원내의 음주 및 주류판매 행위규제를 위한 행정명령▲구내음식점 매점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건부허가▲입장객의 주류휴대 금지 등을 문공부에 건의했다. 경찰은 이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주류판매자와 휴대자 음주자 등을 적발, 즉심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973-03-17	6	올해一億여원들여 어린이公園 施設補修	올해一億여원들여 어린이公園 施設補修 남산·사직등 擴張도 서울시는 十七일 시내 아동일반공원과 유원지등의 시설확장보수에 一億四千八百九十萬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올해 시내三十一개 아동공원안의 낡은그네 등 시설물을 보수, 어린이의 부상 사고 등을 막고 남산 삼정 사직 탑동공원의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도봉산장 등 유원지의 시설도 정비키로 했다.
동아일보	1973-03-31	11	都心地 12개所 一方通行 해제	서울시경은 四월一일부터 도심지교통소통을 원활히하기위해지금까지의 도심지 十八개일방통행로 가운데 十二곳의 일방통행조치를 풀었다. (중략) 일방통행해제▲내자과출소-사직공원▲종합청사앞~내자과출소 (후략)
동아일보	1974-05-28	6	복지施設 現場의 明暗 (3) 市立아동病院	복지施設 現場의 明暗 ③ 市立아동病院 看護員·보모不足에 母情缺주린 童心 더욱 외로와 세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때 이미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운명이 주어져버렸다. 핏덩이인 채 싸늘한 길바닥에 버려진 기아(棄兒)들. 집과 부모를 잃은 다섯살 아래의 어린 고아들. 고아원에서 병이나 치료를 받기위해 넘겨진 어린이들. 이러한 불우어린이들이 시립아동병원(종로區사직洞산一)에서 자라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조차 없으며 생년월일도 모른다. 그래서 이곳에 수용되면 우선 이름부터 주어지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어림짐작으로 생년월일을 받게된다. 병실 二十三개에 수용보육실 八개인아동병원에는 현재 四百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다. 지난 四八年 중區 북창洞에 있던 경성산부인과병원을 귀속재산으로 인수, 보건병원으로 발족한 것이 현 시립아동병원의 출발이다. 그뒤 五五년二월 현위치에 옮겨 건물을 지었고 五六년五월 외래진료소를 신축, 아동병원으로 개칭했으며 六六년 시립영아원을 통합, 보육병원이라 부르다 지난 六九년 다시 아동병원으로 불리게 됐다. (후략)
동아일보	1973-06-26	5	시원한 野外 水泳場	시원한 野外 水泳場 실내와 야외시설을 합해 서울시내만해도 二十五군데가 넘는 수영장이지만 주말을 기해 대부분 문을 열었다. 三十도가 넘는 무더위속에 어린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조른다.가족이 함께 쾌적한 야외공기를 마시며 소풍을 겸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장소 몇곳을 알아보면 (중략) 그밖에 정릉의 스타폴장 사직공원안의 파라다이스 풀장이 녹음속에 맑은 공기를 가지고 소규모인대로 야외풀장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동아일보	1973-11-22	6	公休日 「車없는거리」 확대 市方針	公休日 「車없는거리」 확대 市方針 서울시는 二十二일 유류난을타개하기위한 장기적인 운수관계대책으로 앞으로 공휴일의 도심지역 「차없는 거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방침을세웠다. (중략) 서울시는 우선 오는 25일부터 명동에 이어 무교동과 다동 남산순환도로를 공휴일 차없는날로 실시한 후 이어 안국동~사직공원~독립문~서울역~퇴계로~동대문~을곡로를 잇는 제1순환선에도 「공휴일 차없는 날」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지의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향신문	1974-01-23	6	文化財11점 새指定	文化財11점 새指定 興化門·황학정·와룡묘등 有形 9·民俗자료 2點 서울시는 23일 지금까지 버려져던 시내중구장충동에있는 흥화문등 9점의 유형문화재와 와룡묘등2점의 지방민속자료를 서울시지방문화재로 새로지정했다. (중략) ◇유형문화재(중략)▲제25호=황학정(종로구사직동산1)▲제26호=석과정(서대문구 부암동)▲제27호=한글고비(성동구하계동12) (후략)
동아일보	1974-06-10	5	사직공원에서 전도하고 있는 엑스포로74의 여신도들	사직공원에서 전도하고 있는 엑스포로74의여신도들.

			 <p style="text-align: center;"><b>사직공원에서 전도하고 있는 엑스플로74의 여신도들.</b></p>
동아일보	1974-07-10	6	<p>史実속의 우리동네 漢陽都邑이후 살피본 洞名沿革 ⑧ 체부·사직洞 用兵 담당하던 體府廳자리 체부洞 사직洞 土·穀神모시고 豊年빌던곳 (중략) 사직동은 1914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서(北署)순화방(順化坊)사직동계(社稷洞契)에 속해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개편때 종전의 창평동 사직동 일부 무덕문(武德門)박정동 일부를 흡수, 사직동으로 출발했다. 우리선조들도 이를 답습, 사직단을 설치했는데 멀리는 신라 37대 선덕왕 때 사직단을 설치했으며 고려때는 제6대 성종 10년부터 왕의 교지에 의해 사직단을 설치, 왕이 해마다 몸소 사직단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나라가 융승하고 백성이 편안하기를 빌었다. 이태조 성제는 1394년 서부(西部)인달방(仁達坊)즉 지금의 사직공원안에 사직단을 설치했다. 토신과 곡신을 모신 두개의 단(壇)높이는 모두 사방이 25자 높이가 3자4촌이었으며 신좌(神座)는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도록 했다. 또한 사신(社神)옆에는 후토신(后土神)을, 직신(稷神)옆에는 후직신(后稷神)을 단에 모셔 배치했으며 매년 세차례씩 정월 2월 8월에 제단에 풍년을 기원하고 나라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큰 제사를 지냈다.</p>
동아일보	1975-03-11	6	<p>市立푸울場料 引上 최고百%,公園入場料도 서울시는 11일 지금까지무료로 개방했던 어린이대공원내 유희시설인 달로케트와 요술의집 이용료를 유료화하는 한편사직공원푸울장 북악공원푸울장(우이洞파라다이스푸울장)정릉제1,2푸울장 장충푸울장 등 시립수영장 입장료도 50~100%씩 인상, 어린이는 종전 1백원에서 2백을, 어른은 2백원에서 3백원을 받기로 했다.(후략)</p>
동아일보	1975-03-31	5	<p>文化短信 ◇金大心스님(장미스님)장미심기運動=4월1일오전8시 KAL호텔 대연회장(26층)서 아침공양후 오전9시부터 파고다 사직公園서 장미를 심는다. (후략)</p>
경향신문	1975-06-20	6	<p>올여름을 시원하게... 入場料 올라 千5百원까지 25일開場---값싸고 規模커 가족동반에 좋아 어린이 大公 園施設최고---水中窓있어 水泳모습의 촬영도 泰陵국제水泳場市內 주요품장을 돌아본다 (중략) ▲파라다이스풀=종로구관내 유일한 옥외풀. 길이50m 폭25m의 국제규격인 이풀은 하루 3회이상 정수정화기로 물을 여과하고 매시간 소독처리해 물이 깨끗한 것이 자랑이라고 내세우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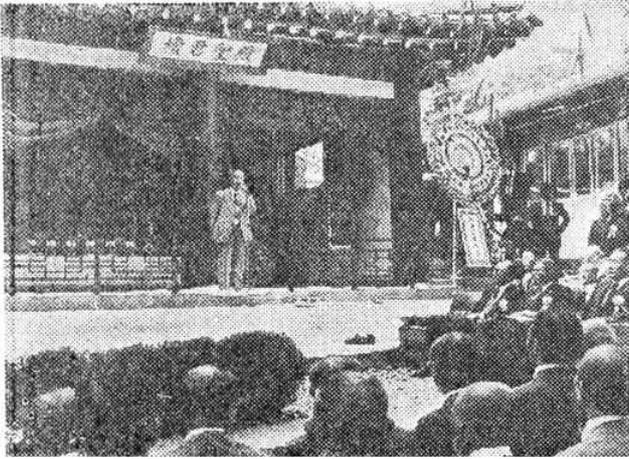
			<p>수심1.3~1.9m인 이풀은 수용능력 1천명.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베이비풀이 따로 있다.</p> <p>요금은 어른4백원, 어린이 3백원이다.</p> <p>수영초보자를 위한 「10일강습과」를 설치할 방침인데 수강료는 어른 3천원, 어린이 2천원. (후략)</p>
동아일보	1975-06-21	6 푸울場料 1.2百원 올라	<p>푸울場料 1.2百원 올라</p> <p>서울시에서 직접운영하는7개의시영푸울을포함한 시내24개푸울이 오는25일까지모두 개장한다.</p> <p>대부분의 사설푸울은 작년보다 1백~2백원씩 입장요금이올라 성인의 경우3백원에서 1천5백원까지 받는곳이 있는데 지역과 시설에 따라 요금이 다양하다.</p> <p>(중략)</p> <p>▲어린이대공원=어른 3백원 어린이 2백원▲서울운동장=1백원 50원▲파라다이스(사직공원내)=4백원 3백원(후략)</p>
동아일보	1975-09-03	6 無斷駐車地域 27곳陽性化	<p>無斷駐車地域27곳陽性化</p> <p>市警中央分離臺「U턴」도許容</p> <p>서울시경은 3일 교통체증현상을빚고있는 도심지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명洞 예술극장앞등 무단 주차지역27개소를 양성화,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좌회전 금지에따른 교통난해소를 위해 소형차 및 승용차에 한해 고가도로 교각 및 중앙분리대 등에서 「U턴」(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것)을 할 수 있는 16개소를 신설,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는 대신, 주차금지구역의 주차행위는 종전보다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p> <p>(중략)</p> <p>◆주차허용지역 27개소</p> <p>▲남대문경찰서앞▲국립도서관앞▲명동예술극장앞▲청계2가대홍상사앞▲농협종로지점앞▲연세대앞▲사직공원앞</p> <p>(후략)</p>
동아일보	1976-03-04	5 「民衆劇場」移轉	<p>「民衆劇場」移轉</p> <p>극단「민중극장」은 지난달29일 새 사무실겸 연습실을 마련,忠武路3가에서鍾路구社稷동210의1(사직공원정문앞 터널진입로부근)로 이전했다.</p> <p>오는6월 이사무실을 소극장으로 개조,長短幕연극을 연중무휴로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극단은 앞으로 개관하게 될 소극장에서 연극작업을 희망하는 대학2년제학 이상의 신인들이 참여(엽서로 연락)를 바라고 있다.</p>
동아일보	1976-03-16	7 사직공원뒤 檀君聖殿에서 베풀어진 승모제	<p>사직공원뒤 檀君聖殿에서 베풀어진 승모제.</p>  <p>사직공원뒤 檀君聖殿에서 베풀어진 승모제.</p>

경향신문	1976-03-23	6	江南구 내곡동에 市立아동병원	江南구 내곡동에市立아동병원 서울시는 23일 강남구 내곡동 산12의425 1만7천평의 대지위에 시립아동병원을 새로 건립키로했다. 오는4월초 8억3천8백50만원의 공사비를들여 착공할 시립아동병원 신축청사는 연건평1천6백50평의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건물로 77년말 준공할계획이다.
매일경제	1976-07-07	8	수영강습 「풀장」 안내	(전략) 서울제일수영장 舊 사직과라다이스풀장. YWCA수영강습=저녁6시50분부터 6일씩 회비 3천원. 자체강습=10일간 大人5천원, 小人4천원, 1일입장료 大人5백원, 小人4백원. 개장 시간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 (후략)
매일경제	1976-08-07	7	市立兒童病院신축 指名契約制로轉換	市立兒童病院신축 指名契約制로轉換 서울시는 앞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안이 비토된 시립아동병원이전신축공사(1차)를 지명계약제로 전환,발주키로 했다. 이공사는 총4억9천5백만원의 투입하여 건설할 지하1층,지상3층,연건평1천7백36평 규모의 병원신축에 따른 처녀공사인데 이번 1차에는 9천1백만원을 들여 4천평의 부지정지공사와 본관지하층3백93평에 대한 골조 및 전기배관공사를 시공케 된다. 관급자재로 레미콘1천2백13㎡와 철근70.4톤이 지급될 이공사는 아직 지명업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당초 수계대상사였던 고려건설진흥이 포함된 본청지명군2군2조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1976-08-24	7	市立兒童病院敷地 江南區에 確定	市立兒童病院敷地 江南區에 確定 시립아동병원부지가 江南구內谷동산12의425 1만7천평의 대지로 확정되었다. 8억4천3백50만원의 예산을들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백50개의 병상(病床)을 갖게될 이건물은 이달하순에 착공, 내년9월30일에 준공될 예정이다.
동아일보	1976-09-17	6	市立兒童病院 擴張工事 착공	市立兒童病院 擴張工事 착공 서울시립아동병원 확장건립공사 기공식이 16일 새로 이전할江南구內谷동산12의425현장에서 거행됐다. 총공사비 8억4천3백50만원으로 내년10월15일 준공예정인 이병원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본건물은 1천5백79평,기숙사60평,부속건물 10평으로 2백50개의 병상을 갖는다.
경향신문	1976-09-17	6	市立아동병원 移轉	市立아동병원 移轉 江南내곡동에 8億들여 착공 서울시립아동병원 이전신축공사가 16일 기공됐다. 강남구내곡동산 12의 425 1만4천3백91평대지위에 세워지는 아동병원은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 콘크리트건물. 올해는 우선4억6천4백50만원을들여 건물을 짓고 내년에는 3억7천9백만원으로 의료장비를갖춰 10월중순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시립아동병원은 종로구사직동에 있으나 시설과 주변환경이 좋지않아 이전하게 되었다.
동아일보	1977-01-22	6	社稷洞市立兒童病院자리 새公園造成키로	社稷洞市立兒童病院자리 새公園造成키로 서울시는 오는10월1일시립 아동병원(鍾路구社稷동1의48)이 江南구內谷동새청사로 이전됨에따라 현社稷동대지 2천2백51평에는새로운 공원을 조성키로했다. 22일 鍾路구청을 순시한자리에서 具滋春시장은 아동병원 이전후의 문제를 이같이 결정하고 새공원에는 가능한한 어린이용시설을 많이세워 어린이 전용공원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립아동병원은 1948년 중구 북창동의 귀속재산인 경성산부인과 병원을 인수하여 보건병원으로 발족된 뒤 55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만18세미만의 어린이진료와 기아 및 미아의 보호육성 지체불구아 및 정신박약 어린이들을 수용보호해왔다.
동아일보	1977-01-22	6	社稷洞市立兒童病院자리 새公園造成키로	社稷洞市立兒童病院자리 새公園造成키로 서울시는 오는10월1일시립 아동병원(鍾路구社稷동1의48)이 江南구內谷동새청사로 이전됨에따라 현社稷동대지 2천2백51평에는새로운 공원을 조성키로했다. 22일 鍾路구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具滋春시장은 아동병원 이전후의 문제를 이같이 결정하고 새공원에는 가능한한 어린이용시설을 많이 세워 어린이 전용공원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립아동병원은 1948년 중구 北倉동의 귀속재산인 경성산부인과 병원을 인수하여 보건병원으로 발족된 뒤 55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만18세미만의 어린이진료와 기아 및 미아의 보호육성 지체불구아 및 정신박약 어린이들을 수용보호해왔다.
경향신문	1977-01-24	6	사직동 市立아동병원 자리 새公園 만들키로	사직동 市立아동병원 자리 새公園 만들키로

			<p>서울시는 23일 종로구사직동산1 시립아동병원자리(2천2백51평)에 시립공원을만들기로했다.</p> <p>서울시는 시립아동병원이오는9월말 신축중인 강남으로 이전하게되면 이곳을 녹화조경하고 어린이놀이터 및 분수대를 만들어 공원으로 꾸민다는 것이다.</p> <p>시립아동병원은 1948년 중구 북창동의 귀속재산인 경성산부인과병원을 인수하여 보건병원으로 발족한뒤 55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 만18세미만의 어린이진료와 기아 및 미아의 보호,지체불구아 및 정신박약어린이들을 수용보호해왔다.</p>
		公園 만들기로	 <p style="text-align: center;"><b>시립아동병원 자리에 공원이 새로생긴다.</b></p>
경향신문	1977-01-24	6	시립아동병원 자리에 새公園
경향신문	1977-01-26	6	<p>醫療施惠2차診療말을 綜合病院15곳追加指定</p> <p>서울시는 26일 의료시혜확대에따라 2차진료(입원)를 맡을 종합병원 15개소를 추가지정했다.</p> <p>이들병원은 각구별로 1개소씩의 종합병원(12개)과 정신병환자를 맡을 청량리뇌병원(여)시립정신병원(남)및 15세이하의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시립아동병원 등이다.</p> <p>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보건소 민간지정의원 96개1차진료기관과 시립병원 개인종합병원 19개등 모두 1백15개 의료기관이 의료시혜대상자를 돌보게 됐다.</p> <p>◆追加指定診療機關</p> <p>▲서울전역=시립정신병원시립아동병원 청량리뇌병원(후략)</p>
동아일보	1977-02-11	6	<p>地籍告示된「城山大路」編入地</p> <p>서울시는 11일 총연장2천3백40m의 성산대로중 안양천제방구간을 제외한 積善동~공항로간 9천9백20m에대한 측량과 노선선검을 마치고 이에따른 지적고시를 했다.</p> <p>(중략)</p> <p>성산대로의 위치와 주유저축건물·대지</p> <p>◆적선동 정부종합청사 후문~내자호텔간1백70m▲현재 폭25m를 40m로 확장. 특히 북쪽 한일은행쪽을 확장하고 내자호텔 내자동시장입구 근방에서 S형커브였던 길을 내자호텔쪽을 넓혀 종합청사후문~사직공원 앞까지 직선화▲적선동59의1(도로남쪽)삼화신용금고 대부분저축▲"67의2(")건물전부▲"64(")건물약7m"▲"36의1(도로북쪽)孝子동방면도로코오너대부분"▲"31의1(")한국해외개발공사건물9m가량"▲"88의1(")한일은행15m"▲"107의3(")전면도로에서 10m".</p> <p>◆내자호텔~사직공원간2백80m▲현재 폭25m를 남쪽으로 15m확장하고 필운주유소부근 코오너의 튀어나온 부분을 전면 도로에서 20m정도 잘라 곡선구간을 완만하게 조정▲도로북쪽저축건물없음▲내자호텔구건물(도로남쪽)전부저축▲필운동272의2(")성도빌딩전부"▲"262의1(")필운주유소전부저축,주유소뒤 285의3건물도4.5m정도".</p> <p>◆사직공원~사직터널간4백80m▲현폭25m에서 사직공원부근은 도로양쪽으로 社稷동262의85소재 주유소부근은 도로북쪽(주유소쪽)으로 10m씩 확장. 터널전방 1백10m부터는 현도로 좌우쪽으로 각각 확장하여 35m폭으로 조정▲사직공원(도로북쪽)현재보다 2~5m후퇴▲사직동262의79(")전면도로에서 15m후퇴▲"262의85(")주유소 약10m저축▲"214의1(")건물약10m"▲"302의3(")약4m"▲"36의1(도로남쪽)약3m"▲"310의24(")정란여상 약7m"▲"309의2(")교회약5m".</p>
동아일보	1977-04-21	5	세文人之文學碑
			세文人之文學碑를建立

			를建立	<p>作故 文人들의 文學碑가언어어 세워지고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도 다음 세作故文人的 文學碑가 이미 세워졌거나 준비중에 있다.</p> <p>▲金東仁文學碑=우리 文學史上 선구적 역할을 했던 소설가 「琴童 金東仁文學碑」가 서울 사직공원 안에 세워져 23일 오후 3시 제막된다. 「金東仁文學碑」는 韓國小說家협회(대표 柳周鉉)가 주관, 遺族및 三中堂의 도움을 얻어 세워진 것. 金東仁은 동란중인 51년 1월5일 동맥경화증으로 서울 자택에서 별세했다. (후략)</p>
동아일보	1977-08-04	6	市立兒童病院·龍山署자리 公園만들기로	<p>市立兒童病院·龍山署자리 公園만들기로</p> <p>서울시는 4일 시립아동병원등 도심지에 있는 시립공공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자리에는 가급적도시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키로 했다.</p> <p>이에 따라 종로구 사직동의 시립아동병원(대지 2천1백66평 건물8동 1천64평)은 강남구 내곡동 산12-425에 신축중인 아동병원으로 옮기고 본관건물(3층 8백74평)을 제외한 나머지 7동을 헐어 그자리에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공원 조성후 서울시는 본관건물에 서울의 도시계획, 서울의 역사, 각종 시책과 사업 등 서울시정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각종자료를 비치하는 행정자료실로 운영키로 했다.</p>
동아일보	1977-08-05	6	사직동 아동병원터 公園 만들기로	<p>사직동 아동병원터 公園 만들기로</p> <p>서울시는 5일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시립아동병원자리2천1백66평을 공원으로조성,시민의 휴식처로 삼기로했다.</p> <p>서울시는 또 3층의 콘크리트건물인 본관은 내부를개조,서울의 도시계획,서울의 역사 등 서울시정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자료를 수집, 열람할 수 있는 서울시정 자료실로 활용할 계획이다.</p> <p>현재의 시립아동병원은 강남구 내곡동에 신축중인 새병원으로 오는 11월경 이전한다.</p>
동아일보	1977-12-08	6	40年만의 「用途」現實化 一風致地區일제整備내용	<p>40年만의 「用途」現實化 風致地區일제整備내용</p> <p>再開發·美觀·商業지구로區分</p> <p>서울시가 7일 결정고시한 서울시 풍치지구일제정비내역은 해당지역 주민과연고지주는 물론 서울의 개발정책등에 관심을 가진 이라면 누구에게나 획기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 <p>(중략)</p> <p>◆조정풍치지구(중략)▲仁旺지구(옥인동47 인왕산주변 통인 누상 사직 삼청궁정청운 신고동)=84만6천평방m(1백10만6천5백평방)m공원증복 (후략)</p>
동아일보	1978-03-13	5	檀君聖殿·기념관 新築키로 顯正會 15일	<p>檀君聖殿·기념관 新築키로</p> <p>顯正會 15일 御天節맞아 推進</p> <p>오는 15일은 檀君王儉이 승천한뒤 단기4311년에 맞는 御天節이다. 社團法人 顯正會(이사장 李熙昇)는 이날 社稷공원뒤 檀君聖殿에서 단군의 弘益人間정신을 기리는 崇慕祭를 올리는 한편 새로운 聖殿과 社稷紀念館 건립을 위한 범군민적 운동을 펴나가고 했다.</p> <p>顯正會는 이밖에 사직공원의 성역화와 檀君영정의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략)</p>
경향신문	1978-05-06	7	서울市立兒童病院 開院 朴權惠양이 테이프끊어	<p>서울市立兒童病院 開院 朴權惠양이 테이프끊어</p> <p>朴大統領 선물도</p> <p>대통령영에 朴權惠양은 어린이날인 5일상오 서울江南구内谷동에서 거행된 서울시립아동병원 개원식에 참석,개원테이프를 끊은다음 어린이날을 병원에서 보내고있는 아동환자들을 위로해주고 병원관계자들을 격려했다.</p> <p>(중략)</p> <p>朴權惠양은 이어 金聖培서울시제1부시장으로부터 병원현황을 보고받았는데 金부시장은 늘어나는 아동환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수용시설을 개선하라는 朴正熙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 西大門구에 있었던 국내유일의 아동병원을 모두 10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이전, 확충 건립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종전에는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은 후 주로 외국으로 입양을 갔으나 현재는 국내입양이 증가, 전체입양의 80%를 차지하게 됐으며 경제발전으로 기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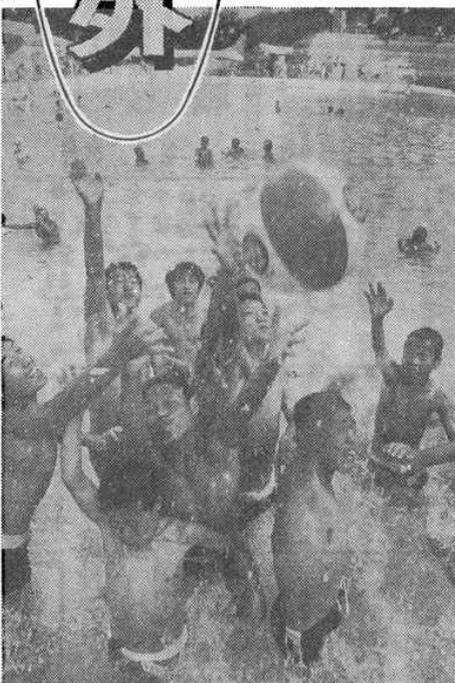
				 <p>차槿憐양이 어린이날인 5일상오서울시립아동병원 개원식에 참석한다음 병원에있는 아들을 위로해주고 있다.</p>
동아일보	1978-05-22	7	고장난空氣銃오발 중학생 重傷	<p>고장난空氣銃오발 중학생 重傷</p> <p>21일 오후2시경 서울鍾路구 사직공원안에있는 공기총 사격장에서 崔在學씨(45·西大門구弘濟2동37)의 장남 容德君(15·大新중2년)이 같은또래의 학생이 잘못쓴 공기총 탄알에 오른쪽 팔을 맞아 중상을 입고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했다.</p> <p>이날 사고는 崔君이 친구들과 함께 사직공원 사격장에서 6백원을 주고 총알 10개를 받아 9발을 쏜 뒤 마지막 1발을 장전해 세차레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아 총을 총대위에 놓고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 다른 중학생이 이총을 만지다 실탄이 발사되면서 崔君의 오른쪽 팔에 맞아 일어났다.</p>
동아일보	1978-06-06	6	文化財 保護구역발표	<p>文化財 保護구역발표</p> <p>5일 서울시가 주변을 보호하기로 결정,새로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서울시 지방문화재 지방기념물 민속자료는 다음과 같다. ▲장충단비▲봉황각(지방유형문화재2호·道峰구牛耳동254) (중략) 황학정(黃鶴亭)("25호·"社稷동1의27) (후략)</p>
동아일보	1978-09-27	5	겨레始祖의 얼굴 檀君표준 影幀	<p>겨레始祖의 얼굴 檀君표준 影幀</p> <p>사직공원聖殿에 새로 奉安되기까지 日帝下 東亞日報서 첫공모---陵정화도 67년의 顯正會 聖像기준 올8월에 洪石蒼씨 완성 開天節을 일주일 앞둔 檀紀4311년 9월27일 서울鍾路구社稷동 사직공원 안에 있는 檀君聖殿에서는 이미 문공부에 의해 확정된 國祖檀君影幀의봉안식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봉행되었다.(중략)</p> <p>121호인 사직단이 있는 사직공원 경내 顯正會의 단군성전 안 檀君聖像 옆에 봉안된 단군영정은 실증성을 초월한 상상화로서 범국민적인 겨레의 승모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다.(중략)</p> <p>顯正會에서는 이 檀君성전을 3백여평 규모로 확장, 현재의 비좁은 聖殿을 넓히고 풀장 공장등 정화의 여지가 많은 사직공원을 國民精神의 도장으로 가다듬을 것을 당국에 건의해 놓고 있다. (중략)</p> <p>李朝때 사직제를 지내온 社稷壇이 있는 사직공원은 유서깊은 곳으로 日帝때 日인들이 민족정기의 결집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곳을 어린이놀이터로 공원화하기도 했었다. (후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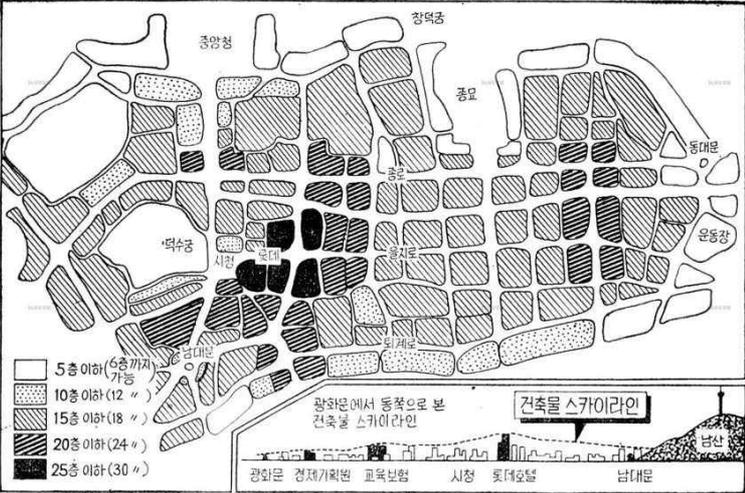
				
동아일보	1978-09-27	7	檀君표준影幀봉안식	<p>檀君표준影幀봉안식 社稷公園聖殿서 300여人士참석 정부표준 단군영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 27일 단군성전에 봉안됐다. 사단법인 顯正會(이사장 李熙昇)는 이날 낮 서울鍾路구社稷동 사직공원안 단군성전에서 각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봉안식(사진)을 가졌다.(중략) 이날 봉안된 표준영정은 현정회가 영정단립으로 빛어지는 폐단을 막기위해 지난1월 홍익대 洪石蒼교수에게 제작을 의뢰, 社稷동 단군성전에 봉안돼있는 단군성상에 따라 가로 1백15cm 세로 1백70cm의 노방지에 그린것으로 문공부는 현정회의 영정제작심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8일 우리나라의 표준단군영정으로 지정한 것이다. (후략)</p> 
경향신문	1978-11-09	7	어린이專用 도서관 내년봄에 開館키로	<p>어린이專用 도서관 내년봄에 開館키로 국내 최초의 아동전용도서관이 서울에 세워진다. 서울시는 9일 종로구사직동 사직공원내에있는 전아동병원 건물을 개조,아동도서관으로 사용키로 확정했다. 서울시는 3층건물중 1층을 아동전용 열람실로,2,3층은 중·고교생열람실·시청각교실·전시실·회의실등으로 활용하고 아동도서 5만권을 비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중 건물개조공사에 착수, 내년봄 개관할 예정인데 시립도서관은 현재 4개(남산·종로·정독·영등포)이다.</p>
경향신문	1978-11-09	7	社稷 市立아동병원 어린이 圖書館	<p>社稷 市立아동병원 어린이 圖書館으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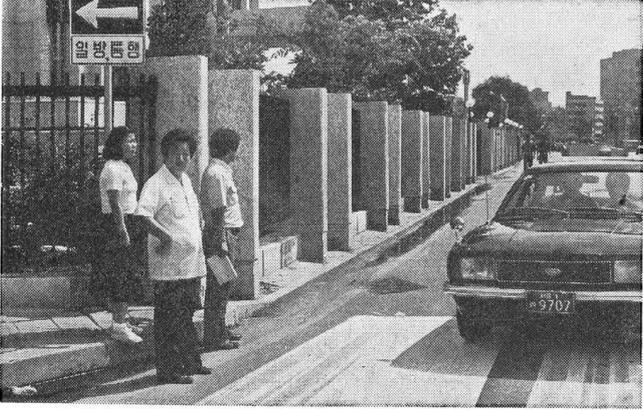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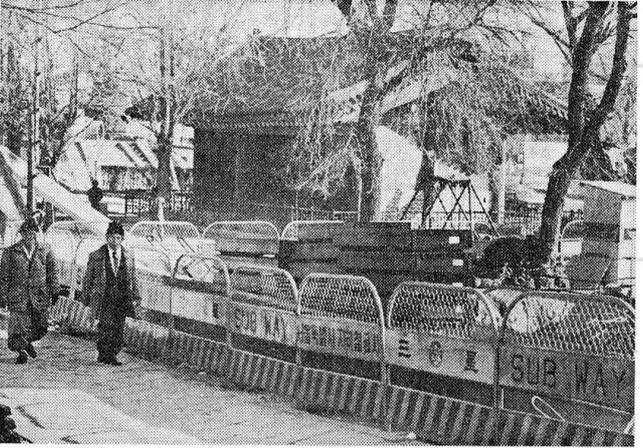
			書館으로	서울시는 9일 종로구사직동1의49 구시립아동병원을개수,시립아동도서관으로 활용 키로하고 내년3월에 개관키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으로이전한 구아동병원자리의 총대지면적2천2백51평,연건평 1천1백91평중 아동병원본관건물 8백72평의 내부를 개조, 1층3백평은 아동전용열 람실로 만들어 3백석의 열람실을 두고 장서 5만권을 확보하는 한편 특별실을 따 로 만들어 음악 및 시청각실 등으로 활용케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978-12-18	7	서울시내년豫算 4,937億원 확 정	서울시내년豫算4,937億원 확정 金湖大路신설 1.2漢江橋확장 三仙~佛光~望遠 東北幹線路건설 (중략) 이밖에도심지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신백화점~安國洞 로터리사이 폭20m길 이 5백40m의 도로를 폭30m로 확장(30억원)하는것을비롯,▲社稷공원~정부종합청 사사이 폭 6~8m길이 7백30m의 도로를 폭20m로 확장(26억원)▲阿峴洞삼거리~ 이대입구 사이 도로를 폭 30m에서 40m로 확장(31억원)▲上水洞~大興洞사이 폭 20m 도로를 신설(30억원)하고 ▲서울대교북쪽 진입로 양화교 동이로에 각각 입 체교차시설을 만든다. (후략)
동아일보	1978-12-28	6	지방文化財 보 호구역指定	지방文化財 보호구역指定 모두26點---5~50m이내로 私有地포함된곳 個人에 通報 서울시는 28일 中구獎忠동2가197에있는 지방유형문화재 1호인 장충단비(獎忠壇 碑)등 서울시내 19점의 지방문화재와 4점의 지방기념물 및 3점의 지방민속자료 등 모두 26점의 지방문화재주변 5~50m이내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고 시했다 (중략) ◇지방유형문화재▲장충단비(中구獎忠동2가197)=경계선으로부터 7m이내지역(중 략)▲황학정(黃鶴亭·鍾路구社稷동1의27.1의48)=10~20m (후략)
동아일보	1979-01-23	6	3월부터 일제測 定 騒音규제 千 百곳指定키로	3월부터 일제測定 騒音규제 千百곳指定키로 學校·종합병원등 주변 위반業所엔 3년이하 징역 서울시는 시내 7백84제 초 중 고교및 대학교,2백3개어린이놀이터,49개 외국공 관,25개동의 주택가,13개공원,16개종합병원등 모두 1천1백9개소를 환경보전법제 14조1항의 규정(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소음도 일제측정에 나설 계획이다. (중략) ▲공원(13)=어린이대공원 파고다 종묘 낙성대 사육신묘 사직 삼청 와우 서소문 효창 여의도자매 도산공원 (후략)
동아일보	1979-03-15	7	社稷大祭봉행 御天節 기념식	社稷大祭봉행 御天節 기념식 사단법인 현정회(이사장李熙昇)는 15일오전 檀君이 하세(下世)한 어천절(御天節) 을 맞아 서울鍾路구社稷동1의50 사직공원뒤단군성전에서 단군과 사직신을 위한 사직대제를 봉행한다. (후략)
동아일보	1979-05-04	6	社稷公園안에... 열람석 7百43 席 어린이市立 도서관 개관	社稷公園안에...열람석 7百43席 어린이市立도서관 개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어린이전용의 시립도서관이 4일 오전 개관됐다. 鍾路구社稷동 사직공원안에 있던 시립아동병원을 개수,총사업비 1억6천8백만원 을 들여 만들어진 이 시립어린이도서관의 규모는 대지 2천2백4평 건물9백13평에 7 백43석의 열람석과 1만2천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후략)
매일경제	1979-05-04	7	어린이전용도서 관 문열어 우리 나라 최초로 서 울사직공원서	어린이전용도서관 문열어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사직공원서 열람석 7백43·책1만2천권 갖춰 국교생등 보호자와함께 이용토록 우리나라최초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인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이 4일문을 열었 다. 세계아동의 해를맞아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선물인 이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서울社稷公園안에 5억원을들여 2천2백4평의 대지에 연1천2백22평 의 지상 3층 건물로서 7백43석의 열람석과 1만2천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후 략)
동아일보	1979-07-27	5	특수교육 연수 회	특수교육 연수회 韓國口語學校가 주관하는전국특수교육연수회가 8월13~16일 서 울市教委 서울교육원(사직공원뒤쪽)에서열린다. (후략)

동아일보	1979-09-21	6	알뜰市場 일제 開場 오늘區·出 張所별로	알뜰市場 일제開場오늘區·出張所별로 각가정에서 쓰지않는 물건들을 서로 교환,매 매하는 알뜰시장이 오는 22일11개 구 출장소별로 일제히개장된다. 각구출장소별로 개장되는알뜰시장의 위치와 개장시간은 다음과같다. (중략)▲중로구=사직공원(오후2시~오후4)(후략)
동아일보	1979-12-05	6	15곳 500萬坪 風致지구指定	15곳 500萬坪 風致지구指定 건축높이8m로 제한 건폐율40% 3百坪넘는건물 못지어 서울시는 5일 道峰구水躰지구등 15개지구 5백36만9천90평에 대해 도시계획용도 상 풍치지구로 지적승인 고시했다. (중략) 지적고시가 된 풍치지구 내에는 건폐율40% 용적율60% 건축물의 높이는 8m이내 로 지어야 하며 건축할 수 있는 대지최소면적은 지구지정이전에 대지로 돼있을 경우 70평, 지구지정후 조성한 대지일경우 2백평이 넘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 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원동기사용공장 90평이상의 작업장 3백평이상 되는 건축물 주유소 창고 등은 지을 수 없다. (중략)▲인왕지구(옥인동47일대 통인동 사직동 청운동일부)=84만6천평방미터(후 략)

- 1980년대

신문명	년월일	면	제목	본문
동아일보	1980-02-27	6	地下鐵 Ⅲ·Ⅳ路 線 확정	地下鐵 Ⅲ·Ⅳ路線 확정 Ⅲ호 碧蹄~良才洞 Ⅳ호 上溪洞~果川  오는29일 착공되는 지하철3,4호선의 노선이 26일 건설부고시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노선은 3호선 碧蹄~良才동간 32.2km와 4호선 上溪동~果川간 35.2km이며 각노선별 주요통과지점은 다음과 같다.  ▲3호선=벽제~삼송리~구과발~불광동~홍제동~독립문~사직공원~중앙청~안국 동~돈화문~종묘~퇴계로4가~장충체육관~금호동~옥수동~압구정동~신사동~고속 버스터미널~교대앞~양재동 (후략)
동아일보	1980-08-05	7	숨막힐정도로 죄어들었던「과 외」의 사슬에 서 풀려난 중고 생들이 시원한 여름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숨막힐정도로 죄어들었던「과외」의 사슬에서 풀려난 중고생들이 시원한 여름을 마음껏 마음껏 즐기고 있다.<사직공원안 풀장>    숨막힐정도로 죄어들었던「과외」의 사슬에서 풀려난 중 고생들이 시원한 여름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사직공원안 풀장>

<p>동아일보</p> <p>1981-05-22</p> <p>1</p>	<p>朴英秀市長 발표 서울都心 最高30層建筑 허용</p>	<p>朴英秀市長 발표 서울都心 最高30層建筑 허용</p> <p>서울의 4대문안 도심지의 고도규제가 풀려 지역에 따라 최고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다.(중략)</p> <p>경복궁 장덕궁 과고다공원 비원 창경궁 덕수궁 종묘 사직단 성곡회성당 경희궁터 일부 등 10개고궁 주변은 고궁 구역경계담이 있는 지점에서 양각(仰角)27도의 사선으로 건물높이를 제한했다.(후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도심건물 높이제한</b></p> 
<p>경향신문</p> <p>1981-06-20</p> <p>10</p>	<p>水泳場이 문을 열었다</p>	<p>水泳場이 문을 열었다 36개소의 位置·定員·料金등을 알아본다</p> <p>서울시내 실내·외수영장이 20일부터 문을 열었다. 올해는 긴 가뭄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10여일이나 앞당겨진것. (중략)  시내 중심부에 YWCA수영장과 서울제일수영장이 있다. (중략) 종로일대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을수 있는 곳은 사직공원 안에 위치한 서울제일수영장. 공원에 민자(民資)로 설립된 이 수영장은 풀의 크기가 가로 50m, 세로 25m로 국제규격이며 8개의 경영코스도 마련되어있다. 수용인원은 풀내가 4백50명, 장내가 9백여명으로 주로 어린이고객이 많이 찾고있다.</p>
<p>동아일보</p> <p>1981-08-17</p> <p>11</p>	<p>地下鐵 3.4호선 都心區間 착공</p>	<p>地下鐵 3.4호선 都心區間 착공 터널·수직갱등工法 交通장애요인줄여</p> <p>지하철3,4호선 도심구간 10개공구가 17일까지 모두 착공됐다. 사직공원~중앙청 앞~安國洞~비원앞~鍾路3街~乙支路3街~退溪路3街~장충공원앞으로 이어지는 3호선은 사직공원앞, 중앙청, 동십자각앞, 비원앞, 명보극장입구, 장충공원 앞 등 5개지점에서 착공됐다. (후략)</p>
<p>동아일보</p> <p>1981-08-21</p> <p>10</p>	<p>人道없엔 綜合廳舍 南쪽길...서울市선 속수무책인가</p>	<p>人道없엔 綜合廳舍 南쪽길...서울市선 속수무책인가</p> <p>정부종합청사 남쪽 담변의 인도가 없어진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도심지 대형건물 신축 때마다 서울시는 주차장 인도 차도 진입도로의 확보를 의무화하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은 계속 엄중히 단속하면서도 상급관청이 몰려있는 종합청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태. 이 때문에 世宗路에서 종합청사 남쪽을 지나 사직공원쪽으로 가려는 보행자들은 종합청사를 한바퀴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나가는 보행자들마다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인지 차량통행의 편리만 고려한 도</p>

			<p>시계획인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한다.</p>  <p><b>人道없엔 綜合廳舍 남쪽길...서울市선 속수무책인가</b></p>
<p>동아일보</p>	<p>1981-12-14</p>	<p>11</p> <p>文化財야 어떻게 되든 땅만파는 地下鐵공사</p>	<p>3號線(호선)공사로 社稷壇正門(사직단정문)흔들 1號線(호선)때도 南大門(남대문)안전시비로 뒤늦게 특수工法(공법) 사용</p> <p>보물제177호로 지정돼있는 서울 鍾路(종로)구社稷(사직)동1의27 사직단(社稷壇(사직단))정문지하철3호선 건설공사로 기초가 흔들리고 건물전체의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p> <p>지난해2월 착공한 지하철3호선(舊把撥(구과발)~良才洞(양재동)·30km(km))은 사직 단정문 바로옆 1m거리를 쌍굴로 지나게 되어있는데 이지점은 제319공구로 지난 9월 착공됐다.</p> <p>이지점은 공기(工期)단축을 위해 쌍굴을 파는 공법을 채택, 사직단앞 도로폭 35m 는 그밑으로 두개의터널이 지나게돼있으며 사직단 정문 바로옆 지하26m에 폭 6.5m, 높이7.5m의 터널이 뚫어진다.</p> <p>현재 건설자재와 공구를투입할 진입로를 정문 옆에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인데 터 널 굴착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정문의기초가 흔들리고 건축물의안전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p> <p>외국의 경우 지하철노선이 문화재 옆을 통과하는것이 불가피할 때 지하철바로 옆 땅 속에 진동을 줄이는 방진벽(防振壁)을 설치, 문화재의 안전을 도모하고있으나 3호선 건설공사를 주관하는 서울지하철공사에서는 공사비를 줄이는데만 급급 해 아직까지 방진벽설치여부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p> <p>서울지하철공사는 도심구간 공사때만 인근 도로변건축물에 주는 발파진동을 최소화한으로 줄이기 위해 특수화약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p> <p>사직단정문은 지난 62년도시계획으로 문앞 도로가 35m로 확장고시됨에따라 종 전 위치에서 14m뒤로 물러나앉는 수난을 한차례 겪은적이 있다.</p> <p>지난 71년 지하철1호선건설당시에도 국보1호인 남대문과 보물1호인 동대문의 보호를 놓고 공사당국과 문화재위원회간에 논란을 벌이다 코르크 벽을 설치해 공사를 진행한 일이 있으나 그후에 생긴 현행 환경보전법상에도 공사때의 진동규제를위한 관련 규정조차 없고 국내에는 이같은 진동측정기계나 측정방법도 없는실 정이다.</p>  <p>보물 제 177호인 사직단정문이 지하철공사로 인한 진동때문에 기울어짐에 위험을 받는다. 방진벽을 설치해 진동을 줄이려 한다.</p>

동아일보	1981-12-17	10	社稷壇正門보호 위해 地下防振 壁 설치	社稷壇正門(사직단정문)보호위해 地下防振壁(지하방진벽) 설치 서울지하철공사는 지하철3호선... 사직단정문(본보12월14일자 11면보도)을 보호하 기 위해 사직단 지하에 방진벽(防振壁(방진벽))을 설치하고 「그라우팅」 공법으로 콘크리트를 주입시켜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로 했다. 서울지하철공사 관계자는 17일 또 발파때 사직단의 진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기위 해 정밀폭약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대문은 지하철1호선공사때수평거리 2.2m 깊이 5m를, 동 대문은 수평거리 5m 깊이 3m를 유지, 진동피해가 예상됐었다는 것. 그러나 사직 단 정문은 3호선공사에서 수평거리 2m 깊이 17m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1호선 때의 남대문동대문보다 진동피해가 적을 것으로 본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동아일보	1982-08-25	6	北岳 스카이웨 이 2km더 연장	北岳 스카이웨이 2km더 연장 서울시는 25일 88올림픽에 대비,서울시를 한눈에내려다볼수있는 北岳스카이웨이 를 2km 더 연장 건설하고 도로변에 휴게소와전대대를 갖추도록 하는등본격 관광 도로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중략) 폭15m인 이도로는 사직공원 뒷산에서 아리랑고개까지 8km가 나있으며 추가공사 가 끝나면 총연장이10km로 늘어난다.
동아일보	1982-11-12	10	공원·유원지변 소 수세식으로 바꾸	공원·유원지변소 수세식으로 바뀌 서울시는 올림픽과 「아시아」 경기에대비,공원과 유원지에있는 공중변소 1백55개 소를 모두 수세식으로 개량해 유료로 운영하기로했다. 이에따라 올해 1차로 1억7천9백만원을 들여 남산공원을 비롯, 삼청공원 뚝섬유원 지 사직공원 서소문공원 낙성대공원 등 6개지역의 공중변소 16개소는 이미 수세 식으로 개량,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동아일보	1983-02-07	10	鍾路區	鍾路區 崇仁·昌信洞등 4곳 도로확장 明倫4街등 31곳 上水道 공사 서울중로구는 올해 총83억9천만원을 들여▲도로확장 4건▲하수도공사 4건▲상수 도공사 31건▲공원녹지사업 17건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중략) ◇공원녹지사업(17건 3억2천2백만원)▲목정지역조경▲목정지역조경부암동 산2-1 주변사방공사▲사직공원 삼청공원내 공중변소 등 시설개량 (후략)
동아일보	1983-03-25	6	社稷路 교통통 제잘못 出退勤 때 체증부채질	社稷路 교통통제잘못 出退勤때 체증부채질 성산대로의 차량소통을 돕기위해 확장된 사직로가 잘못된 도로운용으로 아침러시 아위에 오히려 부근의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사직로는 사직공원앞~서울시경교통센터간을 잇는 폭20m 길이7백m의 4차선도로 로 중앙청~성산대로 간 성산대로의 교통에 맞춰 지난80년6월 확장됐다. (중략) 게다가 사직로에서 사직터널쪽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일부차량은 사직공원앞 에서 일단 우회전을 한후 필운주유소앞에서 社稷洞사무소앞으로 좌회전한 후 다 시 터널쪽으로 진행하는 편법을 쓰고있어 사직터널~중앙청, 중앙청~사직터널~서 울시교육원~중앙청간진행차량과 영키는 바람에 대낮에도 혼잡을 빚고 있다. 또 시경교통센터에서 사직공원입구쪽 2개차선은 통행차량이 별로없어 길옆 자동 차부속상 등에 일을 보러온 차량들이 2차선상에 태연히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 이다. (후략)
동아일보	1983-04-15	10	市 「병목停滯」 22개지점 車輛 소통 원활하게	市 「병목停滯」 22개지점 車輛소통 원활하게 長·短期대책마련 시행키로 정류장조정·신호개선短期策 路幅확장·교량도 넓혀長期策 明洞진입하는 2개道路 일방통행제로退溪路 光化門파출소앞 좌석버스정류장 이전光化門

				<p>淸溪7가에서 東大門쪽 가는 차량 좌회전 금지 (중략) ◇社稷路▲원인=통과차량과다▲대책=①가변차선제를 실시,사직공원↓정부종합청사 방면을 3개차선으로,반대방면을 1개차선으로 만든다.</p>
동아일보	1984-02-14	6	<p>都心「낮交通滯症」심각 아침6시~오후2시 전차량의 92% 몰려</p> <p>주간활동시간대에는 서울시내 모든 차량이 도심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 진입 억제정책이 과제로 등장했다. (중략) 러시아워(아침7시반~오전10시)에 가장 많은 차량이 집중하는 곳은▲정부종합청사 앞(1만8천14대)▲조흥은행본점앞(1만5천2백86대)▲서울역앞(1만3천7백8대)▲신세계백화점앞(1만3천5백10대)▲사직공원앞(1만3천90대)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점의 러시아워 교통억제책이 가장 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략)</p>	
동아일보	1984-03-05	6	<p>어린이올바른 讀書의 길 學級文庫만드는게 가장 좋아 사기 어려우면「貸出」이용을 教師·父母가 讀後感듣는것도 효과 새학기에 접어들어 확실한 독서계획을 짜 알차게 책을 읽으려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중략) 개학 첫날인 2일 오후만 해도 매동국민학교 등 가까운 7곳의 국민학생들이 시립 어린이도서관(사직공원내)의 7백좌석을 꽉 메운 가운데 사서들의 지도 아래 개가식 열람대에서 마음대로 읽고 싶은 책을 보고 있었다. (후략)</p>	
동아일보	1984-09-08	10	<p>빌딩사이의「고마운 휴식처」 『푸른그늘』小公園 서울「東崇洞마로니에」산책 하루千여명 光化門 敎保빌딩옆에도「만남의 장소」大邱東仁洞 나무길70m 연인들의 코스 정다운 對話로 피로씻고“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중략) 현재 서울시내에는 도시공원 9백32개소 자연공원1개소 사설공원등 숫자로는 모두 2천47개소나 되지만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삼청 남산 파고다공원 사직공원 등 10여개소에 불과한 형편. (후략)</p>	
경향신문	1984-10-04	10	<p>놀이터로 방치된「聖域」…社稷壇 日帝때 公園으로 格下 光復후도 史蹟으로만 지정---復元안해 사당은 간데없고 제단만남아</p> <p>日帝에 의해 놀이공원으로 전락된 社稷壇(종로구 사직동1의28)이 광복39년이 지나도록 원상을 회복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p> <p>社稷壇은 예부터 우리조상들이 국토의 신과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당으로 한나라의 흥망을 宗廟와 社稷의 흥망으로 대변할만큼 聖域으로 떠받들어온 유서깊은 곳이다.</p> <p>日帝는 한민족정기말살정책의 하나로 1911년 社稷壇제사를 폐지한데 이어 1922년엔 이웃한 彌雲동과 樓上동 일부입야를 보태 社稷공원으로 개조, 개방함으로써 하루아침에 민족의 성역을 놀이터로 격하시켜 버렸다.</p> <p>이처럼 나라의 패망과 함께 격하됐던 사직단은 광복 39년이 지나도록 당국은 서울시사적 제121호로만 지정했을뿐 日帝때의 모습대로 방치,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하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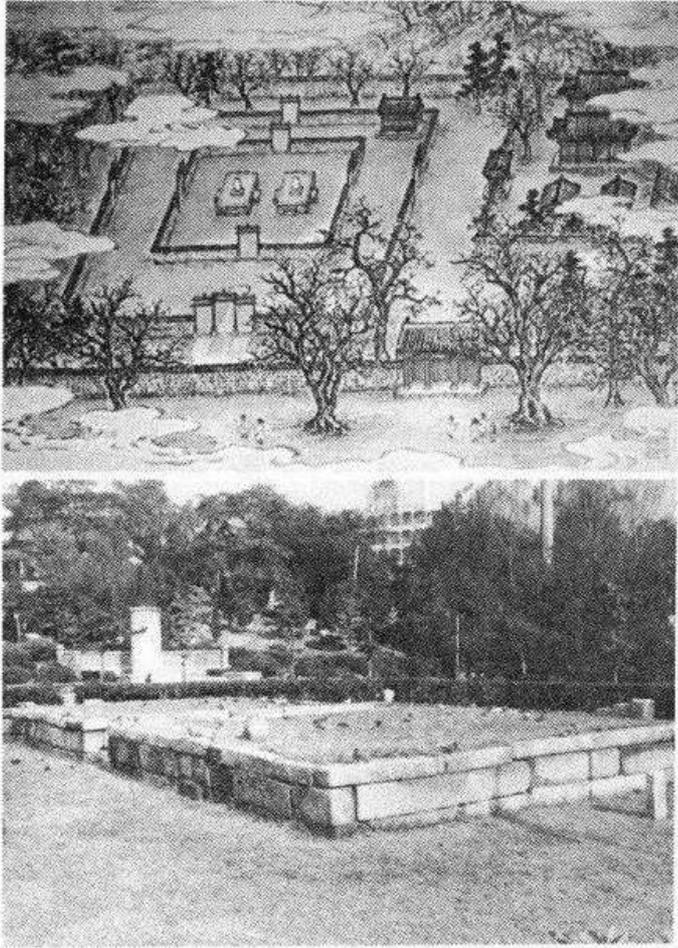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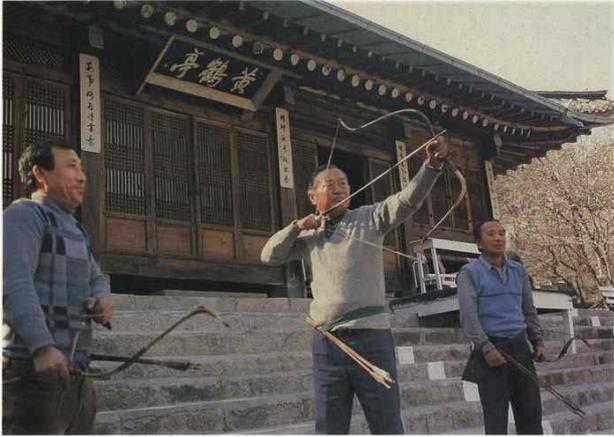
			<p>성전이 새로건립되는등 사직공원전체가 성역으로 조성된다.</p> <p>서울시는 6일 예부터 우리조상들이 국토의 신과 오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을 원형 그대로 복원키로 하는 한편 이일대를 성역화하기로 했다.</p> <p>서울시의 이번조치는 사직단이 日帝의 민족정기말살정책의 하나로 하루아침에 놓이던 격하, 방치돼오던것을 각계로 복원건의(본보84년 10월 4일자 10면보도 일부지방 10월5일)가 잇달아 취해진 것이다.</p> <p>서울시는 이를위해 지난달 28일 사직단 복원 및 단군성전 건립을 위한 1차회의를 갖고 각계대표 1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위원장 廉普鉉 서울시장)와 역사학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p> <p>추진위원회는 이날 첫모임에서 오는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의뢰, 사직단의 역사적 고증과 함께 5월부터 설계작업에 들어가 내년초 공사를 시작, 87년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p> <p>서울시는 이에따라 현재 사직단옆에 세워진 申師任堂과 栗谷의 동상을 다른장소로 옮기고 시립종로도서관과 아동도서관의 이전도 검토중이다.</p> <p>시는 또 사직공원의 성역화에 따라 지난 68년에 세워진 수영장을 철거하고 공원 윗쪽에 자리한 지방유형문화재 25호인 황학정을 원래있었던 경희궁터(구서울고교 자리)로 이전할 방침이다.</p>
<p>동아일보</p>	<p>1985-04-16</p>	<p>11</p> <p>"社稷壇도 史蹟공간으로 淨化를"</p>	<p>"社稷壇도 史蹟공간으로 淨化를" 日帝가 公園으로 格下---古宮처럼 관리운영 시급 慰樂공원화 안돼야 전문가들 原狀復元 주장</p> <p>정부는 日帝가 市民公園으로 격하시켜 왜곡·변조한 景福宮昌德宮 德壽宮 宗廟 등 古宮의 倭色을 털어내고 옛모습과 청취를 살리는 본격적인 정화작업을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있다. 그러나 이들 古宮과 함께 朝鮮朝의 문화와 국가의식을 오늘에 되새기게 하는 社稷壇(서울종로구사직동1의28)만은 아직까지도 사직공원이라는 공원개념의 차원에서 운영됨으로써 문화재관리·운영상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p> <p>현재 사직단은 日帝때 사적 121호로 지정된 사직단(2,750평)과 보물제177호인 사직단정문(257평)만 왜소하게 공원안에 자리하고있을뿐 주변경관은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과 수영장등으로 혼잡스런 분위기를 이루고 있으며 토관과 벽돌, 서울시 청소차의 수거함등이 흩어져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p> <p>사직단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는 최근 사직단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직단 정화계획을 발표했다.</p> <p>이 계획에는 사직단과 원래 관련성이 없는 申師任堂과 栗谷의 동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시립도서관과 아동도서관의 이전, 수영장 철거 및 지방유형문화재 제 25인 황학정이전도 포함하고 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서울시의 결정에 학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p> <p>그러나 사직단정화는 아직도 크게는 공원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p> <p>우선 관리체제부터 서울시 산하 사직공원 관리사무소가 아닌 사직단 관리사무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p> <p>사직단이 지금까지 이같이 허술하게 관리·운영된 까닭은 서울시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문화재관리국도 일제때 지정된 협소한 면적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주변 경관관리에까지 감독·지도의 손길을 미치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다.</p> <p>古宮의 史蹟空間전환과 발맞추어 차제에 사직단도 원래대로 복원하는 한편 사직단의 의미와 기능에 걸맞게 주위경관도 정화하고 위락공원관리방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지적한다. (중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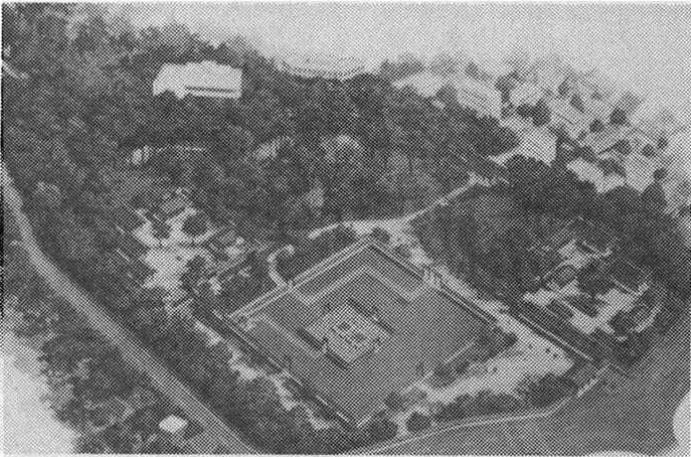
			<p>朝鮮王朝의 정치문화가 깃들인 社稷壇도 고증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원상태로 복원되고 경관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古宮에 이은 사직단 정화는 서울을 역사 있는 문화도시로 인식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朴正鎭 기자</p>
경향신문	1985-06-08	6	<p>「檀君聖殿」에 是非회오리          社稷공원안 확장계획에 宗教단체대립          기독교"稅金으로 특정종교지원·우상숭배 부당"          민족종교"뿌리찾는일---반대하면 民族魂운동전개"</p> <p>서울시가 추진중인 鍾路구 社稷동 사직공원내의 檀君聖殿 건립계획을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중략)          서울시는 지난 연초 외래사상에 물들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준다는 취지아래 사직공원의 성역화와 함께 단군성전확장 건립계획을 세웠다.</p> <p>이에따라 서울시는 학계와 언론계 재계 정계대표들로 단군성전건립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1월28일 1차회의를 열고 올해 안으로 위치선정과 함께 설계용역을 끝내고 오는 87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p> <p>그런데 지난4월초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유호준 목사와 협회총무 신신목 목사가 염보현 서울시장을 방문,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단군성전을 건립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이 사업은 관련단체에 맡겨야 할일"이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선데서 문제가 비롯됐다.          (중략)          현재 사직공원 안쪽 한 모퉁이에 초라하게 세워져있는 단군성전은 지난 68년 주로 학계인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顯正會(이사장 李熙昇박사·89)가 국조단군의 「弘益人間」 이념을 기리고 이를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다는 취지아래 성금을 모아 건립했던 것.</p> <p>대지 53평에 건평 16평규모인 이 성전은 단군상과 영정이 모셔져 있을 뿐 주변엔 옥외 수영장이 있고 3월15일(義天節)과 10월3일 開天節에 단군송모단체에서 제사를 지낼뿐이다.(후략)</p>  <p><b>현재 社稷공원 안에있는 건평 16평규모의 檀君聖殿。</b></p>
동아일보	1985-06-08	6	<p>현재 社稷공원 안에있는 건평 16평규모의 檀君聖殿</p> <p>현재 社稷공원 안에있는 건평 16평규모의 檀君聖殿.</p>
동아일보	1985-06-10	2	<p>檀君聖殿의 건립            민족宗祖 숭상은 宗教를 뛰어넘는 것이다            (중략)          서울시가 이미 각계인사를 참여시켜 단군성전건립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 올해안으로 위치선정과 설계용역을 끝내고, 87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짓기로 한 이 사업이 뜻밖의 반대를 받아 일단 멈춰서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다지</p>

			<p>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중략) 물론 성전을 건립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너무 「건물」만을 많이 세우는 것에 대한 현대인의 부정적 심리도 있다. 그리고 사직공원이라는 장소는 이곳이 지니고 있는 李朝史蹟으로서의 의미와 2개의 도서관등 기존의 많은 공공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각 문화단체가 장소선정을 재고하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있다. 당국은 이런 점까지도 유념하면서 성전건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거듭해주시기 바란다.</p>
동아일보	1985-07-04	10	<p>"委員會는 존속"廉서울市長 「檀君聖殿건립」 계속진통</p> <p>서울市贊反양론속 추진못하고 주춤 서울시가 추진중인 사직공원내의 단군성전 확장건립계획이 진통을 겪고있다.</p> <p>서울시는 지난연초 외래사상에 물들어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준다는 취지아래 사직공원의 성역화와 함께 단군성전 확장건립계획을 세웠다.</p> <p>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계 재계 정계등의 대표들로 단군성전 건립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1월28일 1차회의를 열고 올해안에 위치선정과 함께 설계용역을 마치고 오는 87년까지 끝내기로 했었다.</p> <p>그러나 지난 4월초 일부기독교단체가"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단군성전을 건립하는 것은 특정종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이 사업은 관련단체에 맡겨야 할 일"이라는 반대의견을 廉普鉉 서울시장에게 표명하기에 이르렀다.</p> <p>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5월25일에는 4개 민족종교청년회로 구성된 한국민족종교청년협의회에서 "민족의 뿌리인 단군성조를 부인하고 성전건립을 반대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일"이라는 반박성명을 냄으로써 찬반양론의 틈바구니에서 계속 진통을 겪고있는 실정이다.</p> <p>따라서 서울시도 이사업의 추진을 주춤하고 있는 상태로 큰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p> <p>이런상태에서 4일 廉普鉉서울시장은"이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초에 구성된 단군성전건립위원회와 추진위원회는 계속 존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두 위원회가 범국민적인 화합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p>
동아일보	1985-08-06	7	<p>"童話を 배달해드립니다" 「동화나무」·「동화마을」會員制운영 그림 곁들여 每週 한편씩 어린이 앞으로</p> <p>(중략) 나이가어릴 경우에는 동화를 읽히기보다는 실감나게 들려주는 편이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도 재미있어한다. 그래서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722 8912)이야기실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색동어머니회원들이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있다.</p>
동아일보	1985-12-10	6	<p>慶熙宮 崇政殿위치 확인 礎石등 遺構도 다수發見 日帝때 파괴심해 完全復元은 불가능 檀國大발굴팀 보고</p> <p>서울鍾路子新門로2가 慶熙宮址(舊서울고)에 대한 발굴조사작업을 벌여온 단국대 박물관 관장鄭永鎬박사는 이궁궐의 正殿인 崇政殿의 위치를 확인, 현재의 현대인력개발원 식당건물과 강당사이에 있었으며 御階와 崇政殿址 月廊址의 礎石등 重要 遺構들이 여기에서 발견됐다고 9일 오후 발표했다.</p> <p>(중략) 특히 興化門(현 호텐신라출입문으로 사용)과 黃鶴亭(사직공원의 활터건물로 사용)의 원위치복원은 초석이 없어지거나 대부분 망그러져 불가능것으로 보고됐다. (후략)</p>
경향신문	1986-04-03	6	<p>경희궁崇政殿복원 내년착수 옛 서울高자리 史蹟公園化 계획마련 市立박물관 「88」前 완공</p>



			<p>한편 현재 사직공원에 단군성전을 둔 현정회(顯正會·이사장 李熙昇박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단군성전자체건립계획을 세우고 모금운동을 추진중인데 "사직공원이 풍수지리설상으로도 좋으며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올렸던 유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새로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략)</p>
경향신문	1986-11-20	6	<p>社稷壇 원형 되살린다 日帝가 훼손 격하한 朝鮮朝성역 鄭歎그림토대 내년에 비석·담세우고 홍살문도 復元</p> <p>朝鮮시대 國社(正位土神으로 국토의 神)와 國稷(正位穀神)을 모셨던 聖域으로日帝가 훼손해버린 社稷壇(사적121호)이 원형대로 복원된다.</p> <p>서울시는 20일 昌慶宮과 宗廟를 단일권역화하기로 한테이어 현재 종로구 사직동 128 사직공원에 壇과 社稷壇正門(보물177호)만이 남아있는 社稷壇을 비석을 세우고 담을 둘러치며 홍살문을 세우는 등 원형을 되살리기로 했다.</p> <p>이에따라 서울시는 사직단복원고증위원회를 구성, 「社稷署儀軌」 등 관련문헌과 18세기에 鄭歎이 그린 「社稷壇圖」를 토대로 내년 원형복원에 착수키로했다.</p> <p>社稷壇은 국가를 가리킬 때 흔히 쓰는 「宗사」(宗廟社稷의 준말)의 「社」에 해당하는 제단으로 漢陽에 도읍을 정한 太祖 李成桂는 1395년 우리 선조들의 開國관례에 따라 敬福宮 동쪽에 宗廟를, 서쪽에 社稷壇을 세웠었다.</p> <p>그러나 성역이었던 이곳은 日帝가 朝鮮의 氣를 꺾기 위해 공원으로 격하시키고 부지를 분할, 우회도로를 내는 바람에 크게 훼손됐다.</p> <p>수난은 광복후에도 계속돼 사직단정문은 지난 62년 도로확장공사때 원위치에서 뒤쪽으로 14m 밀려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p> <p>따라서 사직단이 원형대로 복원되면 昌慶宮·종묘 단일권역화와 함께 日帝가 脈을 끊어놓았던 우리의 「宗廟社稷」이 모두 원래모습을 되찾게된다.</p> <p>사직단은 東西兩壇에 각각높이 2.5자, 너비 1자의 石柱를 세워 后土氏와 后稷氏를 배향토록 설계돼있다. 이곳에서는 1년에 4차례의 大祀와 先農·先蠶·雩壇을 제사지내는 中祀, 그밖에 祈穀祭와 祈雨祭를 지냈다.</p> <p>사직단이 설치된 후 1426년 社稷署를 신설, 丞(종6품)1명과 綠事 2명으로 하여금 제사의 수발을 맡도록 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單層門인 사직단정문은 임진왜란 때 壇만남고 불타버렸던 것으로 그후 중건된 것. 현재 사직공원과 주변시설로는 시립도서관과 시립아동병원 등이 있으며 주로 李珥 申師任堂동상과 金東仁 문학비, 풀, 활터 등이있다.</p> <p>&lt;黃宇淵)기자&gt;</p>

			 <p>宗廟와함께 朝鮮朝의 상징이었던 社稷壇의 원래모습. 18세기경 鄭澈이 그린 「社稷壇圖」㉠와 日帝에 의해 훼손돼 초라하게 壇만남아있는 현재의 공원화된모습㉡.</p>
경향신문	1987-04-23	9	<p>高宗皇帝 숨결스민 黃鶴亭 경희궁안에 있던 黃鶴亭은 나라가 망하고 경희궁이 헐릴때 뜻있는 서울의 弓手들에 의해 지금의 仁旺山기슭으로 옮겨졌다.</p>  <p>高宗皇帝 숨결스민 黃鶴亭    경희궁안에 있던 黃鶴亭은 나라가 망하고 경희궁이 헐릴때 뜻있는 서울의 弓手들에 의해 지금의 仁旺山기슭으로 옮겨졌다.</p>
경향신문	1987-05-02	10	<p>社稷壇 복원계획 확정 年内 국사단·국직단·담장·門 되살려 서울시가 확정된 사적121호 사직단복원계획(본보86년11월20일보도)이 확정됐다.</p>

			<p>(조감도)</p> <p>1단계사업으로 시는 연말까지 3억2천만원을 들여 국사단과 국직단 및 담장·문을 복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李珥, 申師任堂 동상은 서울대공원으로, 金東仁 문학비와 어머니 현장은 어린이대공원으로 각각 이전하며 풀 2곳,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노인정도 철거하게 된다.</p> <p>2단계사업으로는 사직서와 재실을 복원한다. 사직단이 원형대로 복원되면 창경궁·종묘단일권역화사업과 함께 일제가 맥을 끊어놓았던 우리의 「宗廟社稷」(국가를 상징)이 모두 원래모습을 되찾게된다.</p> 
경향신문	1987-05-19	6	<p>경희궁崇政殿·興化門 돌아온다 발굴통해 원위치 確認 復元계획 文公부와 협의---御道도 함께 소유주東國大·신라호텔엔 新建物 지어주기로 (중략) 그러나 경희궁의 위치를 기록한 「西闕圖案」에 의해 확인된 98동의 건물중 현재 남아있는 黃鶴亭(지방문화재제25호·사직공원이전)은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이전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후략)</p>
동아일보	1988-03-18	14	<p>國弓 옛人氣 되찾는다 洋弓 능가하는 全身운동...정신수양에도 한몫 (중략) 1620년경 조선조 광해군때 건립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산1 황학정과 1660년 현종 3년에 건립된 전주 다가공원내 천양정을 비롯, 현재 전국에는 서울의 10곳을 포함, 2백10개의 호라터가 있다. 거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장격인 射頭 밑에 副射頭와 이사회 射員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후략)</p>
경향신문	1988-04-15	9	<p>興化門 56년만에"還宮" 日帝가 허문 慶熙宮 「예모습」 아련히... 公園조성·본관改築등 3大공사 1차完工 6月로앞당겨 강행군 세종회관   貞洞공원연계 文化공간으로</p> <p>사적제271호경희궁지(慶熙宮址). 종로구 신문로1가2의1 옛서울고 자리인 이곳에 도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키위한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중략) 결국 복원은 日帝때 영똥한 곳으로 옮겨져 보존된 3채의 건축물과 담장·배수로 등 몇군데 남은 구조물에 한해 실시하게 됐다.</p> <p>3채의 건축물은 신라호텔 정문으로 쓰이던 「홍화문」(서울시유형문화재17호), 동국대의 「정각원」으로 사용되던 「승정전」("20호), 사직공원 안쪽의 「황학정」("25호).</p> <p>서울시는 이3채의 건축물을 원래의 위치로 옮겨 복원하고 그바탕위에 문화가 숨쉬는 휴식공간을 조성키 위해서 시립박물관 미술관 및 공원을 세울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것이다. (후략)</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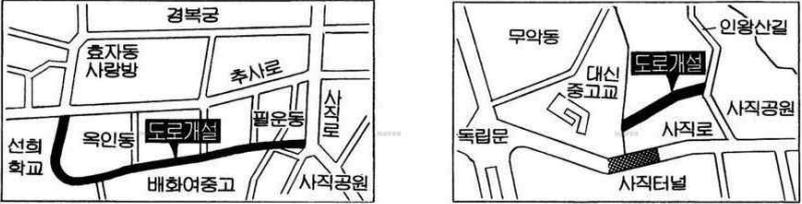
동아일보	1988-06-16	13	公園 8百66곳 정비	<p>公園 8百66곳 정비</p> <p>서울시내 대소규모공원 8백66개소가 올림픽이전까지일제히 정비된다.</p> <p>서울시는 13일부터 서울대공원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등 4대공원과 파고다 경희궁 사직 아시안공원등 4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7백 67개소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정비 시설물도색작업과 함께 화단을 새로 조성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펴기로 했다.</p>
동아일보	1988-07-01	9	공원 수영장 개 장	<p>공원 수영장 개장</p> <p>서울시 각공원내 수영장이시설보완을 끝내고 7월초일제히 개장된다.</p> <p>△1일=묵정(충무로5가)인현(仁峴洞2가)장평(長安洞)영옥(永登浦6가)장충(남산공원) △2일=어린이대공원제1,2수영장△15일=사직(사직공원)경희궁(경희궁공원)△7월초 =보라매(보라매공원)</p>
동아일보	1988-07-25	13	金東仁문학비 이전	<p>金東仁문학비 이전</p> <p>서울시는 사직단복원공사를 착공하기로한 계획에따라사직공원내에 있는 金東仁문학비를 어린이대공원으로이전키로 했다.</p> <p>이 문학비는 오는 8월10일까지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 정면 우측에 옮겨지며 비 옆에 金東仁선생의 흉상이 새로 세워진다.</p>
동아일보	1988-12-20	13	鍾路	<p>鍾路</p> <p>낙산 와룡公園등 2곳 새로조성</p> <p>종로구는 관내 문화재를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문화과를 신설하고 동묘등 11개소를 대대적으로보수한다.</p> <p>(중략)</p> <p>◇문화재관리=△대원군별장개수△석과정안채 및 부속건물보수△동묘투시형담장 보수 및 기와고르기△김종욱家지붕공사△사직단 보신각등 보수(후략)</p>
동아일보	1989-04-27	13	鍾路區民 걷기 대회 29일10 시~오후2시	<p>鍾路區民 걷기대회</p> <p>29일10시~오후2시</p> <p>종로구는 오는 29일 오전10시부터 4시간동안 사직공원~인왕산길 팔각정까지5.2km에 걸쳐 구민걷기대회를 갖는다.</p> <p>이행사에는 구민및 직장인1천5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p>
동아일보	1989-12-19	13	90 市주요투자 사업 (4) 도로 사업	<p>'90市주요투자사업</p> <p>&lt;4&gt; 도로사업</p> <p>11개간전도로 「체중」대폭수술 京仁고속~여의도 1단계 끝내 南山 I 북악터널 쌍굴 계속뚫어 彌阿삼거리~吉音橋 1.2km 착공</p> <p>(중략)</p> <p>사직공원~중앙청간 社稷路 5백90m구간은 현재 도로폭 30m를 50m로 크게 확장한다. 내년 완공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58억 5천만원.</p>

- 1990년대

신문명	년월일	면	제목	본문
동아일보	1990-04-27	13	사직공원 담장 등정비 조경목2 百그루 식수	<p>사직공원 담장등정비조경목2百그루 식수</p> <p>사직공원의 낡은 철조망울타리와 담장이 대대적으로정비된다.</p> <p>서울시는 27일 鍾路구社稷동소재 사직공원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단군성전 진입로변의 철조망 울타리와 사직단 뒤측 블럭담장 4백55m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콘크리트 투시형 담장을 설치키로 했다.</p> <p>또 사직공원의 녹지대를 확장하고 소나무 등 조경목 8종 2백36그루를 심기로 했다.</p>

				이번 공사는 5월에 착공, 8월에 완공되며 총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
동아일보	1990-04-27	13	사직공원 담장 등정비 조경목2百(백)그루 식수	<p>사직공원의 낮은 철조망울타리와 담장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p> <p>서울시는 27일 鍾路구 社稷동소재 사직공원의 주변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단군성전 진입로변의 철조망 울타리와 사직단 뒤측 블럭담장 4백55m를 철거하고 그자리에 콘크리트 투시형담장 설치키로 했다.</p> <p>또 사직공원의 녹지대를 확장하고 소나무등 조경목8종 2백 36그루를 심기로 했다.</p> <p>이번 공사는 5월에 착공, 8월에 완공되며 총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소요된다.</p>
동아일보	1992-08-27	21	서울市 역사人物 8개동상 관련거리로 이전	<p>역사人物 8개동상 관련거리로 이전 서울市</p> <p>서울시는 27일 시내 각처에 흩어져있는 역사적인물의 동상8개를 내년부터 동상인물의 호와 관련이 있는 건물이나 거리로 옮기기로 했다.</p> <p>시가 이전키로한 동상은 (중략)△李栗谷동상은 사직공원에서 울곡로로(중략)△丁若鏞동상은 남산공원에서 다산로로 각각 옮겨진다.</p>
동아일보	1992-09-23	20	史蹟공원 文化財관리 부실	<p>史蹟공원 文化財관리 부실 근린公園분류 기능직 배치 國寶훼손등 제때 파악 못해</p> <p>국보및 보물급 문화재가있는 서울시내 주요 사적공원이 문화재에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기능직공무원에 의해 관리운영되고있어 이에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p> <p>서울시내 2백20개근린공원가운데 공원내에 중요사적이나 국보 또는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사적공원은 22개소에 이르고 있다.</p> <p>탐골공원의 경우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 보물3호인 원각사비가 들어서있으며 사직공원에는 보물177호인 사적단정문이 자리잡고 있고 효창공원은 내부에 金九선생등 독립유공자의 묘소가 위치, 사적 330호로 지정되어 있다.</p> <p>이들 사적공원들은 근린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사적지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이를 근린공원으로 단순분류해 관할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기능직공무원들을 파견, 문화재를 포함한 공원전체관리를 하도록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p> <p>이에따라 사적공원내의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경우에도 관리직원들이 이를제때 파악하지 못한 채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p>
동아일보	1993-04-20	26	수도권 도심放射型도로 6月 개통 서울市 업무보고 내용	<p>수도권 도심放射型도로 6月 개통 서울市 업무보고 내용 81곳 재개발 아파트18萬호 건설 광나루~개화洞에 자전거 專用路 인왕산~덕수궁 「역사탐방路」 조성 (중략)</p> <p>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개방된 인왕산과 서울성곽 경희궁 구러시아공관 덕수궁 등 역사공원을 한 개의 축으로 연결하는 탐방로 2.43km(등산로제외)를 내년말까지 조성한다.</p> <p>탐방로계획노선은 덕수궁~덕수궁길~예원여고옆길~구러시아공관~새문안길~경희궁공원~사직터널~서울성곽~인왕산 등이다.</p> <p>기존도로를 유보도(遊步道)로 정비해 사용하고 미개발구간에는 신문로 재개발사업 등과 연결해 길을 마련한다.(후략)</p>
동아일보	1993-06-05	13	인왕산 선바위 근처에서 사직공원쪽 성곽과 도심지를 내려	<p>인왕산 선바위 근처에서 사직공원쪽 성곽과 도심지를 내려다본 모습.성곽 바로 안쪽은 사직공원이고 뒤로 경희궁터와 덕수궁이 눈에 들어온다.</p>

			다본 모습	 <p>인왕산 선바위 근처에서 사직공원쪽 성곽과 도심지를 내려다본 모습. 성곽 바로 안쪽은 사직공원이고 뒤로 경희궁터와 덕수궁이 눈에 들어온다.</p>
동아일보	1993-06-22	26	북악스카이웨이 산책객 늘어	<p>북악스카이웨이 산책객 늘어 자하문~정릉 7.7km 개방시간 확대로 군사보안이유 주·정차   촬영 계속 금지</p> <p>서울시민들의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을 받아온 북악스카이웨이(북악산길)의 야간도보 통행이 일부 허용됨에 따라 이곳을 찾는 산책객들의 발길이 차츰 늘고있다. (중략)</p> <p>이와함께 서쪽으로 북악스카이웨이가 끝나는 자하문입구에서 사직공원까지의 인왕스카이웨이(인왕산길)2.3km도 지난 3월부터 도보통행이 자유로워져 두길을 곧바로 잇는 새 산책코스가 가능하게 됐다.</p>
동아일보	1993-07-25	21	여름철 露宿 부랑인 급증	<p>여름철 露宿 부랑인 급증 驛대합실   공원등 폐지 "부녀자회통 혐오감조성" 상반기 갱생원에 2천여명 수용</p> <p>여름철이 되면서 도심지하공간이나 공원등지에서노숙하는 부랑인이 크게늘고 있다. (중략)</p> <p>24일밤11시경 서울중로구 사직동 사직공원에서는 30~40대 남자5명이 벤치에서 만취한 모습으로 자고있었다. 이들이 굶아떨어져 있는 벤치옆에는 술병서너개가 뒹굴고 있었고 산책나온 시민들은 이들이 자고있는 벤치에서 떨어진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후략)</p>
동아일보	1993-09-09	13	定都 600년 서울 再發見 <40> 도시계획 (7) 軍눈치보기...갈팡질팡 行政	<p>定都 600년 서울 再發見 &lt;40&gt; 도시계획 ⑦ 軍눈치보기...갈팡질팡 行政 情報司막혀 大路·지하철 우회 機務司반대 경희   경복궁 연결 「文化벨트」 차질 (중략) 청와대동쪽입구 기무사터는 역대 선왕의 御譜등을 보관하고 왕과 왕비의 의복을 받들어 드리며 宗室의 여러사람들을 통솔 감독하는 「宗親府」(서울시 지방문화재 제9호)가 있던 자리.</p> <p>시는 최근 내년 정도 6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희궁과 사직공원 경복궁을 연결하는 「전통문화벨트」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p> <p>그러나 이것도 서초로 관통도로처럼 군(기무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후략)</p>
동아일보	1994-02-09	27	"북악스카이웨이를 보행도로로"	<p>"북악스카이웨이를보행도로로" 민간단체 청원"경관좋아 시민걷기에 적합---차량통금음" 청와대등 군작전지역...당국 답변 관심 서</p>

			<p>울의 북악스카이웨이 12km에 대해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곳을 「정부 지정 건강보행로」로 지정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p> <p>(중략)</p> <p>북악스카이웨이는 사직공원에서 인왕산 기슭과 자하문을 거쳐 상봉의 팔각정에 이르고 삼청동과 성북동 등성을 내려가게 되면 아리랑고개를 거쳐 돈암전철역에 닿게 되는 12km의 거리로 거리와 대상지역을 조정하기에 따라 7,8개의 뛰어난 보행로가 생기는 곳이다.</p> <p>한국건강보행연맹은 이곳을 보행전용도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북악스카이웨이에서 15차례의 건강보행 대회를 가진 바 있다.</p> <p>(金基萬)</p> 
동아일보	1994-02-09	27	<p>종로구 2개도로 개설</p> <p>사직~인왕산길</p> <p>필운洞~옥인洞</p> <p>하반기착공 95   99년 완공</p> <p>경북궁동쪽 2車線 4월개통</p> <p>서울종로구는 8일 필운동에서 옥인동간 이면도로와 사직동에서 인왕산길간연결도로공사를 올해하반기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구는 필운동142 사직공원앞에서 신교동70 자하문터널입구간 길이 1천1백40m 왕복2차선의 이면도로 개설공사를 1백5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에 착공, 99년 완공키로 했다.</p> <p>구는 또 사직동304 사회과학도서관앞에서 사직동 산1의16 인왕산길을 잇는 길이 2백70m 왕복2차선 도로공사를 올 하반기부터 시작(사업비 9억8천만원),95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다.(후략)</p>
동아일보	1994-06-23	27	<p>충무공—세종대왕 銅像 移轉양기로 확정</p> <p>서울市 문화재委</p> <p>거리이름과 맞지않아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충무공및 세종대왕 동상의 이전문제가 서울시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백지화됐다.</p> <p>(중략)</p> <p>또 종로구 사직공원내의 신사임당과 이율곡 동상이 나란히 있어 부부사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자간의 두터운 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나란히 세운 건립(69~70년) 취지를 존중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p>
동아일보	1995-04-18	3	<p>(전략)</p> <p>시는 특히 광화문~서울역구간(국가중심가)의세종로 태평로 남대문로보도폭을 10~15m로 확대,녹지로 꾸며 거점광장과 연계한 가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p> <p>시는 경북궁부근 율곡로~사직터널간 도로를 지하화하는등 각 광장 주변의 교통체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후략)</p>
동아일보	1996-10-06	26	<p>"과녁을 향하여..."</p> <p>"과녁을 향하여..."5일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내 황학정에서 열린 국궁대회에서 한궁사가시위를 당기고 있다. &lt;金京濟기자&gt;</p>
동아일보	1999-08-11	14	<p>서울 사직공원내 단군전에 봉안된 단군의 영정</p> <p>서울 사직공원내 단군전에 봉안된 단군의 영정.</p>

			<p>기에 대 반응은 , 학계 군 조선 과 보는 되만 그</p>  <p>서울 사직공원 내 단군전에 동 안된 단군의 영 정.</p>
<p>동아일보</p>	<p>1999-10-22</p>	<p>29</p> <p>서울 都心 문화 유적 앞 고층아 파트 허가'말썽'</p>	<p>서울 都心(도심) 문화유적 앞 고층아파트 허가'말썽' 사직동일대에 14층 건설 추진</p> <p>서울시가 도심의 문화유적 앞에 고층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준것으로 뒤늦게 밝혀 져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사직동 54 일대 1만 2170평이 사직1 도심재개발구역으로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 들은 11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얻은뒤 내년 3, 4월경 14층짜리 아파트 4개동 건설공사에 들어갈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직지인 경희궁과 사직단(조선조 사당을 모시는 곳)으로부터 25~35m밖에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4일 서울시가 조정한다도심재개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문화유적 보존 차원 에서 앞으로 이 지역은 건물 최고 높이가 50m, 층수는 10층 내외로 제한될 예정 이다. 현재 이 지역에 건설될 아파트는 종전의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14층 높이 로 허가가 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한다도심재개발 기본계획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 라 서울시의회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치고 있다"며 "이미 허가가 난 이 아파트 건축계획은 규정상 별다른하자가 없다"고 말했다.</p>
<p>동아일보</p>	<p>1999-12-01</p>	<p>50</p> <p>文化가 흐르는 漢字 (58) 社稷 洞</p>	<p>文化가 흐르는 漢字 &lt;58&gt; 社稷洞 光化門을 좌로 돌아 독립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조그만 公園(공원)이 하나 나온다.이름하여 社稷公園이다. 그 일대가 社稷洞이다. 모두 '社稷'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社는 땅(土)귀신(示), 稷(직)은 벼를 뜻하는 禾(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곡식의 일 종임을 알 수 있다.'피'다. 벼의 祖(조)로 옛날에는'五穀의神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社稷이라면 '땅귀신'과 '곡식신'이 되는 셈이다. 농경민족에게 곡식을 키워주는 땅이야말로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은 새 王朝를 세우면 開國祖는 먼저宗廟(종묘)와 함께 社 稷부터 모시고 제사를 위해 祭壇(제단)을 갖추었는데 이것이 社稷壇이다. 중국의 경우 명나라 때의 社稷壇이 현재 北京 中山公園內에 위치해 있다. 한국과 중국에 서곡식과 땅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社稷壇(사직단)을 세우는 데에는 원칙이 있었다.'左祖右社(좌조우사)'다. 왕궁을 중 심으로 좌측에宗廟, 우측에 社稷을 각각 모셨다. 이것을 方位로 보면 동쪽에 宗 廟, 서쪽에 社稷이 위치해 서로 對稱(대칭)이 되게 했다. 그런데 애초 농작물의 豐作을 위해 기도했던곳이 후에는 國家大事가 있을 때나 國泰民安(국태민안)을 祈願할 때에도 社稷壇을 찾게 되었다. 이 때부터 社稷은 國 家の 상징으로 되었다.'社稷의 安危'나 '社稷의 存亡'이라는 말이 있다. 社稷之臣은 '社稷을 구한 臣下'로 국가에결정적인 공헌을 한 신하를 뜻한다. 일찍이 일제가</p>

			<p>朝鮮 社稷의 맥을 끊기 위해 그 신성한 社稷壇을 공원으로 격하시키더니 요즘 또 다시 人口에 膾炙(회자)돼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社稷洞이 '辭職洞'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다.</p>
--	--	--	---